

김재영 청보리회 지도법사
"불교 중흥 첫걸음
삶의 현장속으로"
16·17면

현대불교

마음이 침체되어서는 안되며
쓸데없는 생각을 해서도 안된다.
깨끗한 행동을 의지처로 삼아라.
금주의 법구 〈숫타니파타〉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2월 2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931호 2013년 3월 13일 수요일

새학기, 어린이에게 불서를 읽히자



어린이 위한 불서 발간
지난 3년간 감소 추세

수익성 없는 게 큰 이유
교리 학습 · 재미 잡아야
아동 불서 종단 선정 등
범불교적 차원 지원 필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딸을 둔 직장인 불자 K(42)씨. 그는 딸과 함께 시내 대형서점에 들린 김에 어린이 불서를 구입하려 했으나 어려움을 겪었다. 대형서점에는 대부분 교리나 스님 에세이 위주의 책들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인터넷 서점과 지인을 통해 물어 물어 주문할 수 밖에 없었다.

불교계 출판시장에서 어린이 불서 비율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불서총판 운주사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신간으로 등록된 목록들을 살펴보면 이 같은 현상은 두드러진다. 2010년 19종이었던 어린이 관련 불서는 2011년에는 14종으로 줄던 것이, 2012년에는 8종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어린이 불서 시장이 전무할 정도인 이유는 무엇일까? 불교계 출판사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수익성이 없음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어린이 책의 경우 전문 작가의 삽화 등 어른용 책보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 손익분기점도 높은 편이다. 어린이 불서를 발간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약 3천부 가량이 구매돼야 하지만, 현실은 1천 권을 소비하기도 버겁다는 것이다.

김시열 운주사 대표는 "어린이 불서는 손익분기점이 아니라 기본적인 부수로 소화하기 힘들다"며 "문서 포교도 좋지만, 최소 경비라도 나와야 하는 데 어린이 불서 출판은 이마저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활성화되지 못한 어린이 법회 등 미약한 어린이 · 청소년 포교환경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솔바람 출판사 대표 동출 스님은 "기본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다"며 "일선 사찰에서라도 어린이 · 청소년 법회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불서를 권선해야 하는 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사찰 주지 스님들이 불교의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몇몇 불교계 출판사의 원력이 있어 적은 규모라도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불서 시장이지만 그 안에는 보배로운 책들도 찾아볼 수 있다. 실제 불광출판사의 〈화가 났어요〉 시리즈는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높은 호응을 받았다. 솔바람출판사는 척박한 불교 만화를 부흥시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관련 도서를 발간하고 있다.

최근에 나온 불교시대사의 〈나도 부처님 될래요〉도 눈길을 끈다.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인이 쓴 〈나도 부처님 될래요〉는 부처님의 생애를 52주 동안 한 단원씩 공부하도록 배우도록 꾸몄다. 〈관련 기사 22면〉

불교계 출판 관계자들은 어린이 불서 출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단 차원의 어린이 불서 선정 등 범불교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학습만화가 어린이 출판시장의 트렌드인 만큼 불교 문화와 학습만화 효과를 결합한 출판 콘텐츠 발굴 등도 발전 방안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동출 스님은 "포교원이 매년 어린이 불서를 선정해 사찰과 불자들이 이를 권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시열 대표 역시 "불교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어린이 책을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학습만화 시장이 대세인만큼 불교와 이를 연계한 콘텐츠 발굴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명환 불광출판사 제작부장은 "불교계 어린이 · 청소년 포교환경과 기본적인 불서 출판 시장 인프라를 성장시켜야 어린이 불서 시장도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신진 작가 발굴 등 불교계 출판사의 자구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지속 가능한 직업 교육 제안" 국제구호NGO (사)하얀코끼리가 2013년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이사장 영담 스님을 비롯한 운영진들이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 아웅산 수치 여사의 자택을 방문했다. 이날 자리에서 영담 스님은 직업교육센터 등 미얀마에 지속 가능한 직업 교육 지원을 제안했다.
관련 기사 5면
미얀마=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삼화사·진관사 수륙재 무형문화재된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분과, 8일 회의서 결의

연등회에 이어 동해 삼화사와 서울 진관사의 국행수륙재도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위원장 임돈규)는 3월 8일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삼화사와 진관사 수륙재의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해 삼화사, 진관사 수륙재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한 달간 예고하게 된다. 별 이견이 없는 한 두 사찰 수륙재의 무형문화재 지정은 확실시 된다. 사실상 불교무형문화유산인 수륙재의 중요성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다.

불교에서 물과 육지에서 헤매는 외로운 영혼과 아귀(餓鬼)를 달래며 위로하기 위하여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의식이다.

중국 양무제 시기부터 봉행한 것으로 알려진 수륙재는 한국에서 고려 광종 21년(970)에 개설된 갈양사의 수륙도량이 최초이다.

숭유억불의 조선시대에도 유생들의 비판이 있었지만 오랜 전통으로 자리잡아 있던 만큼 국가 주도로 수륙재가 봉행됐다.실제 1606년(선조 39) 6월에 창의문 밖에서 있었던 수륙재나 1433년(세종 15)에 효령대군이 시주가 된 한강에서의 수륙재 때에는 양반 · 평민 등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길을 메울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삼화사와 진관사에서 매년 봉행되는 국행수륙재도 조선 태조 때 시작돼 역사가 깊다. 두 사찰 모두 이번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수륙재 복원과 정기적 시연 행사,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지정에 대해 불교 의례 전문가인 前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장 미등 스님은 "조계종 내 사찰에서 봉행됐던 의례가 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되는 것은 불교계에도 큰 경사"라며 "이번 지정으로 소홀했던 불교 의례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931호 INDEX

종합 2·3
2013 만해대상 수상자 발표
조계종 제1기 종무행정학교 개강
법정 스님 3주기 추모 법회
한마음선원 인재장학금 전달
나눔의 집 할머니들 日밴드 고소

시방세계 5
하얀코끼리 미얀마 봉사현장



학술 · 문화재 7
"경허 논의 결말 아닌 시작"

경주 남산을 오르다 12

해외 18
美텍사스의 '명상바람'

승려 복지 캠페인 동참하세요

승려복지회, 출가 열반절 3월 '승보공양의 달'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지현)가 출가 열반재일이 있는 3월을 승려 복지 증진을 위한 '승보공양의 달'로 지정하고 범종도 승보공양실천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승려복지회는 승보공양운동 첫 행사인 3월 3일 조계사의 생명살림 기도법회에서 승보공양실천운동을 선포했다.

조계사 생명살림 기도 법회는 방생 주제를 '불성방생'으로 정하고 윤회 · 승보공양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특히 종단 스님들이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모금 ARS에 전 참가 인원이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동참 후 참가자들은 "이제라도 종단 스님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시행돼 다행"이라며 " 우리 신도들도 승보공양 운동에 기쁘게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승려복지회는 조계종 포교원, 중앙신도회와 함께 3월 19일 출가재일부터 3월26일 열반재일까지를 승보공양 집중정진 · 실천기간으로 정하고 조계종 전국 사찰에서 승보공양을 주제로 하는 선포법회를 봉행한다.

3월 19일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는 출가재일 특별법회와 함께 승보공양 실천 주간의 시작을 알리며, 3월 26일에는 열반재일 법회를 통하여 연중 승보공양 실천운동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ARS (060)700-1077

신중일 기자
관련 기사 6면

대한불교청년회 연등회 서포터즈 모집

중요무형문화재 122호인 연등회에 외국인을 교육해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 이하 대불청)는 "오는 5월 2013 연등회 기간 동안 외국인 안내와 행사진행 보조, 외국인 대상 모니터링 등 자원봉사에 참여할 내 · 외국인 서포터즈 70~8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을 통해 선발된 서포터즈들은 6회의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해 연등축제기간 동안 청년 서포터즈들은 다른 참가자들의 행사 참여를 돕고 거리 질서를 유지하고 행사진행 등을 보조하게 된다.

서포터즈 모집은 한국에 체류중인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2~30대 청년들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자는 3월 27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02)738-1920

이나은 기자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size check
← 75mm →
↑ 75mm ↓
← 55mm →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 류	컵 종 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 낱개당 5,000원 (택배비 별도)
- 세트당 (2개) 9,000원
-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1.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그대가 스승을 보호주로 여긴다면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으리니
여정을 위한 경비는 스승에 대한 헌신이다.

영적인 스승은 대지와도 같아서 절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스승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안내할 때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늘이 있기에 항공기는 걸어서 가기 어려운 곳에 빠르게 데려다 줍니다. 스승에 대한 헌신으로, 스승의 가피는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신속히 데려다 줍니다.

'다르마' 단어의 의미 중 '견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견디고 확신을 갖도록 안내합니다. 어떤 사람이 빠르게 흐르는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어떤 힘센 손을 가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단단히 잡고 강기슭으로 끌어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스승은 죽음과 윤회라는 쳇바퀴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승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근본불교에서 대원만 수행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가르침을 따른 어떤 단계의 수행자이건 정통을 지닌 스승의 안내 없이도 가르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만, 스승은 수행의 진전과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잠재돼 있는 장애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을 방지해주는 최고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향한 여행길에 헌신이 그 여비입니다. 우리의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헌신에 자신을 바쳐야 합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실천부문 대상



일면 스님 | 앤더라힘 엘 알람 작가 | 다공 따야 작가

평화부문 대상



김성수 성공회 주교 | 페툴라 귤렌 운동가 | 세계불교도우의회

문예부문 대상



안숙선 교수 | 잉고 슐체 소설가 | 콘스탄틴 케드로프 시인

올해 만해대상 역대 최대 규모 시상

만해선양회, 실천 · 평화 · 문예부분 9명 선정

생명나눔 실천 일면 스님 등
사회 귀감된 인물 이름 올려
시상식 8월 11일 인제서 개최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자승)는 3월 4일 2013년 만해대상자 수상자를 발표했다. 2013년 만해대상은 평화 · 실천 · 문예 등 3부분으로 나눠 역대 최대로 9명이 선정됐다.

실천부문에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을 비롯해 앱더라힘 엘 알람 작가, 다공 따야 작가 등이 선정됐다.

일면 스님은 불교계 장기기증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를 이끌며 불교자비정신을 사회에 구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생명나눔실천본부에는 2012년까지 12만여명의 회원과 32,814명의 장기기증희망자가 등록돼 있으며 207명의 말기질환자가 장기기증을 받아 새 생명을 찾았다. 일면 스님은 이 밖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초대 교구장을 맡아 46개 군법당 중창 불사 등을 진행했으며 광동학원, 해인장학회 등 교육사업에도 매진해왔다.

앱더라힘 엘 알람 작가는 모로코 출신으로 모로코작가연합회 회장 및 아랍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문화잡지 AFAQ 책임자를 맡아 문학을 통한 평화운동에 앞장 선 바 있다.

다공 따야 작가는 미얀마 출신으로 미얀마 아웅산 장군과 함께 독립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펼쳤던 열사다.

평화 부분에는 김성수 성공회 주교, 페툴라 귤렌 운동가, 세계불교도우의회(WFB)가 선정됐다.

김성수 성공회 주교는 30년을 넘게 사회복지와 장애인 복지 등에 나선 이로 은퇴 후에도 정신지체장애인 재활시설 '우리마을'에서 촌장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페툴라 귤렌 운동가는 터키의 교육운동가 및 평화운동가로서 9 · 11테러 이후 이슬람과 비이슬람의 대화를 주도하는 이다.

세계불교도우의회(WFB)는 남방불교, 대승불교, 금강불교 등으로 세분화된 불교를 하나로 모으는 유일한 불교도 단체로 매회기 마다 세계평화를 위한 불자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담당한 점이 인정받았다.

문예 부분에는 안숙선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를 비롯해 잉고 슐체 소설가, 콘스탄틴 케드로프 시인이 선정됐다.

안숙선 교수는 맥이 끊기다 시피한 판소리를 잇는 이로 중요무형문화재 23호 가야금 병창 기능보유자다. 남원에서 태어나 1979년 국립창극단에 들어간 안숙선 교수는 1986년부터 199년 국립극장에서 판소리를 완창하며 대중들에게 판소리를 널리 알리기도 했다.

잉고 슐체 소설사는 동독과 서독 분단 당시 인간과 사회 문제를 살핀 부분을 진단한 소설가로 20세기 독일문학을 대표하는 이다.

콘스탄틴 케드로프는 현대 러시아를 대표하는 시인이자 철학가로 2003년 노벨문학상 후보자로 오르기도 했다. 그는 시를 통해 러시아 냉전시대와 그 이후 전체주의 체제를 비판해 KGB로부터 고문과 박해를 받기도 했다.

한편 2013년 만해대상 시상식은 8월 11일 인제 실내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和而不同' 화두로 국민에게 봉사하라"

국회 정각회 신년 조찬 법회

불자 국회의원 신행 모임인 국회 정각회(회장 정갑윤)은 3월 5일 국회 본관 3층에서 신년 조찬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기획실장 주경 스님, 국회 정각회 의원 회원,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백여 명이 참석했다.

자승 스님은 이날 불자 국회의원들에게 '화이부동(和而不同)'의 화두를 내렸다.

자승 스님은 "공존 공생, 상생 등 각계각층에서 관련된 많은 단어를 만들고 외치고 있지만 사회의 뿌리깊은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화이부동은 절충과 조화를 의미한다. 그 안에는 '서로 주고 받음'이 있다.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어떻게 상생하고 무엇을 주고 받을 수 있을지 여러분이 고민해보라"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 '일백개 천의 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짠맛으로 하나가 된다'고 했다. 이것이 국민 통합의 방법이다"라며 "넓은 바다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정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정각회는 3월 5일 국회 본관 3층에서 자승 스님 초청 신년 조찬 법회를 봉행했다.

이에 앞서 정갑윤 국회 정각회장(새누리당)은 인사말에서 "진영과 정쟁을 넘어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불자 국회의원들이 모였다"며 "보살의 자비정신으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강창일 정각회 부회장(민주당)은 발원문 낭독에 앞서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상황에 대해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강 부회장은 "모든 사부대중의 염원인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됐다. 올 상반기 경에는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승가대학 동영상 강좌 조계종단 스님에 공개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2013년 1학기 승가대학의 학인 스님 교육용으로 제작한 이러닝(e-learning) 동영상 강좌를 종단 모든 스님에게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강좌는 총8개 강좌로 △세계종교의 이해 △불교문화유산의 이해 △반야 · 중관사상 △포교방법론 △불교와 사회 △불교와 동서철학 △산스끄리뜨어 △빠알리어 등이다.

주요 강사로는 성해영 서울대 인문학연구소 교수, 김성철 동국대 교수, 동양철학자 강신주 씨,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 법장사 퇴휴 스님 등이 참여했으며 새로 추가된 산스끄리뜨어와 빨리어에는 백도수 박사와 선일스님(인도 뿌네대학 박사)이 각각 강의를 맡았다.

수강을 원하는 스님은 교육원에 전화로 문의해 아이디 발급 절차를 거친 후 조계종 디지털대학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강의 교재도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02)2011-1817 신중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古佛叢林白羊寺

승가대학(강원) 신·편입생 모집

고불총림 백양사승가대학은 조선후기 불교법맥을 이어 환응탄영, 석전영호, 만암종헌, 석산상현, 원조각성, 동성혜권스님 그리고 지금의 강주스님에 이르기까지 기라성 같은 강백들께서 강맥을 지켜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속에 백양사 강원은 체계적인 강원운영과 다양한 특강으로 견문의 다양화를 실현하고, 미래사회 종교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외전으로 4년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를 이수하고 있습니다. 백양사 강원에서는 새로운 도약과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갈 학인스님들의 입방을 공고하오니 큰 원력을 세우신 학인스님들은 반드시 입방하시길 기원합니다.

■ 모집학년 _ 치문 / 사집 / 사교
■ 모집기간 _ 불기2557년(2013년) **3월 25일(月)까지**
■ 제출서류 _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은사스님 추천서 1부
· 건강진단서(종합병원) 1부
· 주민등록증 양면 사본 1부
· 승려증(행자교육필증,수계증명서) 사본 1부
· 사진(가사만의, 2×3규격) 4매
■ 준 비 물 _ 대가사 / 만의(사미) / 장삼 / 발우
■ 전 형 _ 서류심사 / 면접
■ 원서교부 및 접수 _ 승가대학 061)392-7324, 종무소 061)392-7502

※입학 편입생 전원 사회복지학과 수강시 학비전액 지원합니다※

고불총림 백양사 승가대학장

백양율원생 모집요강

고불총림 백양율원은 조선시대 대은, 금담, 초의스님을 비롯해 근대 만암, 서옹스님에 이르는 계율정신으로 율맥이 깃든 청류암에서 30년간 백양강원을 주석한 율주 동성혜권스님의 고경조심(古鏡照心), 소욕지족(少欲知足), 지계청정(持戒淸淨)의 원훈아래 부처님의 지고지순한 행과 불법을 널리 선양, 계율연구에 매진하며 고불율맥을 계승할 율원생을 모집합니다.

• 응시자격 : 기본교육 졸업자 및 예정자로서 자격이 인정되는 비구
• 모집기간 : 불기2557년(2013년) **3월 25일(月)까지**
• 모집인원 : ○○名
• 교 과 목 : 사분율, 비니관요, 범망경 외
• 제출서류 :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기본 교육기관 졸업(예정)증서 1부
• 승려증 사본 1부
• 사진(반명함) 2매
• 원서교부 및 접수 : 백양사 백양율원(청류암)
☎ (061)392-7506

※입학 편입생 전원 사회복지학과 수강시 학비전액 지원합니다※



고불총림 백양사 백양율원장

신입 종무원들, '불교 기본'을 배우다

조계종 총무원, 제1기 종무행정학교 문 열어

2년 미만의 초급 종무원들에게 전문적 종무 행정과 사찰 문화, 종단사 등 기본적 소양을 교육하는 종무행정학교가 문을 열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3월 6일부터 9일까지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종무행정학교 제1기 기본소양과정을 개원했다.

합리적 사찰 운영을 위한 종무원 양성을 위한 종무행정학교는 불교적 소양과 종무 역량을 함께 갖춘 종무원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번에는 예비와 2년 미만의 신입 종무원들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이번 종무행정학교에는 예비 종무원들이 30명이 신청해 높은 호응을 보였고, 이중 10명의 인원을 선별해 총 54명의 예비·신입 종무원들이 과정에 참가했다.

6일 열린 입재식에서 총무부장 지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무행정학교 제1기가 시작한 오늘은 종단 역사에서 중요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더 깊은 논의와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하지만 하루 빨리 시행돼야 한다는 시기적 절박함이 있어 오늘 먼저 첫 발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종무원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면서 종단 사회의 위기를 가장 먼저 느끼고 포착하는 첨병이자 실질적으로 한국불교와 종단을 유지해주는 기둥"이라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종무원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새롭게 힘과 지혜를 얻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입재식 이후에는 교육부장 법인 스님의 법문이 이어졌다. 법인 스님은 '종무원, 일과 수행'이라는 주제의 법문을 통해 예비·신입 종무원들에게 종무원으로서의

3월 6~9일 전통불교문화원서
종무 실무·종단 역사 등 강의
예비 종무원 10명 참석 '눈길'
"사찰 사무장이 불교의 얼굴"

일과 불자로서의 수행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생각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법인 스님은 법문에서 "나는 조계종 종헌 종법을 기반으로 교육 행정 체계를 만들어 가는 수행자"이라며 "종무 행정과 수행을 둘로 나눠 생각한다면 이는 신입 종무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루 8시간에 달하는 업무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이다. 직업과 삶의 의미, 수행을 나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조계종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3월 6일부터 9일까지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열린 제1기 종무행정학교 기본소양과정에서 '종무원, 일과 수행'을 주제로 법문을 했다.

종단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종무행정학교 참석한 예비·신입 종무원들의 호응도 높았다. 동국대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총무원 문화부 파트타임 직원으로 일한 바 있는 김도원(26) 씨는 "기본적으로 불자이고 문화부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전공을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됐다"며 "평소 문화재 전문 종무원으로 일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가졌던 만큼 이번 종무행정학교가 종무원으로서 나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소 불교 종무에 관심이 많아 사찰 종무원이 되고 싶어 지원했다는 고선자(54) 씨는 "일반인이 처음 사찰에서 와서 만나는 사람이 사찰 사무장이나 종무원인 만큼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들은 체계적인 이론을 통해 불교를 일반인에게 친절하게 알려야 한다. 이 같은 교육은 향후 올바른 태도를 가진 종무원을 양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총무원은 종무행정학교 기본소양을 이수한 예비 종무원들에 대해 임용에 있어 가산점을 부과하고, 일선 사찰과의 연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통일된 교재와 강사 섭외 등 세부적 부분도 보완해 상설화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일 조계종 총무차장은 "장기적으로 종무행정학교는 상설화가 필요하다"며 "종무행정학교 상설화는 종무원 고용체계 확립과 종무원 배출, 배치와 순환이라는 구조를 확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주 태화산= 신중일 기자



대행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큰 일꾼이 돼 주십시오"

한마음선원, 인재장학금 전달…42명 1억 3천만원 지원

한마음선원 대행장학회(이사장 혜수)는 3월 3일 한마음선원 본원 법당에서 '제8회 대행 장학 증서 수여식'을 봉행했다. 장학금 수혜자는 42명으로 총 1억 3850만원이 지급됐다.

인재장학생으로 선정된 김원성 학생(카네기멜론대 3학년)은 학비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 대행장학생으로 선정된 윤홍선(동국대 3학년)외 8명, 한마음장학생으로 선정된 나태형(세종대 3학년)외 7명과 구지윤(선일여고 3학년)외 15명이 2~3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또 이번 전달식에서는 경인교대의 불심이 돈독한 우수학생 9명에게도 전달됐다.

대행장학회는 대행 스님이 "이 세상에 큰 일꾼이 될 꿈나무들에게 좋은 거름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주라"며 2004년 설립한 단체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여러분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검증된 우수한 학생인 만큼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마음으로 전달하는 큰스님과 여러 후원자분들의 뜻을 받아 학문뿐 아니라 정신세계에서도 우수한 참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나은 기자

"의현 스님 청구, 종단 정통성 부정"

조계종 중앙종회, 연석회의 열고 입장 정리

의현 스님의 청구를 다루기 위해 종헌 위배 결정을 한 법규위원회에 대해 중앙종회가 비판입장을 정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은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고 "종헌 위배 결정을 한 법규위원회가 종헌의 삼권분립 취지를 위반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종회의원 스님들은 "의현 스님이 법규위에 심판을 청구한 내용은 종단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법규위에 이 같은 내용의 심판을 청구한 것도 모순이며 다룰 사항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앙종회는 3월19일 제193회 임시회 개회 전 의장단이 법규위원장 허운 스님을 만나 법규위 결정에 대한 중앙종회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또 법규위 위헌 결정에 대한 이유를 듣고 중앙종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것을 결정했다.

신중일 기자

"生과 死 없음을 알려주신 분"

법정 스님 3주기 추모법회 및 진영봉안식 봉행

법정 스님의 입적 3주기를 맞아 추모법회와 진영 봉안식이 3월 7일 길상사에서 열렸다.

11시부터 열린 추모법회에서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실천해야 참 법정 스님의 모습을 알 수 있다"며 짧은 법문을 전했다.

광주 무각사 주지이자 초대 길상사 주지인 청학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마지막에 병원에 계실 때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심정을 물으니 생과 사가 본래 없다고 대답하셨다"며 "그 말씀이 나를 뒤돌아보게 하는 크나큰 말씀이셨다"고 전했다.

추모 법회가 끝난 후 법정 스님의 영정 봉안식이 진영각에서 열렸다. 이곳에는 스님 영정 과 함께 유품 40여점이 전시됐다. 또한 3월 10일에는 박창근 밴드를 초청 3주년 추모음악회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개최했다.

글=정혜숙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3월 7일 길상사에서 열린 법정 스님 3주기 추모법회와 진영 봉안식에 참석한 불자가 진영을 참배하고 있다.

나눔의 집 할머니들, 日밴드 고소

'매춘부·죽어라' 동영상 유포 명예훼손 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매춘부' 등 입에 담기 힘든 표현으로 모독한 일본 록밴드를 피해자 할머니들이 검찰에 고소했다.

'위안부' 피해자 복지시설인 나눔의 집(소장 안신권)은 일본 록밴드 앵란무류(櫻亂舞流)에 대한 피해자 8명 명의의 고소장을 3월 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소장에 적힌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협박 등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일본 록밴드 앵란무류는 유투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공공연하게 '매춘부'라고 부르면서 '죽여라'고 비방함으로써 명예훼손한 혐의다. 또한 앵란무류는 일본 도쿄에서 나눔의 집으로 2월 28일보낸 CD와 A4용지에 '매춘부 할망구들' '죽여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이나은 기자

관련 칼럼 31면

쌍계사 율학승가대 학원 설립 인가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주지 성조)에서 신청한 '쌍계율학승가대학원' 설립이 인가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은 3월 7일 제132차 교육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인가된 '쌍계율학승가대학원'은 종단의 승가대학원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경분별' '범망경 및 대승계경 강독' '불교윤리학' '작법(수계의식)' 등 교과목을 편성했으며, 쌍계사 내 암자인 '국사암'을 율학승가대학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주지 성조 스님은 "율장 수학을 통해 승가의 기본질서와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신중일 기자

참선 지혜의 체험 – 할인선원 금강단식
3,6일간의 깨달음
왜 참선인가? 참선인가? 참선인가?
몸과 마음.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한번 해보자!
불법 중에 가장 뛰어난 법이라는데 정말 그랬는가?
화두참선 다시 해보자! 뭐가 달라 지는가?
금강단식: 면역성 피부미용 아토피 금연금주즉각해결 고혈압 당뇨 성인병 정신 우울증예방치유 다이어트1일최고3kg 한달25kg
수련회 6일 3월 22일(금) ~ 27일 4월 19일(금) ~ 24일 5월 3일(금) ~ 8일
선 회 3일 3월 22일(금) ~ 24일 4월 19일(금) ~ 21일 5월 3일(금) ~ 5일
제주원명선원 중앙선방 단기출가 30일 50일 100일
행복제작소 활 인 선 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비봉산
☎ 1644-5266 / 070-7519-9929
자세한 내용은 www.hwalin.net 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제 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을 축하합니다


계율청정종단 불교조계종
1259개 사찰 주지스님과 전국 257만 불자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국정비전에 맞춰
국민대통합과 민생대통령님의 공약을 환영합니다.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 인
종도일동

일 주 문



제2회 법화산림대법회 입재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3월 19일 제2회 법화산림대법회를 입재한다. (053)982-0101



군종교구 예비군승 입대전 교육

조계종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은 3월 19~25일 전국 해·공군법당에서 입대 전교육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29일 호국 원광사에서 회향한다.



호국연무사 수계법회 진행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3월 30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수계법사로 법회를 진행한다.



일본 사이타마대 학술교류협정 체결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3월 6일 사이타마 대학 카미이 요시히코(上井 喜彦) 총장과 양 교간 상호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자비실천이 지역 포교의 첫걸음"

자비실천 진행하는 강남사암연합회 회장 정우 스님



3월 9일 송파구에 자비의 쌀 전달
순차적으로 소외계층 돕기 나서
아동돕기 등 다양한 지원사업 결의

"강남지역 불자들의 힘을 모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나서겠습니다."

지난해 2월 16일 강남지역불자대법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강남지역사암연합회(회장 정우, 구룡사 회주)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자비나눔 실천 일환으로 지역 저소득계층 돕기에 나섰다.

강남지역사암연합회 송파지역 불광사와 법계사 등 소속 관계자들은 3월 9일 송파구청(구청장 박춘희)을 찾아 자비의쌀 2000kg과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지난해 강남지역불자대법회에서 5000만원을 불교계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하기도 한 자비강남지역사암연합회는 2013년 초 자비실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각 사찰에서 자비의쌀과 성금 모금을 진행해왔다. 이날 송파구청 전달을 시작으로 강남·서초 등에서 순차적으로 자비실천은 진행된다.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구에 자리하고 있는 조계종 소속 사찰은 총 35곳.

강남지역사암연합회 회장 정우 스님은 "이제는 불교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살기를 고민해야할 시점"이라며 "강남 지역 사찰들의 역량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우 스님은 "지역 사회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자비의 손길을 전하는 일에 힘을 모으자는데 이견이 없다"며 이번 자비실천의 의미를 밝혔다.

향후 강남지역사암연합회는 제3세계돕기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사업과 함께 지역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저소득계층돕기 등에도 보다 활발히 나설 계획이다.

"지역 포교와 나눔활동 뿐만 아니라 강남지역 사찰 스님과 종무원들이 실무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는 정우 스님은 "강남지역사암연합회 소속 사찰들이 서로 연대를 강화해 지역 불교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구 보광원 조실 학명 스님 입적



대구 보광원 조실 화산당 학명 대종사가 3월 6일 오후 3시 보광원에서 세수 95세, 법납 83세를 일기로 입적했다. 영결식은 3월 10일 10시 보광원에서 봉행되었고 다비식은 같은 날 통도사 연화대에서 엄수했다. 1919년 경남 양산에서 출생한 화산 스님은 통도사에서 몽초스님을 계사로 1930년에 사미계를, 1939년에 비구계를 각각 수지한 뒤 통도사 강원 강주를 역임했다. 특히 스님은 백범 김구 선생과 함께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만해 한용운 스님과 불교혁신 운동을 전개하면서 우리시대의 선지식으로 추앙받아 왔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일보일배



제44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에 입교한 행자들이 3월 6일 제8교구 본사 직지사 대웅전 앞에서 직지사 주지 흥선스님의 훈시와 함께 일보일배 정진을 하며 절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다.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은 일보일배를 마친 행자들에게 절과 절을 하는 의미 에 대하여 "나를 겸손하게하고 상대방을 공경하는 마음이 하심"이라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불교조계종 대학림 중심으로 교육



불교조계종(총무원장 혜인)이 대학림을 중심으로 수행에 중점을 두고 교육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인 스님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승가교육은 종단의 미래이자 현재와 미래불교를 이끄는 토대"라며 "불교조계종 대학림을 중심으로 승가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네팔한인회장에 영봉 스님



히말라야 일대에서 26년째 수행생활을 하고 있는 영봉 스님이 제6대 재네팔한인회장으로 선출됐다.

2012년 12월 8일 회장에 취임한 영봉 스님은 안나푸르나 4봉을 오른 경험으로 현지인과 산악인을 대상으로 포교를 진행 중이다. 스님은 카트만두에서 한국어 학당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영봉 스님은 1984년 비구계를 받았으며 선방에서 좌선을 하던 중 '수행자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 얻어먹을 순 없다'는 생각에 1988년 선방을 나와 인도, 러시아, 일본 등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행선을 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임명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에 돈관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돈관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자승 스님은 임명장 수여 직후 "은해사가 지역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크다"며 "앞으로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돈관 스님은 "문도화합을 통해 한국불교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돈관 스님은 일타 스님을 은사로 1978년 10월 15일 해인사에서 일타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79년 3월 15일 송광사에서 구산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하양포교당, 환성사 주지, 제14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은해사 주지와 학교법인 동곡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신중일 기자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 발표

시인 노향림 외 4명…4월 27일 시상식



노향림



정수자



김인숙



이승훈

제18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로 노향림 시인, 시조 정수자 작가, 소설 김인숙 작가, 평론 이승훈 씨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은 시 부문에는 노향림 '풀꽃들의 망명' 외 4편이, 시조는 정수자의 '노숙 화석' 외 4편, 소설부문은 김인숙의 '빈집', 평론부문은 이승훈 '금강경과 만나다' 등으로 각각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제18회 현대불교문학상 심사는 이근배(심사위원장·예술원 회원) 이가림(시인·인하대 명예교수) 최동호(문학평론가·고려대 교수) 이숭원(문학평론가·서울여대 교수) 이지엽(시조시인·경기대 교수) 홍성란(시조시인) 박수완(시인·현대불교문인협회장) 문혜관(시인·불교문학 포교원장) 장영우(문학평론가·동국대 교수) 등이 맡았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각 1,000만원씩 수여되며 시상식은 4월 27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이 주최하고 현대불교문인협회와 계간 〈불교문예〉가 주관하는 현대불교문학상은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제정한 상으로, 국내에서 다년간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창작활동을 펼치는 이들에게 수여되고 있다. 중견문인을 대상으로 시·시조·소설·평론 4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정혜숙 기자

'불교박람회' 3월 7~10일 열려



불교신문과 불광출판사는 3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 SETEC에서 '2013 불교박람회'를 개최했다.

250부스 규모, 120여개 업체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전시장 제1, 2관에 걸친 다양한 업체들의 특별전시공관과 더불어 '제1회 붓다아트페어', '힐링스테이지 무대' 등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불교출판협회전, 우리스님전, 제 1회 붓다아트페어 등 보다 깊이 있게 꾸며진 특별전도 진행됐다. 신중일 기자

불국사 봉사단, 자비나눔 동참



불국사 자원봉사단은 봉사기금으로 단원들이 매달 만원씩 내서 모은 30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3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불국사 자원봉사단(단장 종상)과 자비나눔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불국사 자원봉사단 부단장 임대, 재무담당 기형, 불국사 기획국장 정문 스님이 참석했다.

이나은 기자

금정총림 범어사 선학대학원 개원
불기 2557년도 신입생 모집 공고

범어사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지와 종풍을 이어 선학(禪學)을 연찬하며, 이를 실참실수를 통해 간화선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역량을 갖춘 선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1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대학원 2년 과정

교 과 목	대승경전과 선, 능가선 연구, 조사선 연구, 간화선 연구, 선수행 지도방법론 등
교 수 사	무비, 덕민, 홍선, 인각, 지오, 수진, 월암, 수불, 용학
학제 및 시간	2년 4학기 / 주 3회, 1강좌당 3시간 수업
모집인원	가) 비구. 비구니 00명 / 나) 청신사. 청신녀 00명
응시자격	기본교육기관 졸업 불교전문교육기관(전문교육 이수) 졸업
제출서류	입학원서(본대학원 소정양식) ····· 1부 수행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 ····· 1부 기본교육기관 또는 불교전문교육기관졸업증명서 ····· 1부 반명함판 사진(3×4) ····· 3매
원서교부	범어사 선학대학원, 범어사종무소, 범어사 홈페이지(www.beomeo.kr)
원서접수	범어사 선학대학원, 범어사 종무소
접수기간	2013년 3월 12일(화) ~ 3월 20일(수) (음력 2월 1일 ~ 9일)
전형방법	사정위원회의 서류심사, 면접
면접일시	2013년 3월 27일(수) (음력 2월 16일)
문 의	범어사 선학대학원 ☎ 051)866-727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91-1 범어사 종무소 ☎ 051)508-3122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梵魚寺 선학대학원 원장 무비



(사)하얀코끼리 봉사단 30여 명은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미얀마를 방문해 교육지원 사업을 펼쳤다. 사진은 바고 불교학교 페인트 봉사에 참여한 영배 스님과 탤런트 한혜숙 씨



BG학교 학생들이 하얀코끼리 봉사단을 맞고 있다.



미얀마 방문 학교 중 가장 형편이 어려웠던 만달레이 학교 학생들과 하얀코끼리 봉사단원들.

글로벌 행복 나눔… '세계일화' 가꾼다

(사)하얀코끼리 미얀마서 교육지원 사업 펼쳐

불교 국제구호 NGO (사)하얀코끼리(이사장 영담 스님)가 2013년 공식 활동에 들어가면서 미얀마 각지에서 교육지원 사업을 펼쳤다. 하얀코끼리 봉사단은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7일 동안 양곤을 비롯해 만달레이 바간 등의 고아원 불교학교 등을 돌며 교육지원 및 현지 답사를 펼쳤다. 또한 수도 네피도서 아웅산 수치 여사를 면담하면서 향후 구호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하얀코끼리 운영진과 실무진들로 구성된 봉사단의 공식 일정은 2월 27일 양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미얀마 민족민주동맹(NLD) 청년조직 블러드 그룹(Blood Group)이 지원하는 양곤 고아원은 200여 학생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NLD-BG는 △응급환자 혈액지원 △아동을 위한 인성 및 일반지식 증진 △아동을 위한 미래지도자 양성 교육 △빈곤 실업문제 해결 △재난 대응 등을 목표로 하는 단체다.

하얀코끼리는 NLD-BG가 운영하는 고아원을 방문 학생들의 환영을 받았다. 특히 이번 봉사단 홍보대사로 참여한 탤런트 한혜숙 씨는 미얀마 유력 주간지 '7DAY NEWS'에서 인터뷰를 하는 등 현지인들의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 미얀마 방송 4사에는 현재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씨가 출연한 드라마가 인기를 모으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주목을 받았다.

한 씨는 지난 1월 중순 연골 파열로 오른쪽 무릎이 아픈 상태에서 봉사단 홍보대사로 참여해 최선의 활동을 펼쳤다. 그는 "이곳 경제 사정이 1950~60년대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는 듯해 가슴이 아프다. 이들을 통해 내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끼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며 "몸이 아프지만 이곳 아이들의 맑은 눈빛을 보니 정신이 맑아진다. 내가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할지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고 전했다.

한 씨는 이번 봉사단 참여를 계기로 봉사하는 삶을 살 뜻을 내비쳤다. 그녀는 "지난 40년 동안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 불자로서 이 큰 사랑을 세상에 회향하고 싶다. 평소 연기자 안성기 김혜자 씨 등 봉사 많이 하는 연기자들이 존경스러웠는데 이번 미얀마 행사를 계기로 봉사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의지를 표했다.

한 씨는 이사장 영담 스님과 함께 시설을 둘러보고 학생들에게 학용품과 쌀 등을 전달해 주고 점심공양을 도왔다.

3월 2일 교육지원 사업을 펼친 두 번째 방문지 만달레이 야다나아웅미 고아원은 봉사단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잠자리도 식사도 너무나 열악한 시설에서 182명의 아이들은 외부의 도움 없이 가난을 온몸으로 겪으며 삶을 견뎌내고 있었다. 고아원 대표 메이타운따 스님은 "젖이나 우유가 없어 5세 미만의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가장 어렵다"며 "하지만 처음으로 외국의 원조를 받을 수 있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영담 스님은 "앞으로 지속적인

"받은 사랑만큼 돌려주고 싶어요"
한혜숙 씨 홍보대사 참여 '주목'
'하얀코끼리' 미얀마 교육지원 시작
지속적으로 국제 구호 실천 계획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엔지니어가 꿈인 고아원생 12살 야윈은 "한국 스님들을 처음 보는데 반갑다"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세 번째 시설 방문지는 바고의 유스 푼찬코네 파라이타 하우스로 이곳은 고아뿐만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데려다 교육을 시키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 교육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초등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교장 아신난디야 스님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 공부를 하고 싶어도 5학년 정도가 되면 돈 벌러 나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얀코끼리 봉사단은 이곳에 학용품 및 쌀과 식료품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과 함께 교실 페인트칠 봉사로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하얀코끼리 운영진 영배 스님은 "세계일화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어야 한다"며 "하얀코끼리가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봉사단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하얀코끼리 봉사단은 3월 6일 바고 고아원 일정을 마지막으로 3월 7일 귀국했다. 이사장 영담 스님은 "앞으로 미얀마를 시작으로 스리랑카 네팔 등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며 구호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시설의 건립보다는 기존 시설의 보수를 통해 지속적인 사업을 펼치는 것은 물론 미얀마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정착할 수 있는 사업도 함께 세워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스님은 "이번에 방문한 시설 중 가장 형편이 어려웠던 만달레이 고아원이 시설 보수의 첫 번째 사업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사)하얀코끼리 농협은행 301-0123-5587-31 문의전화 1899-1208

미얀마=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미얀마 현지에 귀국 노동자 위한 교육시설 만들겠다"

하얀코끼리 이사장 영담 스님, 수치 여사 방문



(사)하얀코끼리 이사장 영담 스님(사진 왼쪽)이 3월 1일 아웅산 수치 여사를 방문해 지속 가능한 미얀마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사)하얀코끼리가 2013년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이사장 영담 스님을 비롯한 운영진들이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 아웅산 수치 여사의 자택을 방문했다.

3월 1일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에 위치한 수치 여사의 자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영담 스님은 직업교육센터 등 미얀마에 지속 가능한 직업 교육 지원을 제안했다.

이번 접견에는 이사장 영담 스님을 비롯해 명신 스님(동국대 이사), 학담 스님(서울 대승사 주지), 이수덕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등 운영진들이 배석했다.

영담 스님은 수치 여사에게 "미얀마 노동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적응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싶다. 다른 곳보다는 수치 여사가 이끄는 NLD(민족민주연합)와 관련된 복지시설이면 더욱 좋을 것 같다"며 "한국에서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 정착할 수 있는 기술학교를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영담 스님은 동국대 의과대학을 통해 미얀마 병원에 의료기기나 약을 지원하는 사업과 고아원 보수 보육 교육개선사업을 하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수치 여사는 "서울에서 돌아오는 노동자들과 상의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1월 한국을 방문한 소감에 대해 수치 여사는 "아주 좋았고 행복했다. 서울은 매우 인상 깊었다. 광주에서는 시민들이 따뜻하게 맞이해줬다. 스페셜 올림픽이 열린 평창도 좋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도 당부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수치 여사는 "전 세계에서 여성들이 해야 할 역할이 많지만, 특히 아시아에서 정치 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많다"며 "하지만 모든 것은 국민에게 달려있다. 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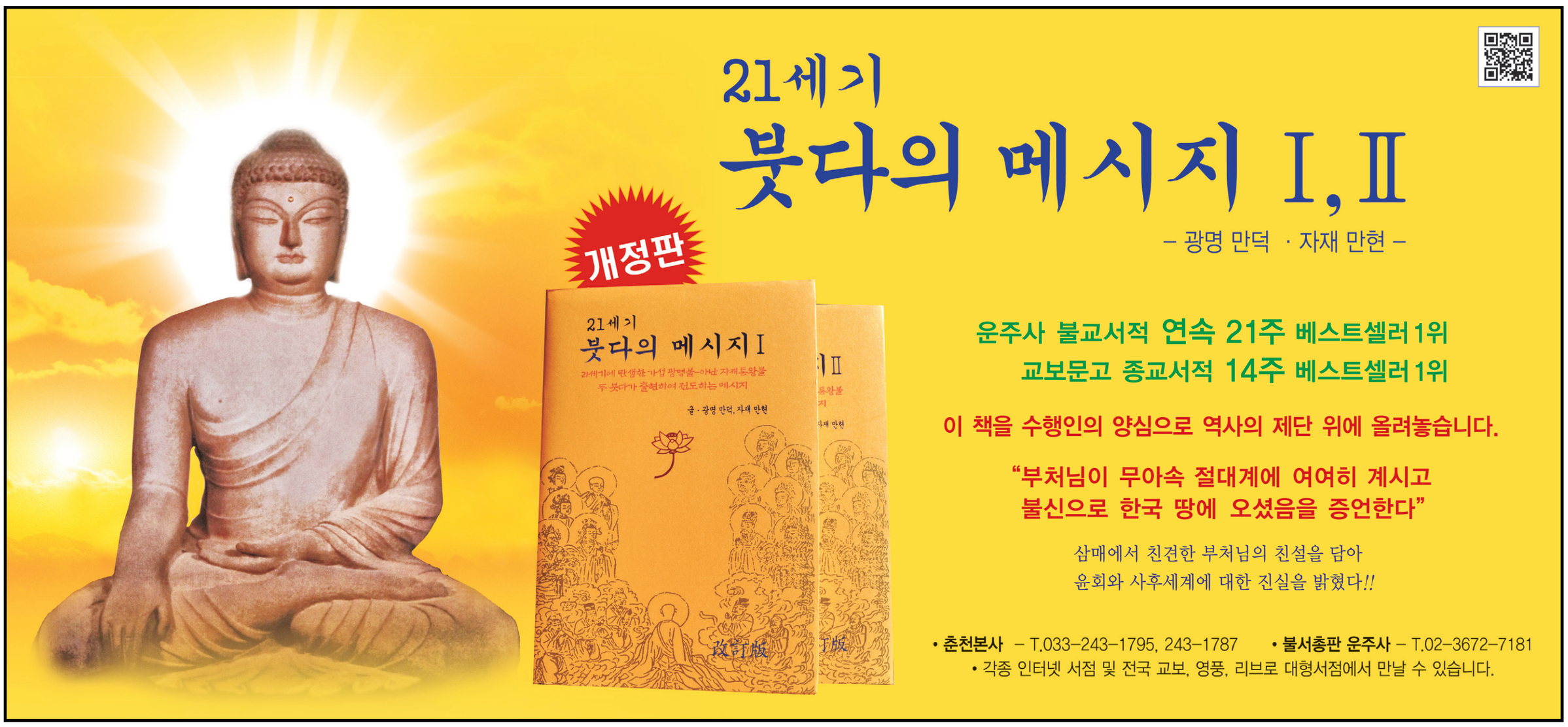
지속 가능한 지원방안 제안
교육 및 의료 후원 약속
수치 여사도 긍정적 반응

구 한사람, 리더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명의 개인 또는 대통령 한사람에게 무엇을 바라기 보다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비달마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는 수치 여사는 세계 평화를 위해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수치 여사는 "평화는 단지 지도자나 정부에 기대해서만은 안 된다. 인내와 노력을 통해서만 평화를 얻을 수 있다. 평화는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부처님 출가·열반 새기며 수행정진 하세요

3월 19~26일
전국서 출가·열반 정진 실천


출가·열반절을 맞아 수행정진을 하고 있는 불자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포교원, 승보공양·수행정진 독려
봉은사, 부처님 생애 독송 수행
성주사, 법사 스님 8명 초청법문
홍법사, 합동수계의식 봉행

음력 2월 8일과 15일은 불자들에게 뜻 깊은 날이다. 8일은 부처님이 왕좌를 버리고 출가(出家)의 원력을 실천으로 옮긴 출가재일이며 15일은 중생구제에 원력을 다한 부처님이 사바세계와 인연을 놓은 열반재일이다.

불자들은 이 8일 동안 큰 명절로 기리면서 출가열반 특별정진을 한다.

올해의 출가·열반절은 3월 19일부터 26일까지다. 이 기간 전국 주요사찰들이 참회 정진에 들어간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출가·열반절을 맞아 '참회 발원 정진 및 범 종도 승보공양 실천운동'을 선포한다. 신도들이 올바른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참회하고 발원·정진하도록참여를 독려하고 재가자가 스님들의 출가에서 열반까지 책임지는 21세기 승보공양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포교원은 우선 3월 1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법사로 '출가·열반절 입재 및 선포법회'를 봉행한다. 이후 8일 동안 총무원, 포교원, 중앙신도회, 승려복지회 등 중앙종무기관 및 교구본사와 개별사찰들을 중심으로 108배 참회 발원 정진 법회를 통해 출가자들은 물론 불자들도 스스로 '수행'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출가·열반절동안 불자들은 매일아침 경전 독송, 입정(자비관), 서원문 작성, 공양게송 등을 실천한 뒤 출가·열반절 수행일지를 작성하게 된다.

또한 승보공양운동의 일환으로 매일 약간의 보시금을 적립해 열반절(회향법회)에 해당 사찰 주지 스님에 전달하게 된다. 승보공양금은 ARS(060-700-1077)와 CMS(신청서 작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포교원은 "재가자가 승단을 외호하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은 불가의 오랜 전통이며 스님들은 재가자들의 보시물을 통해 공동체를 유지 운영하며 수행정진과 전법교화에 전념해왔다"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큰 뜻을 되새기며 올바른 신행문화와 참되고 진실한 참회를 통한 일상적인 신앙실천에 대한 결의를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출가·열반절 정진을 실천하고 싶어도 집에서 혼자 하기 망설여진다면 주변의 사찰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 02-511-6070)은 팔상도(八相圖) 내용에 맞춰 부처님의 생애를 독송하기 쉽게 책자로 만들어 배포하고 매일 독송 수행을 진행한다.

서울 불광사(회주 지홍, 02-413-6060)는 정진기간동안 〈금강경〉〈천수경〉 독송 등 개인정진 등을 실천하며 19일 입재일과 26일 회향일에는 지홍 스님이 기념법문을 펼친다.

부산 홍법사(051-508-0345)는 '우리도 부처님같이 출가에서 열반까지'를 주제로 예참기도를 진행한다. 자비도량참법 독송과 함께 3월 23일에는 주지 심산 스님을 계사로 모시고 합동수계의식도 준비하고 있다.

창원 성주사(주지 원일, 055-262-0108)는 해마다 출가·열반절을 맞아 불교계 최고 법사스님들을 모시고 대중들의 삶을 정화시키는 '니르바나정진대법회'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108 참회기도로 시작으로 19일 흥교 스님(범어사 금강계단 전계사)의 입재법문과 함께 홍선 스님(전 중앙승가대 대학원장), 선해 스님(해인사 주지), 무상 스님(송광사 주지), 원일 스님(성주사 주지), 진우 스님(백양사 주지), 허운 스님(파계사 주지)이 8일간 감로법문을 펼친다.

양산 통도사(주지 원산, 055-382-7182)는 3월 19~26일 '우리도 부처님 같이'를 주제로 석가모니불 정근, 108배, 금강경독송, 예불 정진을 진행한다. 매일 오전 11시 통도사 설법전에서 △원산 스님이 '출가의 의미-출가'를 △도암 스님(송광사 강주)이 부처님의 계율 '오계'를 △영운 스님(통도사 교수사)이 '십선업'을 △연각 스님(통도사 교수사)이 '사성제'를 △우진 스님(서축암 감원)이 '팔정도'를 △도일 스님(송광사 율원장)이 '십이인연'을 △지안 스님(조계종 고시위원장)이 '사무량심'을 △혜남 스님(통도사 전계사)이 '열반'을 주제로 법문을 갖는다.

또한 구룡사와 여래사, 불지사를 비롯한 통도사 포교당에서는 '출가에서 열반까지 정진주간'으로 정하고 신도들과 함께 정진기도를 봉행한다. 이 기간동안 신도들은 자신이 다니는 사찰 일정에 따라 〈금강경〉 독송 및 사경기도에 동참하는 등 수행정진을 한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만해백일장 올해도 성황

제34회 전국만해백일장 개최, 대상 강예송 군


글짓기를 하고 있는 만해백일장 참가학생들(좌). 만해백일장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강예송(신도림고 3)군(우).

올해로 제34회째를 맞은 '전국만해백일장'이 전국의 청소년·일반인 등 1758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 주최로 3월 1일 동국대에서 열린 만해백일장의 시제는 '틈새' '허둥지둥' '문' '명절'이다.

만해백일장은 오전 10시부터 동국대를 찾아온 학생들이 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3·1 민족자주독립선언 94주년 기념식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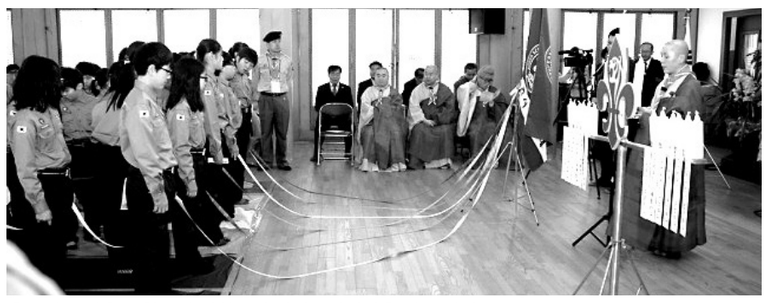
대불청 전준호 회장은 기념사에서 "우리 사회는 따뜻한 문화보다는 현란하고 자극적인 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만해 백일장의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힘으로써 우리 사회에 밝고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대불청에서 주최하는 전국만해백일장은 청소년들에게 만해 스님의 드높은 기개와 민족혼, 그리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만해백일장은 시·시조, 산문분야로 나누어 전국의 초·중·고등부 및 대학·일반부 약 1758명이 참가했다.

만해백일장 대상인 대통령상은 '틈새'를 제목으로 산문분야에 출품한 서울 신도림고 3학년 강예송군이 영예를 차지했다. 산문 고등부 장원은 박서영(문화체육부장관상), 강신영(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양이 차지했다. 이날 120여명의 참가자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희성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에서 "정형화된 글들이 많이 눈에 띄었지만, 자기만의 개성을 가지고 시제를 잘 표현한 작품들이 많았다"며 "글쓰기를 수상에만 목적을 두지 말고 꾸준히 글쓰기에 더욱 힘써주기를 부탁한다"고 격려했다. 이나은 기자


용주사 스카우트 청소년 단원들이 발대·선서식을 하고 있다.

"효(孝)와 이웃에 대한 사랑 배우길"

수원 용주사, 불교스카우트 창단

수원 용주사(주지 정호)가 불교스카우트를 창단하고 경기 남부지역 포교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용주사는 3월 2일 용주사 관음전에서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 제4884대 용주사 스카우트 창단 발대·선서식을 가졌다.

용주사 스카우트에는 주지 정호 스님이 육성단체 대표를, 용주사 포교국장 중원 스님이 단대장을 맡았다. 이날 행사에는 75명이 스카우트 선서를 하고 많은 활동을 통해 효(孝)를 배우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 자연에 대한 감사 등을 배우게 된다.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부장 송묵 스님, 함종한 한국스카우트 총재, 진정순 불교스카우트 부연맹장, 오경종 경기남부연맹 사무처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정호 스님은 "스카우트 정신을 잘 살려 부처님과 국가·타인에 대한의무를 다하라"면서 "대자연속에서서 단체활동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활기차게 생활하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기증품 경매로 소외이웃 도와

반갑다연우야, 재능나눔봉사단 '사랑재' 출범



카카오스토리로 물품을 기증하고 경매 입찰해 모금하는 사랑재가 출범했다.

스마트폰 앱인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나눔 봉사를 하는 단체가 결성됐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 반갑다연우야 봉사단은 2월 22일 중앙신도회관에서 재능나눔 봉사단인 '사랑재' 출범식을 가졌다.

반갑다연우야는 "'사랑재(단장 백동열)'는 올해 초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맺은 인연을 시작으로 소중한 분들의 마음을 모아 재능을 기부하자는 취지에서 결성됐다"며 "기증품 경매를 통해 낙찰된 금액을 전액 기부하는 나눔봉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랑재에 참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나눔을 원하는 사람이 만든 작품을 봉사단에 기증하거나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기증하는 것이다. 소장품은 조각, 그림, 글, 옷, 도예 등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모여진 기증품들은 '사랑재' 카카오스토리(아이디 sarangjae)내에서 경매에 올려 지게 되고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기증품을 보고 원하는 물건을 경매날짜에 맞추어 실시간 댓글로 입찰하면 된다. 낙찰금액은 전액 나눔 봉사에 사용된다. 현재 카카오톡에는 만년필, 수저세트, 와인 등 다양한 물품들이 경매로 올라와 진행되고 있으며 2~3월 한 달 동안 26건의 나눔 경매가 진행됐고 390여 만 원이 모금됐다. 이와 함께 사랑재는 암환자를 위한 가발 정기기증행사도 펼치고 있다. 암투병 환자의 사연을 이메일(sarangjae@naver.com) 또는 카카오톡으로 접수 받아 매월 2명씩 가발 수혜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반갑다연우야는 "재능나눔 봉사단 '사랑재'를 봉사 네트워크로 등록해 새롭게 출범하면서 그동안 주요 봉사활동으로 진행했던 무료이동진료, 소외계층 도시락 봉사 등에서 보다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해 봉사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함께 어우러져 놀면 우리는 어느새 친구

불교계 복지관 장애 · 비장애 통합프로그램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 · 비장애 청소년이 함께하는 타악 프로그램을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전국장애청소년예술제에 참가한 한소리 학생들(좌).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의 장애 · 비장애 통합자원봉사단 'WECAN' 학생들(우).

인성교육, 자신감회복에 효과

삼전, 음악활동으로 소통

철산, 봉사활동으로 공감대 형성

강북 · 영주, 통합계절학교 인기

장애 학생들은 대부분 특수학교나 복지시설에서 따로 교육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복지관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을 받고 체험하는 통합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장애 · 비장애 학생들이 놀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어 인성교육면에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동옥)은 2010년부터 장애청소년 친구들과 함께하는 타악프로그램 '한소리'를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주2회 복지관강당에 모여 타악기와 음악치료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체험한 뒤 정기적으로 한소리 오케스트라 합주공연을 연다.

일부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장애인 친구를 두고 있는 청소년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한소리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당연하게 서로를 '친구'라 부른다.

조아라 사회복지사는 "연습이 없는 날에는 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비장애 청소년들은 수학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한소리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따로 챙겨오는 다정함까지 보일 정도"라고 말했다. 또 한소리를 통해 장애청소년들은 자신감도 얻는다. 조씨는 "한 학생은 자신감도 부족하고 무엇이든 '못해요'라는 말을 먼저 했는데 요즘은 먼저 나서서 연습 전에 다른 아이들을 격려한다"고 설명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강영규)은 장애 · 비장애청소년 통합자원봉사단 'WECAN'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 창단한 WECAN은 자원봉사 욕구를 충족하고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이 함께 어울려 서로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궁극적으로는 타인에 대한 이타심을 증진시켜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목적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매월 2 · 4주 토요일에 모임을 갖고 있다.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봉사활동을 기획 · 진행한다. 주로 지역 재가어르신 및 경로당을 방문해 정서지원 및 세대 공감 활동을 하며, 지역축제 · 지역사회캠페인 등의 사회참여 활동도 진행한다. 또 봉사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과 리더십 교육에도 참가해 즐거운 모임으로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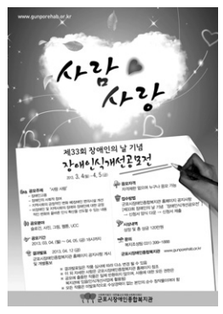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진화)은 방학마다 장애 · 비장애 통합계절학교 '친구야 놀자!'를 진행하고 있다. 초 · 중등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2주간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협동미술, 놀이활동, 레크레이션, 요리활동 등을 체험해 장애 · 비장애 학생 간 상호 지지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복지관은 "'친구야 놀자'는 개관 이래 총 29회기에 걸쳐 꾸준히 진행되는 장수 인기프로그램으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도륜)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통합계절학교를 열고 있다. 장애 · 비장애 아동 1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체험, 요리만들기, 과학실험, 영화관람, 사회적응훈련, 물놀이체험 등을 진행한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군포장애인, 장애인식공모전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용철)은 지역주민의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제33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식개선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사람사랑'으로 장애인고용, 장애인의 사회적참여,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 등 장애인 및 지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와 올바른 인식 확산을 선도할 수 있는 내용이면 된다.

공모전 접수는 오는 4월 5일까지이며 슬로건, 사진, 그림, UCC, 웹툰 등 총 5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공모전 결과는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4월 12일에 발표되며, 대상 1명을 비롯해 총 10명에게 12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시상된다. 이번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은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식개선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전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www.gunporehab. 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품과 함께 이메일, 팩스, 방문,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031)399-1888

이나은 기자

송산실버, 노인일자리사업 발대



노인일자리 선서를 하고 있는 송산실버문화센터 어르신들.

어르신 398명 일자리 파견 활동

송산실버문화센터(관장 법일)는 2월 28일 398명의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3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을 열었다.

2013년도 송산실버문화센터 노인일자리는 총 12개의 사업단으로 공익형(도서관도우미) 40명, 교육형(희망둥지사업, 생명사랑교육단, 1 · 3세대꿈나무지도자, 노-노강사 문화재해설사, 시니어기자단)192명, 복지형(주거개선사업, 복지시설도우미, 독거노인지킴이, 희망드림지원단, 너나들이실버보듬이) 166명이 의정부 지역사회 내 학교, 유치원, 복지시설 등에 파견되돼 활동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할머니한테 장담그기 배우니 신기해요

할머니 · 할아버지와 젊은이들 그리고 다문화가정과 어린이가 함께 참여해 장을 담그는 행사가 열렸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3월 5일 복지관 옥상에서 '장 담그기 사업'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정관 스님, 김영종 종로구청장을 비롯해 어르신과 장담그기를 전수받을 종로지역구민들 및 결혼 이주민 여성과 어린이 70여 명이 동참했다.

복지관 어르신들은 궁중음식 중요무형문화재 한복려씨와 함께 전국 팔도에서 만드는 장담그기 비법을 젊은 세대들에게 전수했다. 이날 담근 장은 올 하반기 종로구 어려운 이웃들과 나눌 예정이다.

글=이나은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3월 치료비 지원 선정환자

아라아나레자이(여 · 9 · 사지마비)



사지마비를 앓는 레자이(우)와 엄마(좌).

9살인 레자이는 한국인 어머니와 이란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레자이를 얻은 기쁨도 잠시, 출산하자마자 딸아이가 선천적 뇌기형으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는다.

부부는 막막했지만 딸을 보며 사랑으로 키우리라 다짐했다. 그러나 한창 자랄 나이인데도 아이의 몸은 작고 움직임이 더디기만 해 부모의 가슴에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다. 그러는 동안 딸아이에게 정을 주지 않던 남편은 결국 한국을 떠나 이란으로 돌아가 이혼을 요구했다. 어머니는 아빠 없이 키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다.

레자이는 의지대로 동작을 할 수 없어 힘들어 한다. 마비증상도 점점 심해져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이다. 어머니는 24시간 딸의 간병으로 허리디스크와 무릎관절염을 얻었다. 치료가 시급하지만 아이 간병을 맡길 사람도, 치료비도 없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아이의 치료비 · 생활비만으로도 벌써 부채가 3천만 원이나 발생했다. 가정의 수입이라곤 매월 정부보조금 80만 원이 전부다. 어머니는 향후 2000만 원이 넘는 치료비를 감당할 힘이 없어 어깨만 무거워진다.

레자이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부분발작과 발달장애 등 복합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언어 및 운동치료, 인지치료 등의 재활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수 있다. 불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예금주 생명나눔)

간단하게 터치만 하면 기부 '끝'

조계종 복지재단, 터치식 기부단말기 시범 운영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이 모금 컨텐츠인 '기부단말기 키오스크'를 3월 7~10일 열린 불교박람회에서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터치식 기부단말기 키오스크'란 공공장소에 설치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전달 시스템 및 무인 단말기로, 신용카드를 이용해 소액의 금액을 바로 후원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불교계 최초로 신용카드를 이용해 후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기부 단말기를 도입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는 한편 자비나눔의 생활화에 일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재단은 "불교박람회 기간 동안 모연된 기부금을 의료사각지대에 무방비로 죽음에 노출돼 있는 라오스 어린이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라오스 아동보건센터 건립에 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 스님이 터치식 기부단말기를 시연하고 있다.

용문선원(龍門禪院) 기공수련 안내

本 院은 中國 道家 全眞道 용문파 韓國本院입니다.
본 원은 정통 기공 수련을 통하여 신체와 정신계발을 함께 도모하는 수련을 하는 도량입니다.
수련의 기초과정은 신체의 수련과정으로서, 우리 신체의 가장 중요한 임맥과 독맥을 타통시키는 小周天 수련입니다. 이와 같은 기초 수련을 통하여 임, 독 二脈을 타통시킨 후 좌선을 한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즉, 호흡과 氣를 장악함으로써 좌선시 흔히 발생하기 쉬운 상기병을 예방할 수 있음은 물론 수련을 통하여 얻어지는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한층 더 심도있는 참선수행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본원은 오랜 기간의 수련과 준비과정을 거친 후, 이제부터는 외부로 문호를 개방하여 본 수련에 관심있는 분들과 참선수행 과정에서 상기병 등 각종 장애를 겪고 계신 인연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연있는 분들께서는 본 수련을 통하여 많은 것을 얻으시길 기도하며,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사전에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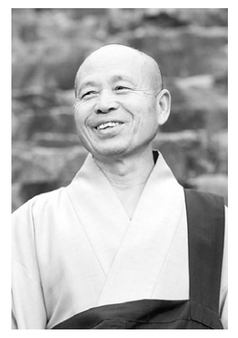
전 화 : 010-3328-3974(유재용)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1355-3 용문선원

용문선원장 유재용

통화불교 전강원

대반열반경 수강생 모집

원조 각성 강백 큰스님 직강
40권. 북량(北凉) 시대(A.D. 414~421) 번역. [역] 담무참(曇無讖)



부처님의 열반에 대해서 기록하고 여래의 법신은 상주 불변하는 것이며, 일체 모든 중생이 다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다는 대승 사상의 정수가 들어 있는 경으로서 가장 널리 읽히는 경전 중의 하나이다.

각성큰스님께서는 이번 열반경 강의가 일생 마지막 마무리 한다는 소신의 뜻이 담겨져 있어 더욱 귀한 자리입니다. 지금부터 강좌를 신청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전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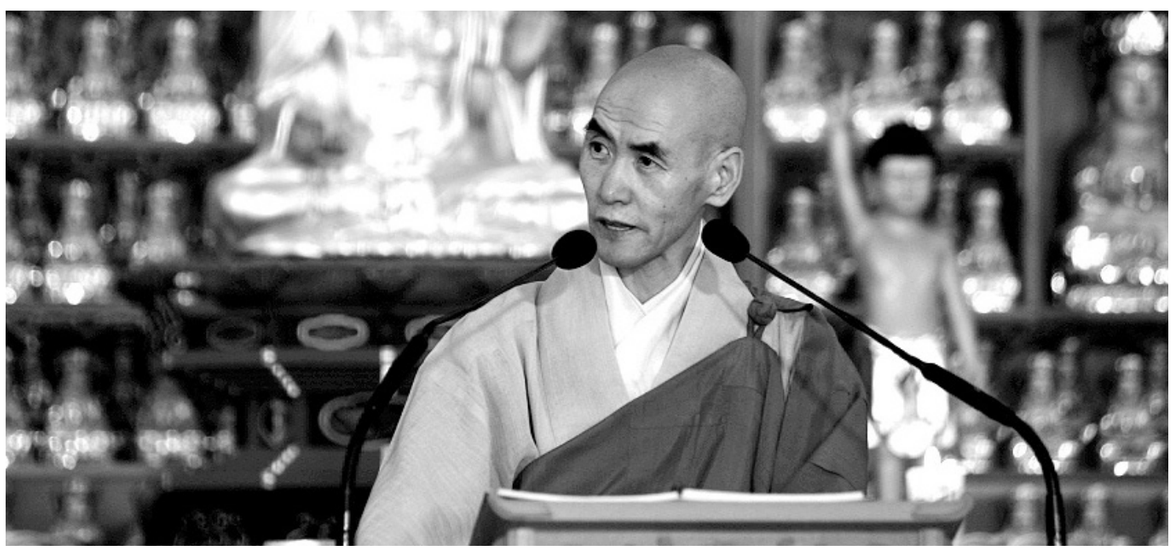
- **특 전 _ ① 통화불교 전강원 수료증 ② 전강원 연구회원 자격 부여**
- **제출서류** _ 수행이력서, 반명함판사진 1장
- **접 수 처** _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20-26번지 좋은절
- **기 간** _ 4년

강의일시 | 2013년 **3**월 **19**일(화) ~
강의시간 | 매월 첫째, 셋째주 화요일 오후 2시
강의장소 | 동국대학교 학명 세미나실
수 강 료 | 한학기 6개월 (스님 30만원, 재가자 50만원)

모 집 | 비구, 비구니, 재가자 선착순
접수기간 | 2013년 3월 11일 ~ **3**월 **19**일(화) 까지
입금계좌 | 국민은행 390401-04-043930 (예금주 : 통화불교전강원 최재동)
문 의 | 010-4242-7070(법경) 010-5497-8018(용화) 011-520-9350(도행)

주최 | 동국대학교 정각원 **주관** | 통화불교 전강원

“심신 청정이 인생의 행복”



송광사 율원장 도일 스님은 3월 3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계율에서 배우는 인생의 행복’을 주제로 선교율법회에서 법문했다. 이날 도일 스님은 도를 깨닫지 못했는데도 아라한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은 옷을 벗어야 하는 중차대한 바라이죄라며 깨끗하고 맑게 살 것을 강조했다.

정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송광사 율원장 도일 스님 (봉은사 선교율법회 법문)

도를 깨쳤다하더라도 대중에게 그 사실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도를 깨달은 사람에게 공양을 올리면 100배의 공덕이 있기 때문에 대중 100명에게 돌아갈 공양이 특정인에게 올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신에게 공양 올린다고 말하지 말고 승단에 바친다고 말한 후에 공양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이는 공익적인 면을 먼저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란 쉬운 것입니다. 땅은 단단하고 태양은 빛나고 바람은 불어오는 이치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것으로 물을 물이라 말하는 것이지 물을 H20(화학기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도를 깨달은 사람의 법문은 귀에 쏙쏙 들어오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의 법문은 어려운 이론을 끌어다 쓰기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른다하기 일수입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선종에서 진리를 설명할 때 가장 잘 설명할 때 중도, 불이법문을 얘기합니다. 진리가 뭐냐, 중도가 아니면 진리가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중도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아는 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中道)의 도리도 그렇게 보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훗날 용수보살이 〈중론(中論)〉으로 팔부중도를 설했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안가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으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을 바로하고 몸을 제대로 다스릴때 공부가 되는 것이며 그런 연후에 사성제와 팔정도 수행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생활 속에서 몸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주신 것이며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현재 불교는 이론과 실제를 구분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 것은 〈화엄경〉의 이사법문(理事法門)입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등 사(事)적으로 살아가지만 어디든 걸림 없는 이치(理)가 그 안에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그 이치가 실제 적용되어 수레의 바퀴처럼 함께 굴러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도는 자기 바로하는 것
거짓없는 청정 삶이 행복
그 행복 보시로 회향해야

최근에는 기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바람직한 기부문화는 무엇일까요. 사회적 수준이 높아지고 도덕적으로 밝아질수록 기부하는 사람이 늘어 선진국과 후진국과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보시하면 공덕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남에게 베푼다는 생각보다 내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환원하는 감사의 표시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사회와 우주의 연기법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보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회향이며 보다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인 것입니다.

커피 한잔 마시는 것을 줄이면 보시를 할 수 있습니다. 멀리 아프리카에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주변을 살펴도 실천할 것들이 많습니다.

교리를 얘기 안해도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중도법문이 생활 속에서 몸을 어떻게 다스리느냐를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수행이고 공부고 없습니다.

6년 고행 후 부처님은 몸을 완전히 망친 후 이를 설하셨습니다. 당신이 체험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중도의 시작은 몸을 바로하고 제대로 다스릴때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사성제 팔정도의 길입니다.세상을 깨끗하게 하려면 나부터 깨끗하고 맑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은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금방 탈로나기도 합니다. 자신은 남을 속인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혹여 남들이 모르더라도 자기 자신은 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바른 삶은 어디에서든지 자신을 당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지 않는 당당함과 떳떳함으로 부끄럽지 않은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도일 스님은…1973년 양산 미타암에 입산, 1975년 통도사에서 사미계를 78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도일 스님은 태국 왕립 마하출라롱콘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학 객원연구원을 역임했다. 현 조계총림 송광사 율학승가대학원 원장으로 원조 각성 스님에게 전강을 받고, 범일 보성 스님에게 전계를 받았다.

“종교평화의 첫걸음은 대화”



오강남 리지아나대 교수는 3월 6일 김영사 서울사무소에서 ‘종교너머, 아하’가 개최한 심층종교아카데미에서 ‘문젯거리가 되고 있는 종교, 도대체 뭔가? - 닫힌 종교와 열린 종교’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오강남 교수는 종교계가 열린 마음으로 사회평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강남 리지아나대 교수 (심층종교아카데미 강연)

비교종교학은 두가지를 상징합니다. 인간은 다 종교적이다. 종교가 없다는 것도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종교인 것입니다. 인간 이외에 종교가 있는 동물은 없다. 라틴어로 ‘호모 렐리지우소스’입니다.

종교학은 막스 뮬러라는 독일 사람이 정립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막스 뮬러가 동양의 종교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막스 뮬러가 한 말 중 가장 유명한 말이 ‘하나의 종교만을 아는 이는 아무 종교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괴테가 한 말입니다. 괴테는 ‘하나의 언어만을 아는 사람은 아무 언어도 모른다’는 말을 했습니다.

내 종교가 좋다는 것을 알려면 내 종교보다 좋고 나쁜 다른 종교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 종교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적어도 두 종교에 대해서는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다른 종교, 타 종교라는 말 말고 이웃종교라는 말을 씁니다.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대화입니다. 세계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종교간 평화가 중요합니다. 그 첫걸음은 종교간 대화인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 wcc(세계교회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시작한 이 단체는 2차 대전을 겪으며 의식있는 종교인들이 ‘어떻게 기독교가 중심인 유럽에서 2차대전이 일어나는가’는 생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샬롬’이 ‘평화’라는 말이고 이슬람이라는 이름 자체도 ‘평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독교도 예수님이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를 부르짖으셨습니다.

이 단체 사람들은 예수님 정신에서 우리가 화합하자고 봉사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같은 사람들도 정신이상자나 죄인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내편이냐 니편이냐 편가르기 하는 것이 모든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 것이냐 저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대는 이 것도 저 것도입니다. 이분법적 사고에서는 평화가 없습니다. 서양 사상의 대부분은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동양은 비이분법적 사고가 있습니다.

여러종교 알아야 자기종교 알아
‘편가르기’ 이분법 분쟁의 원인
“열린 사고로 세계평화 이끌자”

조로아스터교가 페르시아 종교인데 유대인들이 포로로와서 살았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풀어줬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그 무렵, 조로아스터교의 선신 악신, 천당, 지옥 등이 반영됩니다. 그 이후 유대교가 기독교, 기독교가 이슬람교 등으로 구조가 옮겨갑니다. 공산주의도 기독교의 세속적인 면을 축약해 구조에 반영했습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 고용주와 노동자 등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평화를 원한다면 비이분법적인 사고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혹여 나쁜 일을 하더라도 연민의 마음으로 감싸야 합니다.

한국에는 도법 스님이 계십니다. 도법 스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신이 간디에게 제일 영향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쌍용차 노동자 문제 해결에 앞장서 있는데 노사가 내편 니편으로 갈라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가장 강력히 한 분이 틋낫한 스님입니다. 내가 아프면 다른 이도 아프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아프다면 나도 아픈 마음이 있어야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달라이라마는 이를 ‘내적인 평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종교로 넘어가야 합니다.

서양은 이제 근본적인 배타적인 자세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더 배타적인 자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만이 진리다, 예수만이 이 세상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고 근본주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류가 당면한 문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이 생태 위기, 경제 불균형 등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열린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교세 확장의 모습을 떠나 사회 문제에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필요한 때입니다. 새로운 시대 선교, 포교는 자기 교회·절의 신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함께 이끄는 것입니다.

오강남 교수는…비교종교학계의 석학인 오강남 캐나다 리자이나대 명예교수는 서울대 종교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종교학을 공부했다. 비교종교학이라는 말조차 생소하던 1970년대 캐나다로 건너가 동서 종교와 철학에 몰두한다. 저서로 〈예수는 없다〉를 비롯해 〈세계종교 둘러보기〉 〈불교, 이웃종교로 읽다〉 등이 있다. 북미한인종교학회 회장, 미국종교학회(AAR) 한국종교분과 공동의장을 역임했다.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 59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톤대학교 최면학 교수(전)
국제 임상최면전문가(ICHT)
공인 심리상담 전문가
한국 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평생교육원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경찰관서, 기업체 등에서 최면 특강

KBS, MBC, SBS 외 각종 케이블방송에 300회 이상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 •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자신의
문제해결은 물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전생 요법 : 도데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 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령을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있는지, 원하는건 무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한다.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사주속에 숨겨진 영가보는 법과 심리적인 것 까지 읽을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된다.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개강 : 3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 CD 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가능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선화동 364-8 (명상센터 3층)
042) 255-0734~5

"경허의 무애행 논의 결말 아닌 시작"

김광식 교수 〈불교평론〉서 윤창화 대표 논문 비판 분석
홍현지 박사과정 〈대각사상〉서 경허의 상채사상 주장

지난해 가을 경허 스님의 주색(酒色)을 다룬 윤창화 민족사 대표의 논문발표 판문 이후 경허 스님의 선사상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개됐다.

한국 불교계의 지성의 장 역할을 해 온 계간지 〈불교평론〉은 최근 복간호(2013 · 봄호)를 내고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의 '경허 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란 특별기고문을 담았다.

김광식 교수는 기고문에서 윤창화 민족사 대표의 글에 대해 "경허의 행위를 주색으로 단정했을 뿐만 아니라 근현대 승려의 막행막식(幕行幕食) 연원을 경허라고 단정지은 한계가 있다"고 평했다.

또 경허 자료의 활용에서 편향적인 면이 있다고 비판하며 〈경허집〉과 〈범어사 계명암 수선사 방함 청규〉 등에서 경허 스님이 음주식육을 금한 것 등을 반박 자료로 제시했다.

김광식 교수는 "경허 스님의 행적과 발언의 불일치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가 됐어야 했다"며 "경허 스님의 계율관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식 교수는 또 윤 대표가 지적한 경허 스님의 무애행이 승려의 파계와 막행막식에 대한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이 외에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 데에는 승가의 세속화 흐름과 일본 불교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김광식 교수는 "특히 일본 불교의 영향으로 불교근대화 중 승려결혼이 보편화됐다"며 "일제하 비구승의 95%가 결혼을 하는 등 세속화 등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경허 스님이 만년인 1906년 갑자기 삼수갑산으로 종적을 감춘 것에 대해서도 "윤 대표는 '도피성 은둔' 으로 해석했지만 당시 불교계 동향, 일제 침투라는 시대상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논고에서 윤대표의 글에 반론을 제기한 '허정, 옹산, 박제현' 의 글도 비판 분석했다.

김 교수는 "경허에 대한 이해는 주로 신비적인 소문, 소설, 평전 등에 의지하고 있다"며 "그 결과 경허의 위상에 맞는 연구가 부진했고 경허에 대한 학술적인 논문이 20여 편 정도에 불과하다"고 향후 활발한 연구 및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현지 동국대 박사과정은 대각사상에 실린 '경허의 삼수갑산과 상채(償債)' 논문을 통해 경허 스님의 무애행을 상채(업이란 빚을 갚음) 입장에서 정리했다.

홍 씨는 논문에서 "경허의 기행은 파격적이었지만 처첩을 거느린 바 없었으며 주색이라 표현된 부분도 걸림 없는 수행의 일부로 일반 중생이 행한 주색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홍 씨는 경허 스님이 석왕사 개분불사를 끝으로 지취를 감춘 이후의 삼수갑산 행을 상채행(償債行)이라 칭했다.

홍 씨는 "윤 대표가 지적한 경허의 삼수갑산행은 도피행이 아니며 또 지금까지 학계에서 걸림 없는 무애행으로 표한 부분도 아니다"며 "깨친 이후 끊임없이 본인의 업장을 녹이기 위한 수행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허 스님의 선사상에 대한 다양한 학계 주장을 담은 불교평론과 대각 사상(사진 왼쪽). 경허 스님 영정 사진(사진 오른쪽)

〈불교평론〉 봄호 '불교와 계율 특집'

한편, 〈불교평론〉 복간호인 53호에는 불교 계율 성립의 배경과 한 · 중 · 일 계율 전통 등을 다룬 '불교와 계율' 이 특집으로 마련됐다.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의 '계율 성립의 배경과 전개' 를 비롯해 8편의 특집 논문이 게재됐다. 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가 쓴 '재가인의 세제불교(世諦佛教) 원리' 란 주제의 권두논단도 실렸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절터 훼손 심각함에도 관련 법령 '전무'

불교문화재연구소 조사 결과 훼손 심각 드러나

울진 정림리의 한 마을. 이 마을에서는 최근 마을 다리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예전부터 마을에 전해오던 '절골' 의 석탑 돌덩이를 가져와 시멘트와 섞어 마감했다.

영주 여륵리에서는 마을 정자인 정려각을 세우며 역시 이 자리에 있던 연꽃무늬의 방형대좌를 초석으로 사용했다.

전국 5400여 사지에서 문화재의 도난이나 훼손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각림)는 3월 5일 '한국의 사지-대구 · 경북편' 발간을 겸한 사지조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그동안 조사에서 드러난 사지 훼손 실태 및 보존정비 필요성을 밝혔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2010년 서울 · 인천 · 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2011년 광주 · 부산 · 제주 · 전남 지역에서 사지현황조사를 실시했으며 2012년에는 대구 · 경북 지역 1410여개 소 중 694개소를 조사했다.

임석규 불교문화재연구소 유적연구실장은 "2000년 전국에서 실시된 문화유적분포지도 조사 당시 현황과 비교해 사지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지와 사지 내 불교문화재 관리의 법적 조항이 없어 토지 소유주가 얼마든지 훼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의 2012년 사지조사에서 드러난 사지의 문화재 사례만도 고령 합가리사지 석불좌상 노난, 군위 나오리사지 석조여래좌상 관리부실, 영주 여륵리한절골 사지 초석 사용 등 수십 가지에 달했다.

특히 토지소유주의 무지와 고의적 훼손뿐만 아니라 방치돼 훼손된 사지들이 많았다. 가령 예천 덕봉사지의 경우 마을 내 석탑이 마을나무에 의해 기단이 파괴됐으며 산내 사지는 산사태 등으로 석축 등 유구가 결실된 상태였다.

문제는 문화재 인근 사지에 대한 관련법령 및 보존계획이 없어 문화재로 지정되더라도 이후에 유실되거나 주변이 농경지로 바뀐 곳들이 많다는 것.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12호인 광주신룡동오층석탑의 경우 석탑을 제외한 인근이 축사로 개발된 상태였다.

사지 및 매장문화재의 근거자료인 2010년 문화재청의 문화유적분포지도도 실제 사지 정보와 다른 내용이 많아 종합보존계획의 필요성이 더욱 드러났다. 불교문화재연구소의 2012년 대구경북지역 조사에 따르면 문화유적분포지도를 기반으로 조사된 사지 694개 소 중 153개소의 주소가 잘못됐으며 37개소의 GPS 등 위치가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지를 지금 그대로 방치할 시 부정확한 기록 등으로 인해 그 흔적을 찾기란 더욱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사지조사결과를 기록하는 한편 2010년 12곳, 2011년 13곳, 2012년 15곳 등 조사를 통해 비지정문화재 등 정비가치가 높은 사지를 선정하고 보존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올해부터 지원하는 발굴 및 정비 관련 예산은 1~2개소 정비 예산인 2억 원에 불과한 상황.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이른 시일 내에 주요사지 보존 · 정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우선 사지를 정하고 보존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석규 실장은 "우선순위의 사지 외에도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있는 곳이 상당하다"며 "이런 사지의 문화재와 기록을 모을 수 있는 사지정보관 내지 박물관 건립 등을 담은 종합보존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군위 나오리사지의 잘못 복원된 석조여래입상(위)과 마을 건물에 사용된 전남 함평 해보리사지의 석자재 (아래)

학술 · 문화재소식

고종손녀, 혜문 스님과 조선제왕투구 환수

이해경 여사 3월 1일 아베총리에게 반환 촉구

'조선의 마지막 공주' 이해경 여사(83)와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혜문 스님은 3월 1일 도쿄국립박물관에 '보관 중인 조선제왕의 투구와 갑옷을 반환하라' 는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 제니야 마사미(?谷 ?美) 도쿄국립박물관장 등에게 전달됐다.

혜문 스님은 3월 1일 뉴욕에 위치한 NY독서갤러리에서 "한일협정으로 정부가 공식적인 대응이 어려운 만큼 고종황제의 것으로 추정되는 투구와 갑옷을 '대한제국 황손' 들이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혜문 스님은 "삼일절은 고종황제의 갑작스런 승하에 온 민족이 비분강개해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킨 날로 황실의 후손들이 환수운동에 나선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혜문 스님은 "대한제국 황사손 이원 대한황실문화원 총재가 투구와 갑옷의 존재를 직접 확인했고 황실호적에 입적된 고종황제의 손녀 이해경 여사가 반환을 요구하는 만큼 환수운동이 본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한에서 이해경 여사는 "이번에 확인된 투구와 갑옷은 조선 최고의 군통수권자인 '조선대원수(朝鮮大元帥)' 의 것"이라며 "한일양국의 우호선린을 위해 '조선제왕의 투구와 갑옷' 을 원산국으로 하루속히 돌려줄 것"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대각사상硏, 〈대각사상〉 제18집 발간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은 최근 〈대각사상〉 제18집을 발간했다.

'용성 스님의 한글 〈화엄경〉과 화엄사' 를 주제로 발간된 이번 18집에는 △동국대 교수 도업 스님의 '화엄사상-법신사상'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의 '백용성 스님 국역 〈조선글 화엄경〉 연구' △신규탁 연세대 교수의 '한국불교에서 〈화엄경〉의 위상과 한글 번역'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의 '근현대 화엄사의 사격과 진진응 · 이동헌' △중앙승가대 교수 종석 스님의 '구도자, 도광 스님 연구' 등이 게재됐다.

또 기고논문으로는 △황인규 동국대 교수의 '불교계 고승과 국도 천도' △홍현지 동국대 박사과정의 '경허의 삼수갑산과 상채(償債)' △김종인 경희대 연구교수의 '1920~1930년대 불교계의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 △하와이마노아대 성원 스님의 '김일타, 비구승단의 복원, 그리고 현 조계종 실천규범의 체계화' △심상현 동방대학원대 교수의 '계청의 구성과 번역에 관한 연구' △송명호 중부대 외래교수의 '태극기문화재 활용방안' △이재수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의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의 방향' 등이 수록됐다. (02)581-3138

노덕현 기자

보조사상硏, '조선 불교사 재조명' 월례 발표회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3월16일 오후 2시 서울 법련사 문화강당 2층에서 102차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조선시대 불교사의 재조명' 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조선시대 승려 천인신분설의 재검토(손성필 · 고전번역원) △1652년 관부문서(官府文書)를 통해 본 효종대 불교정책 연구(이종수 · 불교학술원) △조선후기 중국 불서의 유입과 사상적 영향(김용태 · 동국대 불교학술원) 등 논문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한국정토학회, 〈정토학연구〉 제18집 펴내

한국정토학회(회장 성운)는 최근 '정토학연구' 제18집을 펴냈다. 제18집에는 청화사상연구소가 1월 초 개최한 세미나 기조강연 논문인 보광 스님의 '순선시대 염불선에 대한 몇 가지 문제' 가 실렸다.

이밖에 △달마어록에 나타난 염불선(조준호) △원통불법의 기반으로서 도신의 염불선(최동순) △관음신앙의 중국적 변용과 그 문화적 특징(차차석) △현행 수륙재의 몇 가지 문제(이성운) △일응 스님의 범패의 융합적 세계(윤소희) △일응 스님의 운심게작법에 내재된 미의식(고경희, 최영란) △정토교의 임종론 고찰(원영상) 등 논문이 게재됐다.

노덕현 기자

(사)대한불교 종단 총연합회

2013 계사년 부처님 출가재일기념 연합대법회

삼보전에 지심정례 하옵고!!

회원 종단의 무궁한 발전과 각 종단 대표자 큰스님들의 옥체 건안하심을 부처님전에 발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지난 1월 16일 신년하례법회에서 결정한 신년 연합법회를 부처님 출가재일인 3월 19일(음 2월 8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연합법회를 원만하게 개최하기위하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목적 : 부처님 출가재일은 우리 불교 4대 명절 중 탄신일이나 성도재일, 열반재일에 앞서 불교를 우리 곁에 있게한 첫 번째 동기의 근간이며 부처님의 기본사상을 세운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출가재일의 조명을 위한 포교활동은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본 연합회에서는 부처인의 출가사상을 재조명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의 새정부 출범을 시작한 시점에서 나라의 안녕과 불교의 단결을 통한 호국불교의 이념으로 아래와 같이 연합대법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제방의 스님과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

– 아 래 –

■ 제 목 : 나라안정과 부처님 출가재일기념 연합대법회
■ 일 시 : **2013(계사년) 3월 19일 (음 2월 8일) 오전 11시 화요일**
■ 규 모 : 승료 400명, 대중 600명
■ 참여종단 : 본회 회원종단 및 여타종단 등 200여 종단 단체
■ 장 소 :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12길 70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
■ 행사장 전화 : 02)526-9680
■ 연 락 : ☎ 02)358-6641~2 / FAX 02)358-6643

▶후 원 : BTN, 교계 각 방송 및 신문사(BTN 특집방송 3회 방영)◀

총재 : 의륜 회장 : 청운
부회장 : 만주 / 의장 : 법천 186개 종단공동대표 합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89-13 전화 02)358-6641~2 전송 02)358-6643

남원 실상사 철조여래좌상, 잘린 수인 발견

철불 존명 밝힐 근거, 서지류 등도 함께 발견

그동안 행방을 알 수 없었던 남원 실상사 철조여래좌상(보물 41호)의 수인이 발견돼 주목을 끌고 있다.

실상사(주지 해강)는 3월 7일 약사전 철불 해체보수 작업 중 복장내부에서 그동안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철조여래불의 양쪽 수인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수인은 양손 모두 중지(가운데 손가락)와 엄지 손가락으로 둥글게 원형을 표시한 중품중생인의 모습으로 발견됐다.

학계에서는 이번 수인의 발견으로 그동안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의 존명에 대해 노사나불 설과 아미타불 설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 날 복장내부에서는 후령통으로 추정되는 장엄구와 각종 약재함, 묘법연화경 4종 23권의 경전과 관무량수경 1권, 경면주사로 판본된 각종 다라니등의 서지류와 각종 한약재, 경면주사, 1986년 보수 당시 새로 봉안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들도 다수 수습됐다.

철제 수인이 발견된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은 일본의 지기를 누른다는 속설이 전해져와 일제 강점기 일제에 의해 강제로 양손목이 절단되었다는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수습과정을 지켜본 실상사 부주지 응묵스님은 "1986년의 수리보고서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만 철제 수인의 보관위치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수인의 존재를 확인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재의

일제 강점기 당시 잘린 설화 있어

현재 목재 수인 대체 예정

'사상불사' 앞두고 복원 계획

목재 수인 대신 철제 수인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 실상사 담당자는 "현재 실상사는 '철불 제자리 찾기와 실상사가람배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건축불사, 마을불사, 인재불사와 더불어 구산선문 최초가람 실상사의 창건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사상불사까지 염두에 두고 불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실상사의 철불은 실상사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불 복장에서 발견된 수인, 복장에서는 각종 서지류 등도 발견됐다.

그동안 실상사는 노후된 약사전의 연목 및 기와의 보수필요성 제기한 이래 약사전의 전면해체 보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실상사는 철조 여래좌상의 원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전각 내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약사전 발굴조사에서는 약사전에 봉안된 철불의 훼손상태가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나 긴급보수정비가 실시됐다.

지난 1963년 보물 41호로 지정된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은 실상사 창건(822년)과 함께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장흥 보림사, 동해 삼화사의 철불등과 함께 9세기 후반 통일신라 불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불교회관 부부포교사 탄생


좌로부터 이승규, 윤정인 부부 김성순 류성관 부부 예비포교사

"부부가 함께 포교사가 된다고 하니 주위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함께 열심히 전법 활동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신행경력이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정진해서 지역 불교가 활성화 되는데 작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제18회 포교사 고시 1차 합격자 발표에서 전북지역 35명의 합격자중 2쌍의 부부 포교사가 탄생해 지역 불교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화엄불교대학을 졸업한 이들은 이승규, 윤정인 부부와 류성관, 김성순 부부다.

신행경력이 가장 오래된 이승규 예비포교사는 아버지가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천은사에서 공부를 할 정도로 신심깊은 집안에서 태어나 40년 넘게 신행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파라미타 창립 멤버로도 활동했다.

부인인 윤정인 예비포교사는 결혼과 함께 불교에 입문해 그동안 지구촌공생회 전북지부 간사와 전북불교회관 재무간사로 활동하며 꾸준히 신행활동을 펼쳐왔다.

비교적 신행경력이 짧은 류성관, 김성순 부부는 본격적으로 불교에 입문한 것은 불교 5년에 불과하다.

가족 모두 거부감을 가지지 않는 종교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2남 1녀의 자녀들과 가족회의를 통해 불교에 입문한 독특한 가족력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작은 암자에 다녔지만 신도교육은 시키지 않고 비불교적인 방식으로 신행활동을 지도하는 스님에 실망해 제대로 된 불교를 배워보고자 하는 생각에 제적사찰도 금산사로 옮기도 화엄불교대학에 입학해 공부하면서 포교사고시에 합격했다.

이들 부부의 공통점은 모두 가장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웃종교와 비교해 가족 모두가 거부감없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종교를 찾다가 불교에 입문한 경우이다. 2쌍의 부부 모두 각자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열심히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같다.

이승규 예비포교사는 "학생들과 수학여행 도중 생전 예수재를 알리는 현수막을 보고 절에 왜 예수가 있냐는 학생의 질문에 말문이 막혀 한없이 부끄러웠다"며 불교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했다.

류성관 예비포교사도 "정식으로 포교사 품수를 받으면 불교문화를 전파하는 사찰안내분야에서 활동하며 불교문화를 통해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들은 포교사가 되기 전 함께 장례식장 염불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로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불심을 다질 예정이다.

이들은 "포교사 고시를 함께 준비하며 더욱 부부의 정이 깊어지고 그동안 없었던 마음의 여유가 생겨 가족 간에도 더욱 화목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을 옆에서 지켜본 이영배 전북불교회관 과장은 "부부포교사라는 장점을 적극 활용해 포교활동에도 열심히 나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공부 실천도 함께 할 터"

전북지역 불교대학 일제히 졸업 및 입학식

전북지역의 재가불자 교육기관인 불교대학들이 일제히 졸업식과 입학식을 개최했다.

전주 화엄불교대학(학장 원행)은 2월 24일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4층 큰법당에서 불기 2556학년도 불교대학 23기 학림원 19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전주 화엄불교대학 졸업식 장면

화엄불교대학 75명, 학림원 28명의 불자들이 졸업한 이날 졸업식은 학장 원행스님(전주 금산사 주지)을 비롯해 전북불교회관 원감 보륭 스님, 남원 선원사 운천스님, 신행 스님, 이근재 화엄불교대학 동문회장,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인 불자들은 지난 1년간 불교기초 교리강좌와 부처님 경전공부, 실참수행, 각종 봉사활동 등의 과정을 거쳐 졸업한 법우들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원행 스님은 축사를 통해 "보살의 삶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당부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뛰어난 학업성적과 모범적인 활동을 보인 오순석, 최길원 불자가 조계종 포교원장상을 수상하는 등 모범 졸업생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다.

이리불교대학(학장 덕림)도 2월 24일 오전 관음사 3층 대웅전에서 불교과 22기 23명의 졸업식을 봉행했다. 학장 덕림 스님은 "열악한 지역 불교실정을 감안해 졸업생 모두 전법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졸업한 화엄불교대학과 이리 불교대학의 졸업생들은 모두 조계종 신도품계인 '부동' 품계를 품수했다.

전북불교대학(학장 강건기)도 2월 24일 완산불교회관 큰 법당에서 불교학과, 법사과 졸업식을 봉행했다. 또 무주 불교대학은 3월 3일 졸업식을 개최했다.

한편 전주 화엄불교대학은 3월 3일 불교대학 25기 50명, 화엄학림원 20기 34명의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한 신입생들은 "배우고 익혀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청정한 삶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시 읽으며 다지는 불심한마당

선덕사 시 읽는 모임 나루터 인기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 삶이란 / 나 아닌 그 누군가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것(중략)"

안도현 시인의 연탄 한 장이 낭송됐다. 스님, 교수, 의사, 시인, 가정주부 등 어울리기 힘든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은 각기 생활의 잡념을 내려놓고 시어(詩語)가 주는 아름다운 음율을 감상한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 저녁, 도심 속 사찰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광주도량 선덕사(주지 원묵)의 시(詩) 읽는 모임 나루터에는 삼삼오오 모여든 사람들이 어느덧 방안을 채우고 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한 가지 시를 감상하고 이야기 하기위해서다. 특별한 형식도 없다.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한 편을 낭송하고, 서로의 느끼는 점을 말하면 된다.

이날 시 낭송에 참가한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은 "우연히 시인들과 같이 차를 타면서 시 읽는 아줌마 모임을 만들고자 이야기가 되었는데,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지역의 시인들을 초청해 같이 시집을 읽고 저자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의미를 말했다.

지난 2일은 나루터 모임 세 번째 날, 이날 참가자들인 내 놓은 자신만의 시는 안도현 의 '연탄 한 장', 이대흠의 '오래된 편지', 채호기의 '편지', 김종삼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가 낭송됐다.


선덕사에서 열린 '나루터' 장면

이날 한 참가자 시인은 "시인은 항상 현재이다. 그래서인지 가장 좋은 직업인 것 같다"고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 했다.

요새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이 있다. 80~90년대에는 누구나 시집 한권을 들고 다니며, 시를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핸드폰이 이를 대체했다.

선덕사 주지 원묵 스님은 "누구나 쉽게 시를 접하고,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었다"며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062)263-4660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보성 대원사 성보 보물 승격

전남 보성 대원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 지정 예고됐다.

'보성 대원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일괄(寶城 大原寺 地藏菩薩圖 및 十王圖 一括, 지장보살도 · 시왕도)' 은 3월 1일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 지정 예고됐다.

지장보살도 · 시왕도는 1766년 명부전 봉안용으로 18세기 호남지역에서 활동하던 대표적 화승인 색민(色旻) 스님이 제작한 것이다. 현존하는 조선 후기 명부전 불화 가운데 지장보살도, 시왕도와 사자도가 함께 남아 있는 드문 예다. 각 그림마다 제작 시기와 봉안처 등을 기록한 화기(畵記)를 동반하고 있다.

대원사 불화는 조선시대(1766년?영조42)에 명부전(지장보살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염라대왕 등 시왕을 모셔 놓은 절 안의 전각) 봉안용으로 조성된 불화로 지장보살도 1점, 시왕도 10점, 사자도 2점 등 모두 13점이며 9폭으로 표구돼 있다.

조성 이후 계속 보성 대원사 명부전에 보존돼 오다가 1946년 광주 덕림사로 옮겼다. 이 때문에 1948년 사회 혼란기에 대원사 명부전은 불에 탔으나 극적으로 화를 면했고, 2003년 대원사로 돌아와 2004년 전남도 유형문화재 제266호로 지정돼 현재는 대원사 티벳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국 주지스님께 인사드립니다

금번 제 18대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해 주신 불자 및 주지스님께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선거총괄본부 국민행복
불교조직 중앙본부장 회암(정영춘)
대한불교 본조계종 종정 회암 합장
대한불교종단진흥 총연합회 회장 합장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 18가길 16-1 전화 : 02)3436-0796~7
인터넷 검색 (대한불교 본조계종)

※ 종단 가입등록 받습니다.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 법 자 세 교 정 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특강: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KBS / MBC출연 / 대한(병)의원 진흥회장.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과 질환으로 고생하는자
▶ 순환기성 질환 임상 교육시간 : 5~10회 환영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반야심경은 마음의 네비게이션”

벽안의 선사 현각스님 부산 대광명사 법회



현각 스님이 3월1일 부산 대광명사에서 ‘반야심경과 나’라는 주제로 부산불자들을 만났다.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 현각 스님이 3월1일 부산 대광명사에서 ‘반야심경과 나’라는 주제로 부산불자들을 만났다.

3·1절 부산 대광명사(주지 목종 스님) 법당은 현각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한 청중들로 가득했다. 문밖까지 까치발을 하며 법당 안을 기웃거리는 신도들 너머로 현각 스님이 법석에 올랐다.

“부산에 도착하면 허리가 너무 아프다. 만나는 사람들 마다 합장 반배, 반배, 반배하느라 너무 바쁘다. 부산의 강한 불심에 허리가 약하면 견디기 힘들다”라며 스님 특유의 화법으로 청중은 한바탕 웃음바다가 됐다.

송광사에서 동안거를 마치고 3월 3일 유

반야경은 과학적인 진리의 인도자
3·1절 맞아 평화 의미도 되새겨

럽행을 앞둔 현각 스님은 “오늘은 3·1절입니다. 한민족에게 역사적이고 뜻 깊은 날에 부산불자들을 만나게 되어 더욱 힘이 납니다. 불교는 세계에 보기 드문 평화의 종교”라고 법문의 시작을 열었다.

이어 스님은 티베트의 예를 들어 불교에 깃든 평화의 의미를 설명했다. “시아파의 자살폭탄테러는 신앙의 껍질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어납니다. 한편, 티베트는 중국에 나라를 뺏겼습니다. 그러나 불심이 깊은 티베트인들에게 폭탄테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종교란 껍질에 연연하지 않고 시공을 초월하는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타적이지 안고 포용하는 마음, 포용하는 평화, 이것이 진정한 평화이며, 껍질이 아닌 본질을 꿰뚫는 종교인 것입니다”

하버드 신학대학원에서 비교종교학을 공부한 현각 스님은 반야심경은 270개의 한문 글자지만 이 속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압축된 훌륭한 엑기스라고 설명했다. “가장 핵심적인 철학이요, 생활비법과 설명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우리 정신의 네비게이션이고, 어떤 신앙보다 과학적이며 진리로 인도하는 친절한 지도입니다”라며 반야심경에 대한 가치를 강조했다.

이에 대한 실천으로 먼저, 관세음보살과 사리불의 대화를 진실로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공한 상태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반복해서 실천해야합니다. ‘나는 습관기계다’ 생각하고 ‘그저 내려놓고 할 뿐이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반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가 원하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의 대표적 도심 전법도량 대광명사 주지 목종스님은 “바쁜 일정에도 세계평화대법회를 앞 둔 부산불자들을 위해 시간을 마련해준 현각 스님에 감사하고, 반야심경 법문을 통해 참다운 자신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법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전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하겠다”

부산 용호복지관–해운대 티볼리 · 부산여성회관
평등 세상 위한 사회공헌 파트너 협약

용호복지관과 해운대티볼리 · 부산여성회관은 3월 5일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에서 다문화가정과 독거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협약식을 진행했다.

한화호텔&리조트 해운대티볼리 정용 본부장,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이춘성 관장, 부산광역시여성회관 박외숙 관장 외 30여명의 관계자들이 함께한 이날 협약식에서 해운대 티볼리는 사회공헌 기금으로 2,000만원을 쾌척했다.

3자간에 이루어진 이날 협약은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 다문화 가족 돌찬치와 결혼식, 저소득 독거노인 추억여행 제반지원 사업을 진행했고, 해운대 티볼리는 2,000만원의 재정지원과 장소 및 뷔페를 제공한다. 부산여성회관은 지역 다문화 대상 가정을 선발하게 된다.

해운대티볼리 정용 본부장은 “지역 사회를 돌보는 것은 기업의



용호 복지관 · 해운대티볼리 · 부산여성회관은 3월 5일 사회공헌 협약식을 진행했다.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다. 다같이 잘 사는 사회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이춘성 관장은 “예산부담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각성 스님 〈원각경〉 특강

5일 동안 선체험관서



고운사 원각경 특강

고운사는 3월 4일~8일까지 5일 동안 선체험관에서 각성 스님의 ‘원각경보안보살장’ 특강을 진행했다.

고운사에서는 해제 때마다 특강을 해오고 있다. 이는 ‘승려연수교육에관한령’에 의해 승려연수교육과정으로 인증 교육을 수료하면 30점의 점수가 부여된다.

이 자리에는 스님100여명과 재가불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일념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일념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불교계 인재양성을 위한 뜻깊은 장학금 전달식이 부산불교실업인회관 묘광선원에서 진행됐다. 재단법인 일념장학회(이사장 이영채)는 2월 25일 부산불교실업인회관 묘광선원에서 총 12명에게 71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영채 이사장, 기장 안적사 주지 법안스님, 동국대 장영길 교수, 부산여성불자회 왕선자 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박경수 부산 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종교적 의미에 맞지 않는 사찰 벤치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빔비사라왕이 지어드린 죽림정사와 수닷타장자가 지어드린 기원정사는 부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수행하시고, 설법하신 초기형태의 사찰이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다음에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스투파가 중심이 되는 사찰이 지어지고, 불상이 만들어지게 되면 스투파의 중심에 불상을 모시게 된다.

인도의 불교가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전파되면서 삼보를 모신 사찰의 형식이 변화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변형된 스투파를 중심으로 승원이 둘러싸는 형식으로, 중국에서는 파고다라는 또 다른 형식의 탑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전각이 배치되는 형식을 보이게 된다.

사찰은 시대와 장소에 관계없이 불법승 삼보를 모신 성스러운 공간이라는 공통적 속성을 가진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기도하고, 수행하고, 설법을 듣고, 재를 모시고, 신앙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모임을 가지는 등 오로지 신앙을 위해 필요한 행위만이 가능할 뿐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사찰이 현대적 기능을 담게 되면서, 순수한 종교적 기능 이외에도 생활불교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이 보태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자연이 아름다운 산사에서는 자연을 관조하거나 자연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기능이 보태지고 있다.

이제 불자들은 사찰에서 전과 같이 일방향적인 가르침, 보수적인 신앙활동, 딱딱하고 어색한 분위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부대중이 친화적이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고,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사찰환경 속에서 자신을 관조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능을 원하게 되었고, 사찰에서는 이에 부응하여 변화에 앞장서는 추세이다.

이렇게 불자들이 사찰에서 몸과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하게 쉬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골라서 하는 것이 현대불교에서 지원해야 할 또 다른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만큼은 사찰에서 오랜 세월을 전통적으로 계승해왔고, 유지해온 본래적 신앙기능이 이루어지는 곳과는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 불전 앞마당 한가운데 설치해놓은 벤치를 보면서 뭔가 보기에 어색하고 종교적 의미와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전통사찰 마당 한가운데 설치해놓은 벤치는 비록 신도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기에 어색하다. 충청북도 ㅂ사찰





신라 시조 박혁거세와 왕비 알영부인이 모셔져 있는 제당 숭덕전〈사진 위〉과 그들이 묻힌 오릉〈사진 아래〉. 박혁거세의 죽음에 얽힌 설화는 인도 개벽 설화 〈리그베다〉와 닮았다. 이는 박혁거세 설화가 불교 도입 이후 각색됐음을 의미한다.



숭덕전 안의 신라시조 박혁거세의 비(碑). 조선 시대의 왕들도 혁거세의 제향을 지냈다.



3월 불적답사에 참가자들이 천관사지를 둘러보고 있다.



봄을 맞은 남산 불적답사에는 7살의 어린이도 참가했다.

혁거세 시신은 왜 다섯 갈래로 내려왔을까?

남산에서 만난 신라의 전설들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새벽 첫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것이. 새벽 기차는 묘한 매력을 가진다. 동이 터 오르는 여명의 여적을 보며 스스로 '깨어있음'을 느끼는 것은 새벽 기차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호사다.

새벽 기차를 타고 도착한 경주. '봄은 남쪽에서 온다' 고 했던가. 3월 초입 경주는 꽃샘추위의 여파가 남아 있었지만, 봄의 길목에 있는 것은 명확했다. 경주의 주산(主山) 남산도 봄기운이 만연했다.

이번 경주 불적 답사의 주제는 신라의 전설이다. 남산의 아스라한 봄 내음을 따라 신라인들의 전설이 서린 곳곳을 돌았다.

남산서 나고 묻힌 시조 혁거세

경주 남산은 신라의 처음을 상징한다. 신라 시조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난 곳이 남산 서쪽 기슭 우거진 소나무 숲 속에 있는 나정이다. 진한의 6부촌장이 신라를 건국하기 위해 회의를 한 곳도 나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산 인근에 혁거세와 부인 알영비, 남해왕, 유리왕, 파사왕이 잠든 오릉(五陵)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유일 것이다. 오릉 옆에는 시조 혁거세를 기리기 위한 사당인 숭덕전이 있다. 숭덕전은 신라가 아닌 조선 세종 11년에 세워진 것으로 사당 앞에는 하마비가 놓여 있다. 그런데 하마비에 새겨진 문구가 독특하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말에서 내려라.(大小人員皆下馬)' 조선의 왕 역시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시조에 대한 예우를 극진히 하려 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숭덕전 북편에는 혁거세의 비(妃)인 알영부인이 태어난 알영정이 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알영은 혁거세의 즉위 5년(B.C 53) 정월 한 우물가에 계룡(鷄龍)이 나타나 오른쪽 겨드랑이에서 여자아이를 낳았는데 그 모습이 고와 노파가 길렀다. 그 후 아이의 행실이 착해 13세가 되던 해에 혁거세의 왕비로 삼았다고 전해진다.

현재 알영정은 석재 3매로 덮여 있어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고, 주위에는 팔각형 석재와 확돌, 초석 등이 남아 있다.

혁거세 설화와 세계 시조 설화의 유사점

알영정의 대나무 숲길을 걸어 나오면 시조와 부인, 신라 초기 세명의 왕을 모신 오릉이 나온다. 오릉이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은 혁거세 죽음 설화를 살펴봐야 한다. 이는 〈삼국유사〉 기이편에 잘 소개돼 있다. 내용에 따르면 혁거세가 나라를 다스린지 61년만에 하늘로 승천했고, 7일 뒤에 유체가 다섯 갈래로 떨어졌다. 사람들은 이를 모아 장사를 지내려 했으나 큰 뱀이 나타나 방해를 해 각각 나눠 담엄사 북편에서 장사를 지냈다. 이후 사람들은 이 능호를 오릉이나 사릉(蛇陵)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 같은 탄생과 죽음의 사변설화(蛇變說話)는 신라에만 있는 독특한 설화가 아니라는 게 최민희 신라문화원 부설 연구소장의 설명이다. 인도의 개벽설화인 〈리그베다〉 경전에서도 '변재천녀가 죽어 승천한 지 7일만에 유체가 다섯으로 갈라져 내려왔고, 이를 모으고자 했으나 큰 뱀의 방해로 오릉에 나눠 묻었다' 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문경현 경북대 사학과 명예교수는 박혁거세와 〈리그베다〉의 변재천녀 설화의 유사점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박혁거세의 설화가 불교의 유입 후 〈리그베다〉변재천녀의 '승천 후 유체낙지설화' 와 결부돼 윤색됐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사체 분장 역시 이집트 오시리스 신화에서도 발견돼 곡물 재배 민족에서 발생하는 '파종재생' 의 모티브로 파악됩니다."

설화 속 사찰 담엄사, 천관사

혁거세의 장례지 북편에는 담엄사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현재로 따지면 오릉 주차장 인근으로 추정된다. 이곳에 사찰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이유는 〈삼국유사〉에 기록이 남아있기도 하지만, 최근 발굴조사를 통해 오릉 주위에서 다량의 와전류가 발굴됐기 때문이다.

신라 시조 혁거세의 죽음 설화
인도 '리그베다' 와 유사점 많아
불교 유입 후 각색 가능성 커

옛 전불칠처 가람인 담엄사
말목 자른 김유신의 천관사
흔적만 남아 무상함 일깨워

이 담엄사도 당시 신라인들에게는 중요한 사찰이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삼국유사〉에는 신라 수도 서라벌 안에는 과거 일곱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사찰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데 그 중 7번 째 사찰이 담엄사였기 때문이다. 최 소장은 이 같은 '전불칠처' 가람을 통해 신라인들의 불심을 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국유사〉에는 서라벌의 전불칠처 가람을 흥륜사(현 경주공고), 영흥사, 황룡사, 분황사, 영묘사, 사천왕사, 담엄사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신라인들이 신라를 석가세존이 태어난 인도보다 못지않은 불교 국가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칠불이 경주 곳곳에 화현할 정도로 그들은 신라가 가장 훌륭하게 불법을 펼치고 불국토를 이룩할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오릉 동편으로 300m를 걸어가면 천관사지를 만날 수 있다. 현재도 발굴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천관사지는 삼국통일의 1등 공신인 김유신과의 사랑을 끊기 위해 자결한 기생 천관(天官)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어진 사찰로 알려졌다.

현재 천관사지는 건물지 7동과 탑, 문, 석등, 우물 등이 확인됐다. 특이한 점은 탑이 금당과 남북으로 동일한 축이 아닌 문지와 남쪽 건물지 사이에 조영돼 있다는 점이다.

남산 인근에서 만난 설화 속 사찰들 모두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터만 남아 세월의 무상함만 더하고 있다.

과거와 현대, 그 접경의 유적들

천관사 옆을 따라 오르면 남산 최북단인 도당산에 남아 있는 신라시대 성곽인 도당산 토성을 만날 수 있다. 현재는 경주-포항 간 산업도로를 사이에 두고 남산 토성과 인접해 있는 형국이다. 〈삼국사기〉에는 '도당' 은 '남당' 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남당' 은 왕과 각부 관리가 집무를 보던 곳으로 해석되거나 즉위 의례를 했던 신궁으로 보기도 한다.

도당산 아래로 내려와 20여 분을 걸으면 복원이 한창인 일정교와 월정교를 만날 수 있다. 월정교는 신라 제35대 경덕왕 19년(760년)에 축조돼 고려 제25대 충렬왕 6년(1280)에 중수한 사실이 〈삼국사기〉에 기록돼 있으며 그 후 조선시대에 편찬된 〈동경잡기〉에는 현재는 유지(遺址)만 남아있다고 해 조선 현종 10년(1669)경에는 이미 교량의 기능을 상실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월정교는 교각위에 목조 누각이 얹힌 형태인 누교 형태로 총사업비 332억 원을 투입해 2014년까지 복원할 계획이다.

월정교 너머에는 새로 정비된 교동 마을이 있다. 법주로도 유명한 교동은 이제는 민속체험관으로 그 면모를 자랑하고 있다. 연휴를 맞은 행락객들의 차량 행렬도 끊이지 않았다. 불국토 남산 아래의 접경에는 이렇게 과거와 현재가 어지러이 공존하고 있다.

정일근 시인은 '경주 남산' 이란 시에서 남산을 '신라인의 마음을 싣고 흘러가는 한척의 배' 라고 표현했다. 남산에서 만난 설화마저도 신라인들의 불심을 가지고 도도히 흐르고 있었다. 복원될 월정교에서 현기증이 날 정도로 어지러움을 만난 것은 과거와 현재의 접경에서 흐르는 내 마음의 배가 어지럽기 때문일까.

경주 남산=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불교신문사 · 신라문화원
4월 경주 남산불적답사 일정

- 주제 : 신라인들의 불상 조성 방법
- 일시 : 4월 6일 토요일 오전 9시 출발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도시락
- 동참 비용 : 2만원 (회원, 학생 1만8천원)
- 문의 : 054)774-1950, www.silla.or.kr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 의 장 석무염 석만월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부 의 장 석월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만오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윤오 교무부장 석성오
재무부장 석법담 사회부장 석혜주
정보부장 석보각 동원부장 석법원
행사부장 석지혜 의전부장 석근홍
사무총장 석초오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 원 장 석법호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우암
부 원 장 석법승

교육원
교육원장 석보행
부 원 장 석대명
부 원 장 석운오
강원원장 석법오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기획위원장 조길환
문화예술위원장 조치원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dwbk.net

부산 제2총무원
총무원 원장(직) 010-3565-2462
혜광사(종무소) 051-505-2461
혜광사(팩 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6
부산지부 제 2총무원 혜광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대원불교조계종 종립교육원
행자모집 중
종 무 소 051)893-3346
학 장(直) 010-3564-6604 현우 법오
부산 진구 당감1동 232-3 현우정사(백양대로 50-1호)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생태사회와 불교

가난한 이들을 위한 슈마허의 중간기술론

인간과 환경을 위한 '적정기술' 필요



케이맥 로토뮬더스 앤 파이어니어 플라스틱스의 큐드럼. 깨끗한 물의 공급처로부터 수킬로미터 떨어진 아프리카 시골 마을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맑은 물을 구하기 힘든 아프리카 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라이프 스트로는 적정기술의 대표적 사례다.

인간의 손이 행복도, 불행도 가져온다

'오늘날 인간의 손은 인류의 빈곤을 없앨수 있는 힘도 있지만, 동시에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는 힘도 동시에 주어졌다' 고 1960년 케네디는 신년연설에서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케네디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희망과 더 많은 절망을 동시에 겹쳐져 있는 시대가 되었다.

과학, 기술, 바이오. 에너지 정보통신의 발전등 놀라운 기술발전으로 많은 상품이 생산되었고, 사람들은 이를 구매하기 위해 오직 화폐를 보유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인류는 위기를 염려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더욱이 제어되지 않는 인간의 탐욕이 과학과 기술을 앞세워 그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철학자인 장회익교수는, 인간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행위능력은 발전했지만, 이를 통제할 정신능력은 그 발전속도를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앞의 글에서 과학기술에 의존해서는 근본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삶, 자원을 덜 소비하는 삶, 적게 소비하고, 작은 것을 지향하고, 천천히 살며, 자발적인 가난, 주체적인 청빈으로의 '전환' 이 근본이 되어야 하며, 그 토대위에 과학기술은 부분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은 자연의 이치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순수의 영역이라고 말하지만, 과학연구의 방향성도 자본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과학자들 또한 비도덕과 비윤리인 접근을 서슴지 않는 자본의 탐욕에 포섭되어있기 때문에 과학을 순수하다고만 말하는 사람은 없다. 기술의 영향은 해당 사회 욕망시스템의 페러다임에 철저히 더욱 깊이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과 지배계급, 권력의 이익에 더욱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는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 지속가능한 기술로서 '적정기술'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활발해진 '적정기술' 연구

최근 땔감이 부족한 인도나 아프리카에 태양열 집열판으로 만든 곤로를 만들어 보내고 있는 단체들이 있다. 반짝이는 철판들을 둥그렇게 초점이 모아지도록 붙여, 조리할 것들을 올려놓으면 훌륭하게 요리가 되는 태양열 곤로이다. 또 정수필터가 내장되어 있어 세균과 바이러스로 오염된 물의 99%를 걸러 마실수 있는 라이프스트로우(Life Straw)도 있다. 그리고 패트병에 세제와 물을 넣어 반투명 액체를 만들어 지붕과 연결된 천정에 끼워놓으면, 대낮에도 컴컴한 가난한 나라의 가옥에 55w 전등을 켠 효과를 볼수 있다.

이뿐아니다. 압축 볏짚을 쌓아서 벽체를 올리고 양면에 황토로 미장하는 방식으로 짓는 스트로베일(Strawbale)하우스는 흙으로 두껍게 미장하기 때문에 장마철 습기와 단열에도 아주 좋아서, 가난한 나라 뿐아니라 선진국의 생태적 건축으로 많은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태양광전지를 이용한 전기생산, 사탕수수로 만든 숯, 많은 양의 물을 담아 굴리며 옮길 수 있는 드럼통, 태양열을 모아 난방에 사용하는 난로. 햇볕온풍기, 손악력운동으로 충전되는 손전등, 물의 힘을 이용하여 산을 오르내리는 셔틀기차 등, '적정기술(AT : Appropriate Technology)' 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것을 개발하는 개발자들과 개발도상국에 지원을 하는 NGO들이 늘어나고 있다.

'적정기술' 이란 무엇인가

트랙터가 개발도상국에 대대적으로 보급된다면 그 지역의 농업생산력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대규모 실업과 계층적 위화감과 혼란이 야기될 것이고, 석유에 의존하게 되어 국제시장에 장악되는 농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트랙터라는 높은 기술 (High Technology)보다는 효율은 떨어지지만, 호미와 같은 전통적이고 원시적인 기술 (Low Technology)보다는 훨씬 우수한 기술, 이것을 통칭 중간기술 (Intermediate technology)이라고 부른다. 이 기술은 부자나 권력자의 기술이 아니라서 '민중기술' 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을의 자립을 위한 기술이라고 해서 '자조기술' 이라고도 말했지만 최근에는 '적정기술' 라는 말로 정착되고 있다.

대체로 고도화된 거대기술은, 자본집약적이고 에너지의존 비율이 높고, 노동절약적인 기술이다. 또한 작업장이나 공장을 짓고 유지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과 석유가 들어간다. 그리고 이 기술은 인간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돈을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결국 노동자 고용을 최소화시켜 일꾼을 줄어들게 만드는 기술이다. 결국 인간을 비인간화시키고 사람을 자본에 포섭시킨다. 그러나 '적정기술' 은 생산성도 높으면서 비인간화되지 않는 수준의 '중간기술',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 '지속가능한 기술' 을 지향한다.

과학기술 발달로 인간 행위 발전
정신 능력은 그 발전속도 압도 못해
대안책으로 '적정기술' 에 대한 관심 높아
생산성 높지않고 비인간화 안되는 기술

"작은 것이 아름답다"중간기술론

'중간기술' 은 슈마허(E. F. Schumacher)가 1973년에 쓴 책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나온 용어이다. 이 책은 환경론자들에겐 경전과도 같은 책이며, '불교경제학' 으로의 전환을 강조한 책으로 유명하다. 그는 선진국과 가난한나라의 빈부격차를 고민하다가, 간디의 마을자립 경제운동과 불교경제학에서 영향을 받아, 선진국의 경제적 종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립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높은 고도 과학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 중간규모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슈마허의 중간기술은 ① 직장을 대도시권에 집중시키지 않고,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만든다. ② 이와 같은 직장은 고액의 투자나 다량의 수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비가 싼 것이어야 한다. ③ 생산기술도 비교적 간단한 것이어야 한다. ④ 원재료는 주로 현지의 것을 사용하고, 제품도 현지에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많은 돈이 필요없고 누구나 쉽게 자신의 지역에서 나는 재료로 소규모 사람들이 모여 생산이 가능한 기술로, 사회공동체의 정치적, 문화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하여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인 생산과 소비를 통해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이다.

실제 필자가 활동했던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마을의 전기공급을 위해 고가의 소수력발전기를 지원하여 설치한 적이있다. 그러나 오지 마을 주민들의 대부분이 문맹이라 이 첨단기계를 작동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워 설치된 후 곧바로 고장난 흉물이 될 운명에 처했다. 이처럼 첨단기술은 결국 관리, 수리, 고장을 외부에, 돈에 의존해야한다. 따라서 중간기술은 현지의 재료, 현지의 전통과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적은 자본으로 비교적 고치기 쉬운 간단한 기술을 활용한다.

슈마허는 가난한 나라의 빈곤을 해결하고, 나아가 이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선진국 스스로도 첨단기술의 비인간성에서 벗어나게 될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중간"이라는 용어가 미완의 기술 또는 첨단기술에 비해 열등하다는 오해를 줄수 있어 최근에는 '적정기술' 이라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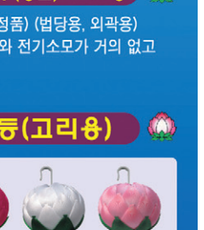
가난한나라의 원조로서의 적정기술

초기에는 가난한나라의 빈곤퇴치를 위해 제안된 것이 이제는 환경위기를 앞두고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 (MDGs)에서 제기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위해 OECD의 많은 원조공여국들이 지속가능한 기술로서, 원조의 효과를 위해 적정기술 지원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슈마허가 1966년 영국의 서식스대학에 중간기술개발집단(ITDG, 현 Practical Action)을 설립한 이후, 1969년에 미국의 신연금술연구소, 1976년 카터 정부때 설립된 국립적정기술센터(NCAT) 등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독일 국제협력단(GIZ), 네덜란드 개발기관(SNV)등, 선진국의 기술원조기관들, 국제개발기업(IDE), 킥스타트(KickStart),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샥티(Grameen Shakti), 라오스의 선라봅(Sunlabob), 인도의 셀코(SELCO)등의 사회적 기업과 유수의 공과대학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도 적정기술 '붐' 이 일고 있다. '나눔과 기술',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 등 과학기술 전문가들이나 '굿네이버스', '팀앤팀', '대안기술센터' 등의 NGO 단체들, '한밭대학교 적정기술연구소', '한동대학교 그린 적정기술 연구협력 센터' 와 같은 대학 내 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생겨나면서 민간 차원에서 크고 작은 적정기술 개발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적정기술은 시장에 의존하기 보다 인도적 구호, 기부의 방식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 발전과 확대에 장애가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아무튼 적정기술은 환경친화적 기술이자 인간의 얼굴의 기술로 앞으로 더욱 주목을 받으며 발전 할 것이 틀림없다.



유정길 (에코붓다 前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서비스]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 · 야 상담 합니다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신제품 (특허제품)
DWKS-108A
DWKS-108B
연등(등표) 발판사다리
DWKS-3000A
DWKS-3000B
고추구 12E 3구 인지구 26E 4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A형
B형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이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LED전구, DC 9V 백색 · 노랑 · 빨강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유불선 통합 명강의… 선교 겸수한 선지식



方山老의 無影樹 〈6〉

탄허 스님 탄신 100년 증언- 무비 스님



무비 스님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교육원장 역임
범어사 주석, '염화실' 카페 운영하며 전법

노자 · 장자 백번 이상 읽고
필요한 공부는 그 자리서 외워
사부대중 차별없이 인재 양성
국가와 민족 · 정치에 관심

-스님은 해인강원을 마치고 선방에 다니면서, 큰 스님들을 많이 친견하였는데 혹시 그 때 탄허 스님에 대해 들은 것은 없었나요?

탄허 스님에 대해서는 범룡 스님에게서 들었어요. 저는 범룡 스님과 참으로 인연이 많아요. 저는 범룡 스님을 존경해서 동림산 태안사에서 모시고 살았고, 화엄사 구층암에서도 모시고 산 적이 있어요. 구층암에서는 〈화엄합론〉을 갖고 잠깐 공부한 적이 있어요. 적명스님, 정광스님과 함께 했지요. 그럴 때에 탄허 스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범룡 스님은 오대산 상원사에서 한암 스님을 모시고 공부하였는데, 그때 탄허 스님과 같이 있었답니다. 범룡 스님은 나중에 한암 스님이 현토한 〈화엄합론〉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 책을 복사해서 스님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랬어요. 그 판 그대로도 하고, 축소해서도 하였지요. 범룡스님의 말씀으로는 한암 스님이 탄허 스님의 한문 실력과 글재주를 그렇게 아끼셨대요. 그래서 탄허 스님은 울력도 빼주었다고 했어요. 상원사에서 〈화엄경〉을 볼 적에는 탄허 스님이 석사를 하시면 한암 스님이 간간이 뜻을 설명해 주었대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자기처럼 잘하는 사람이나, 자기보다 더 잘하는 것을 제일 사랑스럽게 보죠. 공부를 잘하는 것이 제일 귀엽죠. 범룡 스님은 한암 스님을 그렇게 존경했어요. 평소에 나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이라도 한암 스님이 계신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한암 스님의 회상으로 달려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범룡 스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밥 한 번만 먹고 싶다, 잠 한 번만 자고 싶다, 화두를 한 번만 들고 싶다"고요. 식사를 하루에 한 번만 하고 더 이상 먹지 않고, 잠도 한 번만 자면 더 이상 졸지 않고 싶다, 화두를 하루에 수백 번 놓치면 다시 들고 하는데 한 번만 들면 순일무잡하게 죽 나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이 한암 스님의 영향이에요. 나는 범룡 스님의 이 말이 그렇게 감명 깊을 수가 없어요.

-스님은 1967년 용주사에 세워진 동국역경원의 역경사로 선발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탄허 스님에게 배웠죠?

맞아요. 제가 거기로 가게 된 것은 1966년 겨울에 동아일보에 역경사를 뽑는다는 공고가 난 것을 보고 그리 한 것이지요. 거기에 응모한 것은 법정 스님의 권유도 작용했어요. 제가 해인사에 있을 적에 제 옆방이 법정 스님의 방이었어요.

탄허 스님은 역장장(譯場長)이면서 늘 강의를 하셨어요. 탄허 스님은 장자를 하시고, 운허 스님은 능엄경을 하시고, 이기영은 범어를 하고, 이진영은 논어를 하고, 법정 스님은 문법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배웠는데 운허 스님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리포트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대로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을 번역할 사람으로 뽑은 건데, 우리의 원전 실력이 너무 약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원전을 보는 실력을 높이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보시고, 강의를 올스톱하고는 연수생이 제각기 제일 좋아하는 것을 갖고 독송을 하도록 했어요. 그것을 3개월 시켰어요. 나는 맹자를 하고, 월은 스님은 능엄경을 했지요. 나는 맹자를 3천 독을 하면 좋다는 말을 듣고, 맹자를 죽자 사자 밥도 안 먹고, 집중적으로 읽었어요. 강원에 있을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했어요.

-용주사 시절, 탄허 스님에 대한 회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거기에서 운허 스님이 능엄경 강의를 하면, 탄허 스님이 그 강의에 제일 먼저 들어와서는 앞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강의를 듣지요. 나는 스님의 그런 자세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탄허 스님에게 "스님은 능엄경을 모르세요? 왜 강의를 듣습니까?" 하였어요. 그랬더니 스님은 "무슨 그런 소리를 해" 하시면서, "운허 스님의 강의는 전통적인 강원의 해석법과는 영 다르다, 들을 만해"라고 하셨어요. 탄허 스님은 선지에 의한 해석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암 스님의 회상에서 체득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해석법이지요. 이렇게 스님의 학구열은 대단해요. 그런 열의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때에 스님은 화엄경 번역을 계속 하실 때였어요. 그래서 늘 원고를 가지고 다니고 그랬어요. 어떤 때에는 그 원고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의견을 묻기도 했어요. 나는 그때에 구체적으로 답할 처지는 아니었지만, 내 식으로의 의견 을 말하기도 했어요.

-대원암 시절의 추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때 스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스님, 재가자, 유명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오면 스님은 몇 마디만 간단하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눈을 감고, 하늘을 쳐다보고 아무 말씀을 안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나, 주위에 있던 우리들이 얼마나 멋쩍고 난처해요. 스님은 묻지 않으면 답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직지사의 법안 스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법안 스님이 출국하기 전날, 초당이라는 신도집에서 환송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스님을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그 집은 가정집 치고는 아주 컸는데, 공양도 거하게 차렸어요. 공양을 마치고 나서 초당이 참석한 관응 스님에게 "큰스님에 대해서 들으니 유식을 잘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오늘 한 시간 안에 유식을 설명할 수 있나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해줄 수 있어요?"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관응 스님이 "유식은 8년을 해야 하지만, 한 시간 안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면서 "그러면 혹시 칠판이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신도가 어떻게 준비를 하였는지, 칠판을 착 내왔어요. 그러자 관응 스님이 분필 하나 들고, 칠판 가득하게 적으면서 설명을 하였어요. 탄허 스님도 그것을 들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글이 탄허 스님이 못 본 글이었어요. 그러자 탄허 스님은 내용이 좋다고 하면서, 그것을 다 적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대원암에서 당장 그것을 외워 버려요. 그렇게 당신 공부를 치밀하게 하셨어요. 스님은 노자 장자 전부를 백 독 이상을 하였다고 해요. 스님은 옛 성인들의 말씀은 무조건 백 번 이상을 읽어서 외워 버려요. 그렇게 공부하는 자세가 좋은 점입니다. 저는 큰스님들을 모시면 큰스님들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큰스님들의 범위에서 안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켜 보았지요. 나는 어려서 그것을 보고는 탄복했지요.

-월정사에서의 추억이 강렬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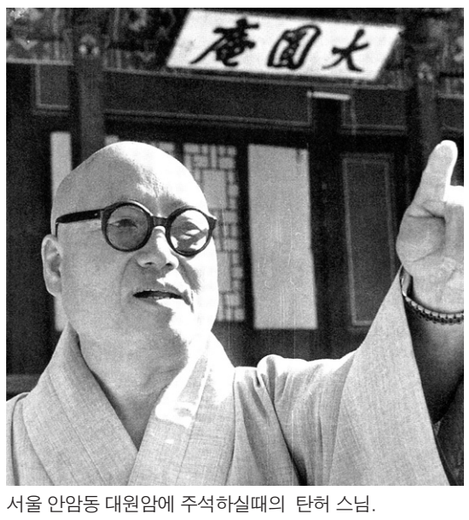
그때 스님은 본격적인 화엄경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유불선 삼교에 대한 개론을 서론 격으로 미리 7일간 강의했어요. 그것이 진수입니다. 그 강의가 명강의입니다. 그 강의를 정리해서 책으로 내면 좋을 것입니다. 그때에 눈이 많이 와서 관조스님, 그리고 비구니들하고 눈싸움을 하던 것, 도반들하고 상원사까지 걸어서 가던 것이 기억납니다. 참 좋았죠.

-탄허 스님 강의의 특징은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탄허 스님은 책을 안 들고 모든 것을 외워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분필 하나만 들고 강의를 하시는데 스님은 천하에 어떤 놈이라도 와서 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만만하게 하셨어요. 분필 하나만 들면, 한두 달은 할 수가 있다고 하셨어요. 스님은 경전이나 좋은 글귀는 무조건 외워버려요. 스님은 강의하실 때 책을 보고 강의하신 적이 없어요. 타고난 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불도 삼교에 대해서는 기막히게 통합하셨지요.

-강백으로 날리던 관응 스님과의 비사는 없을까요?

스님은 강의하실 적에 관응 스님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탄허 스님은 관응 스님과 매우 친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약간은 라이벌이었습니다. 관응 스님도 장자(莊子)에 깊었고, 탄허 스님도 장자 등 노장(老莊)에 깊었습니다. 3대 강백의 한 분인 운허 스님은 탄허 스님보다 연배가 높고, 아주 점잖았어요. 그러나 관응 스님과는 나이가 비슷하셨지요. 탄허 스님은 노장에 대해서는 천하에 제일이라고 여기셨어요. 탄허 스님이 월정사에서 강의를 하시니까, 관응 스님도 대원정사, 동화사, 직지사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관응 스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탄허 스님의 영향을 받아서 한 것 같고, 두 분 관계상에서 나는 그렇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서울 안암동 대원암에 주석하실때의 탄허 스님.

-탄허 스님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탄허 스님은 강백이기도 하고, 선사이기도 한 분이지요. 스님은 경을 보면서 참선을 하고, 참선을 하면서도 경을 보신 어른이에요. 스님은 경전과 선을 둘로 보신다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평소에 그런 것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어요. 스님의 특징은 유불선을 회통하고, 선과 교를 융통해서 그 모든 것을 배대해서 강의를 하셨어요. 스님은 늘 두루마기를 걸쳐 입으시고 그래서 선비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스님은 민족의식, 민족운동, 정치에 생각이 있으셨어요. 보천교 간부였던 아버님의 영향도 있었지만 민족과 정치에 관심이 많았어요. 또 예언, 미래예측도 많이 하셨지요. 일본에 갔다 와서는 일본의 땅이 밑으로 몇 센치가 들어갔다고 실측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런 내용을 보도한 일본 신문도 가져와서 보여주고 그랬어요. 사주, 관상에도 관심을 두었는데 해운선생이라는 분이 스님을 자주 찾아왔지요. 그 사람은 탄허 스님을 그 방면의 스승으로 여겼어요. 하여간 스님은 다방면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스님의 정체성은 어떤 한 가지로 논할 수 없어요. 선사이면서도 강사였으니, 선교겸수(禪敎兼修)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허 스님이 스님들 교재 모두를 현토 역경한 것, 그리고 비구니와 재가자에 대한 가르침도 개방적으로 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까?

맞아요. 스님은 재가자나 비구니를 절대 안 가렸어요. 재가자까지 관심을 두고 가르친 것은 국가와 민족을 폭 넓게 생각하는 관심에서 나온 것일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른 스님은 하지 못하였지요.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것입니다. 좋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님은 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수도원을 대전 학하리 자광사에다가 만들려고 하였는데, 그게 스님의 꿈이자 원(願)이었어요. 한 번은 스님과 함께 자광사 근처에 있는 명당자리라는 곳을 가본 적도 있습니다. 낮은 동산인데 흙은 없고, 암벽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탄허 스님의 대표적인 어록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그것은 향상일로(向上一路)일 것입니다. 스님은 그 유묵을 많이 써주었어요. 그리고 스님이 법문을 하시면서도 그것을 잘 쓰셨고, 상당법문을 하시면 어느 선사보다 더 나은 선법문을 하셨어요. 49재에서 법문을 할 때에도 선법문으로 회통을 하셨으니까요.

-탄허 스님은 역사에서 소외되었고, 업적 및 역사가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후대에서 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나는 근래의 책을 갖고 공부하신 큰스님으로 둘을 꼽는데 그것은 탄허 스님과 성철 스님입니다. 탄허 스님은 유불선을 다 공부하셨어요. 아는 것이 많으셔서 천하의 학자는 와서 질문을 하라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철 스님은 불경뿐만 아니라 수많은 책(물리, 타임지, 일본책 등)을 보시고는 그것을 백일법문으로 정리해 놓았지요. 저는 근래에 대중에게 강의를 할 때에 공부한 것을 제대로 정리, 표현하는 것.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성철 스님과 탄허 스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성철스님은 당신이 배운 것을 백일법문으로 표현하신 독특한 중도광(中道狂)이십니다. 탄허 스님은 화엄경과 유불선 삼교를 통달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월정사에서 1주일간 회통하는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강의는 천하에 탄허 당신밖에 못한다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나는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에게 그런 말을 들었어요.

-무비 스님은 탄허 스님에게 큰 영향을 받았지요?

그럼요.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 탄허 스님입니다. 제일 크죠. 나는 강원에서 성호스님, 지관스님, 각성 스님에게 배웠고 그리고 운허 스님, 관응 스님에게도 배웠어요. 그리고 선방을 다니면서도 수많은 큰스님들을 친견하였어요. 스승의 복이 많지요. 그래도 시간이나 영향이란 측면에서는 오직 탄허 스님입니다. 탄허 스님이 강조하신 것은 보조법어, 사집과 사교, 노장학입니다. 스님은 유교를 배우다가 도교를 배우면 유교가 시시하고, 도교를 배우다가 경전을 배우면 도교가 시시하고, 경전을 배우다가 선어록을 보면 경전이 시시하다는 것을 늘 말씀했어요. 그러나 맹자와 논어는 어쩌다 한두 마디만 언급했어요. 저는 요즈음 4년째 법화경, 임제록, 화엄경을 스님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신도들에게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탄허 스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화엄경 소초를 지은 청량국사의 글을 보면 내가 죽을 곳을 찾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환희심을 내고 심취하였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저도 화엄경을 비롯한 경전을 배우고 강의하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칩니다.



대담: 김광식 동국대 교수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3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4월 중
◆ 개강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 東 佛 敎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미얀마 성지순례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8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1,3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1,54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6일 요금문의

※ 짜익티오 파고다 정상 짜익토호텔 숙박 – 파고다 철야기도 등 가능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29만원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4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요금문의
▣ 라오스 직항 5일 135만원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망념 일으키는 그 자리가 깨닫는 자리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해 〈10〉



범어사 주지

세상 사람들은 모든 부처님께서 마음법[心法]을 전했다는 말을 듣고, 마음 위에 따로 깨닫고 취할 만한 법이 있다고 여긴다. 그리하여 마음을 가지고 법을 찾으면서, 마음이 곧 법이고 법이 곧 마음인 줄 알지 못한다.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찾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천만 겁이 지나더라도 끝내 얻을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마음인 줄 알면 한결 쉬울 텐데,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니 자기도 모르게 찾고 구하게 된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갈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른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다.' 는 말을 아무리 배워도, 실제로 깨닫지 못하면 헤맬 수밖에 없다.

당장 무심함만 못하니, 무심이 곧 본래의 법[本法]이다. 마치 힘센 장사가 자기 이마에 보배구슬이 있는 줄 모르고 밖으로 찾아 온 시방세계를 두루 다니며 찾아도 끝내 얻지 못하다가, 지혜로운 이가 그것을 지적해주면 본래부터 구슬이 있었음을 바로 알아보는 것과 같다. 도를 배우는 사람도 자기 본심에 미혹하여 그것이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밖으로 찾아다니면서 수행을 하며 차제를 밟아서 깨달으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억겁동안 애써 구한다 해도 영원히 도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당장 무심함만 못하다.

소승은 중생 근기를 봐서 차제법문을 설했지만, 대승과 최상승은 차제가 방편인 줄 알아서 본래 무심자리를 그대로 드러낸다. 한 생각에 깨달으면 따로 차제로 찾고 구하는 일 없이 즉시에 성품을 보고 뜻을 이루지만, 그렇지 못한 입장에서는 '먼 거리를 가려면 한 걸음부터인데, 어찌 한참에 도착한단 말인가?' 라고 말한다. '가고, 가지 않고' 에 관계없이 본래 마음자리를 갖고 쓰고 있지만, 스스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인연으로 그렇게 되었을 뿐임을 알아야 한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깨달음을 통해서 '그 자리가 바로 마음자리' 라는 사실을 눈뜨게 해주면, 이런 말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한편 눈을 떴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공부는 된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갑갑해졌다며 갈팡질팡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다 보면 공부를 등지고 다른 것을 찾으러 헤매게 된다.

〈대반열반경〉 '여래성품' 에 이런 우화가 전한다. 어떤 왕실에서 시중들던 힘센 장사[力士]가 미간에 금강석을 머금고 있었다. 그는 수시로 다른 장사들과 씨름을 했는데, 어느 날 이마를 부딪쳐 금강석이 피부 속으로 함몰되고 말았다. 자랑스러운 금강석이 보이지 않자, 그는 잃어버린 줄 알고 슬피 울며 사방으로 찾아다녔다. 나중에 현명한 의사를 통해 금강석이 이마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불사의(不思議)한 도리를 깨달았다고 한다. 이것은 〈능엄경〉에 나오는 유명한 '연야달다 고사(故事)' 와 같은 뜻이다. 일체 중생이 본래부터 불성을 지니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우화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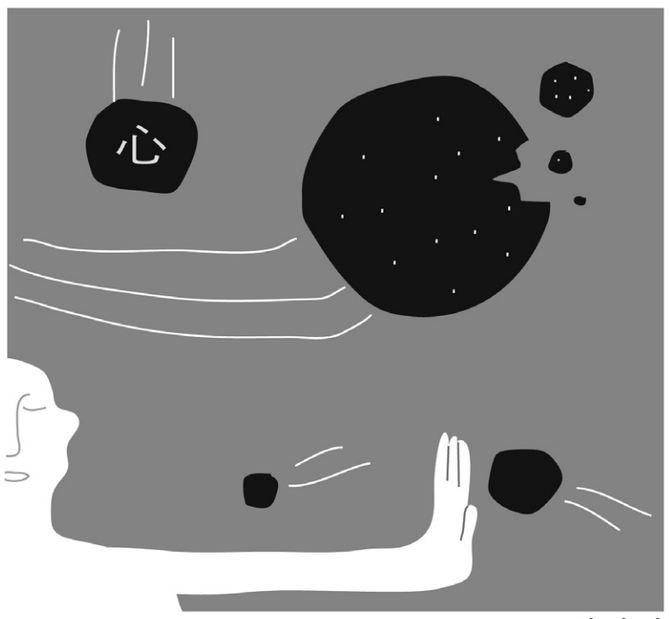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마음으로 마음을 찾으면
천만겁 지나도 얻지 못한다
밖으로 찾아 다니는 수행은
당장 무심함만 못하다

한번 눈을 떴더라도
이치를 수용 못하면
갈팡질팡하는 이들도 있다

망념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망념 일으키게 하는
근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망상에 끄달리지 않고
그냥 흘려 보낼 수 있다

일체의 법이 있다 할 것도 없고, 얻었다 할 것도 없음을 결정코 알아야 한다. 의지할 것도, 머무를 것도 없다. 주관이니 객관이니 할 것도 없다.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즉시 보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망념이 일어날 때, 거기에 끄달리면 깨달음과는 등지게 된다. 즉시 알아차려서 망념을 일으키게 하는 근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더 이상 끄달리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둘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될 것이다. 알고 보면, 망념을 일으키는 그 자리가 바로 깨닫는 자리다. 이것이 바로 원력바라밀이다. 이런 바라밀을 자기 안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중생계와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지, 스스로도 제도 못하면서 남을 위해서 바라밀을 행한다고 쫓아다니는 것은 쓸데없이 더 많은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다. 바라밀행을 하는 것만을 말하자면, 타종교인인들도 잘한다.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이익을 나누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하지만 이러한 바라밀행은 일시적인 편안함만 줄 뿐, 고(苦)의 원인을 알아서 본래부터 망상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편안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다.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바로 보리를 깨닫게 된다.' 는 말이 분명 맞는 말이지만, 듣는 입장에 따라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믿음을 낸 입장에서는 이 말이 그림자를 쫓아준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망념을 일부러 없애려고 하니 문제다. 망념을 없애고 깨달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망념이 있고, 없고' 에 관계없이 본래 그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일어나는 망상에 더 이상 끄달리지 않고 그냥 흘려보낼 수 있다. 확철히 깨친 입장에서는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쓸어서 자취를 감출 수 있고, 일으키려면 하루 종일 일으켜도 일으키기 이전의 모습을 알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으킨 바가 없는 것이다.

도를 깨닫는 때에 이르러서는, 다만 '본래 마음인 부처[本心佛]' 를 깨달을 뿐이다. 오랜 세월을 거친 노력은 모두 헛된 수행일 뿐이다. 마치 힘센 장사가 구슬을 얻은 것은 본래부터 이마에 있던 구슬을 얻은 것일 뿐, 밖으로 찾아 다녔던 노력과는 상관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실제로는 얻은 것이 없다." 다만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염려되어, 오안(五眼)을 가져다 보이시고, 오어(五語)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 도리는 진실 되어 허망하지 않으니, '최고의 진리[第一義諦]' 다.

이치를 설파하더라도 아는 사람한테 해야 한다. 모르는 사람한테 말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 게다가 자기 식대로 받아들이는 잘못까지 저지르곤 한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공부한 입장에서는, 믿음을 바탕으로 이런 말을 들으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아나간다. 반면 공부한 바가 없는 입장에서는,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며 궁금증이 하나씩 깨지는 것에서 즐거움을 구할 뿐, 진정한 즐거움은 놓치고 만다.

〈금강경〉의 부처님 말씀에 오안과 오어가 나온다. 오안은 육안(肉眼), 천안(天眼), 혜안(慧眼), 법안(法眼), 불안(佛眼)이다. 오어는 진어(眞語), 실어(實語), 여어(如語), 불광어(不?語), 불이어(不異語)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⑥⓪



오온(五蘊)이 모두 공(空)함을 비춰보시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셨다

〈반야심경〉

제3의 거울

문학평론가 김현은 1982년에 '바라봄과 텅 빔…거울의 이미지 분석…' 이라는 제목의 글을 쓴다. 프랑스의 문학기호학자 롤랑 바르트의 책 〈기호의 제국 L'mpire des signes〉에서 촉발되어서, 쓴 글이다. 〈기호의 제국〉은 바르트가 일본을 여행한 뒤에 쓴, 일본을 활용하여 자기의 세계관을 다시금 설명한 책이다. 그 중에 김현의 눈을 끈 대목은 이렇다.

"서양에서는, 거울은 본질적으로 나르시스적(자기도취적)인 대상이다. 사람이 거울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 자신을 보기 위해서일 뿐이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거울은 공(空)인 것 같다. 그것은 상징의 공의 상징이다. 도인(道人)의 정신은 거울과 같다. 그것은 아무것도 거머쥐지 않으며 아무것도 배척하지 않는다. 그것은 '받아들이나, 간직하지 않는다' 라고 한 도승은 말한다. 거울은 다른 거울만을 사로잡으며, 그 한없는 반사는 공 자체이며, 그것이 바로 형태인 것이다."

바르트가 여기서 거울의 공, 즉 거울이 공임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선(禪)을 알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일찍이 나르시스를 깊이 생각했던 김현은 이제 바르트를 통해서 동양의 거울을 다시 주목하고 있다.

바르트가 말한 '텅 비어 있으나 다 받아들이는' 거울 이미지는 육조혜능의 게송, "밝은 거울은 원래 한 물건도 없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현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나로서는 우리 불교에 제3의 거울이 있다는 점을 덧보태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상 스님이 말하는 거울이다. 스님은 〈백화도량발원문〉에서, "관세음보살의 거울 속 제자의 몸으로, 제자의 거울 속에 계신 관세음보살님께 귀명정례하여"라고 말한다.

의상 스님이 말하는 제자, 즉 나는 '거울 속의 나' 이고, 관세음보살님 역시 '거울 속의 관음' 이다. 우리 모두는, 관음과 제자, 부처님과 중생은 모두 '거울 속의 존재' 일 뿐이다.

거울 밖의 존재는 확실히 있지만, 거울 속의 존재는 그렇게 확실히 있는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중생이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있는 것은 오직 '거울 속 그림자 · 이미지' 일 뿐이며, 거울 밖에 존재는 본래 없다, 라고 말이다.

마지막 한 말씀

〈반야심경〉에서도, 〈백화도량발원문〉과 같이 주인공은 관세음보살이시다. 그 분은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춰 보시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셨다"라고 말해진다.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본다, 라는 말은 바로 우리 인간이 모두 '거울 속의 그림자 · 이미지' 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아마도 이러한 관점이야말로, 불교를 다른 어떤 종교나 사상과도 다르게 구별 짓는 지점인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다. 어떤 종교든, 어떤 사상이든 반드시 암묵리에 전제하고 있는 한 생각이 있다. 그것은 "나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사상을 설파하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았



그림 · 박구원

다. 기독교 · 이슬람교 · 유교에도 없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 말은 '거울 밖에 내가 없다' 는 말이다. 그럼 있는 것은? 바로 '거울 속의 그림자 · 이미지' 뿐이다. 그림자 · 이미지는 존재라 하자니 비존재이고, 비존재라 하자니 존재이다. 무슨 말인가? 그 말의 이해는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불교 수행의 가장 마지막에서야 공감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말이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존재(오온)를 비존재(공)로 말하는 데에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 존재한다는 점을 나는 말하고 싶다. 만약 팔만대장경의 모든 언어가 다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만 남길 수 있다면 나머지의 모든 가르침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오온이 공하다"라는 이 말씀 속에 다 갈무리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다시 다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거울 속에 비추어 있는 존재 · 이미지일 뿐이다. 고로 나는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사단법인 한국미륵불교 종단 등록자 (사찰) 중 제 5차 제적자 공고

- 아래 사찰 및 승려,포교사는 당 종단 정관 제6조 및 제8조에 의거 이사회 결의로 제적 공고 함.
- 제적일자 : **2012년 12월 31일.**
- 제적된 자(사찰)은 본 종단 소속 명의로 일체업무 금지, 사찰등록증, 승려증, 포교사증 효력상실.
- 사단법인 한국미륵불교 소속 사찰로 사업자등록(세무서)을 즉각 취소 및 년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금지.

NO/성명	불명	사찰명	등록번호	소 재 지
1. 이성호	금봉	소원사	A003-005	경남 거제시 연초면 죽도리 813
2. 김경민	명교	황룡사	A006-008	경남 창원시 동읍 봉산리 96-1
3. 양정식	홍각	홍각사	A004-011	부산시 진구 양정2동 64-1
4. 홍성표	도경	진욱암	A004-015	부산시 사하구 하단1동 251-10.11통1반
5. 송해식	청해	황룡사	A005-017	부산시 진구 전포2동 27-17.10통5반
6. 박용길	운봉	성불암	A007-024	부산시 남구 용호2동 521-1
7. 최길호	설봉	금룡암	A007-025	경남 김해시 삼정동 69-5
8. 한청길	서봉	송정사	A007-026	부산시 구포1동 622-4(3층)
9. 김재용	동봉	용암사	A007-027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비둘기@202동 316호
10.최해영	법성	남부산포교원	A007-030	부산시 남구 대연6동 608-817
11. 정기동	보성	약수암	A008-035	대전시 중구 사정동 산9번지
12.오화주	명봉	송암사	A008-036	대전시 중구 안영동 90번지
13.이상재	대산	폭포암	A008-040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317-84/2통1반
14.현종복	대천	천신암	A008-041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311-25
15.문형준	도성	대각사	A009-046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산97-20
16.오수암	무산	청각사	A009-047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봉화곡708-4 6/1
17.정일근	지각	동악사	A009-048	경북 예천읍 봉본2리 3
18.권대일	대일봉		A009-049	울산시 남구 옥동 182-9
19.송재인	법상		A009-050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932-2번지
20.장경식	도봉	지장암	A009-051	경남 통영시 산양면 추도리 항목35-7
21. 안성기	도선	국산암	A009-053	경북 영주시 하망동543-8 4/1
22.강태석	두봉	대영정사	A010-058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322-9
23.최종진	도행	용암사	A012-006	대구시 서구 비산5동 1233-8
24.황우덕	일동봉	대국사	A010-061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 163-36
25.한복우	정봉		A010-062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1473-1 해운대대림아크로텐2428
26.배성호	무봉	선관사	A011-064	인천시 남구 용현동 454-88
27.김영일	지오		A011-065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1253-105
28.용광천	백양		A011-066	경남 거제시 옥포2동 덕포618
29.김창순	행련	대왕사	B006-002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34-2 6/3
30.박봉순	문수	석불암	B006-003	울산시 중구 북정동 340 4/6
31.조영례	천진	연화정사	B006-00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312-4
32.한나영	덕행	진욱암	B006-009	부산시 사하구 하단1동 251-10
33.김정희	금련	선덕사	B006-020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이전리 712-3
34.지혜순	덕련	천룡암	B006-021	경북 구미시 광평동 170-4 6/4
35.김향순	향봉	보현사	B006-023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 262-14
36.문성분	대륜	보현사	B007-027	울산시 중구 교동 360-10 5/2
37.최웅연	일덕행	성우정사	B007-030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219-1
38.이상임	일련	대원암	B006-008	부산시 동래구 온천1동 77-6
39.팽성옥	성행	약수암	B007-034	경남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760-22 4/1
40.김순자	명행		B007-036	경남 진주시 상평동 275-53
41.김춘자	옥경	옥정암	B007-038	울산시 동구 화정동 662-3
42.구현자	덕화	칠성암	B007-039	울산시 동구 화정동 659-4
43.박명순	덕애	법수암	B007-040	울산시 동구 화정동 640-444
44.공정숙	정수	회성암	B008-041	경북 김천시 아포읍 대성리 338
45.김홍련	일장		B008-043	충남 당진군 신평면 거산리 199
46.김영순	일행	마산주앙포교원	B008-045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1동 11-45
47.방홍림	지련	홍련암	B009-051	경남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 49 18/1
48.윤외숙	대덕	미륵암	B009-052	대전시 동구 천1동 76-19 10/4
49.함은선	위덕	관음암	B009-053	대전시 중구 사정동 226. 41/3
50.이종연	선덕	미륵암	B009-054	경남 함양군 마천동 추성리 185
51.한나겸	반야	관음사	B010-055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70-1
52.구순연	대련	봉련암	B010-056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1동 66-5
53.우정자	원성	가상선원	B010-057	진주시 진성면 동산리 661
54.윤은숙	보적	수정암	B010-058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 327-26
55.송화진	다천	용담정사	B010- 59	창원시 지해구 석동 200-11
56.어두연	효행	옥수암	B007-035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418-1

이상 56명 제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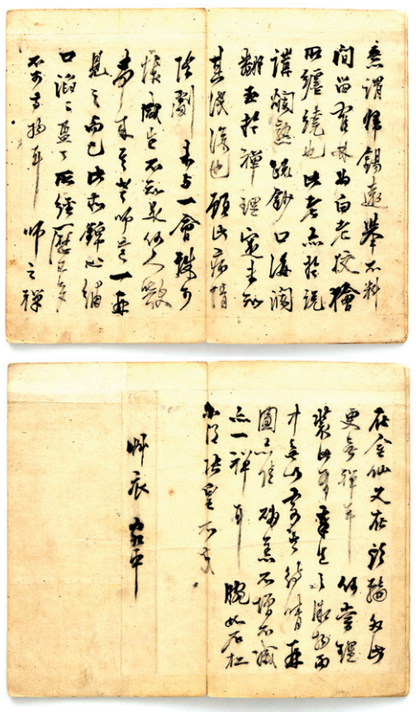
불기 2556년 12월 31일

사단법인 한국미륵불교 이사회 이사장 신용태(법련).총무원장 김판개(대력)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추사 · 신헌, 초의의 선리 옹호

백파긍선의 〈선문수경〉에 드러난 선리의 모순을 지적한 초의의 〈선문사변만어〉는 조선 후기 불교계의 가장 두드러진 선리 논쟁이다. 이 논쟁에는 추사와 신헌 같은 유학자들도 참여하여, 초의를 옹호하였는데, 이는 추사의 〈변망증15조〉와 신헌의 〈답초의선사서(答草衣禪師書)〉를 통해 확인된다. 불교계 또한 이 논쟁에 가세하여, 백파의 문손인 우담홍기가 〈선문증정록〉을 지어 백파와 다른 선의 입장을 드러냈고, 설두유형은 〈선원소류〉를 저술, 백파의 선리를 옹호함으로서 이 논쟁은 더욱 가열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어 법주사 진하측원이 다시 백파와 우담의 선리를 비판한 〈선문재정록〉을 저술, 초의의 선리를 옹호하였다. 후일 학계에서는 이 논쟁이 불교계의 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인 영향력이 미미했던 불교계에서 선리 문제를 표면화하여 논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완당전집〉〈여초의〉11신에는 추사가 백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냈다. 그의 편지를 살펴보자.



〈주상운타첩〉 추사친필본

그대가 멀리(대둔사로)돌아갔으리라 여겼기에 그 동안 학림암에 있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교활한 백파노승에게 얽힌 것이로군요. 이 노인(백파)은 강설(講說)이 화려하고, 소초(疏抄)에도 익숙하며 구변이 바다를 뒤집을 만하지만 선리에 대해서는 진정 그 깊이를 모르겠습니다. 지난날을 생각해보니 나의 병세가 깊어져 한 번도 만나질 못했으니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조카 같은 가까운) 그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을 모르셨던가요. (백파) 그 노승이 글을 가지고 와서 한 두 번 보았을 뿐입니다. 이 사람은 (시와 문장에)재주가 뛰어나고, 도도하고 당당하며 경험한 것도 이미 많아서 일일이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대의 선은 부처에서 연원된 것이고, 또 대둔사에서 연원한 것입니다. 이 외에 (참고할 만한)다른 선이 없는데, 어찌 행장을 꾸리지 않으십니까. 여기에서 보낼 작은 물건이 있습니다만 장마철이라 보낼 인편이 없군요. 날이 개이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계획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 병세는 차도가 없습니다. (이것도) 또한 선의 한 경계일 뿐입니다. 팔이 돌다리처럼 무거우니 또한 어찌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意謂歸錫遠擧 不料間留鶴林 爲白坡老狡獪所纏繞也 此老 亦於說講爛 熟疏? 口海爛翻至於禪理 寔未知其淺深也 顧此病情際劇 未與一會殊可悵 咸生不知是何人歟 帶來其老師書一再見之而已 此等 錦心繡口 滔滔盈盈 所經歷已多 不可方物耳 師之禪在金仙 又在頭輪 外此更無禪耳 何當理裝 此有奉送之微物 雨中無以寄去 待晴再圖亦佳 賤恙不增不減 亦一禪耳 腕如石杠 亦得悵皇 不式)

이 편지는 〈주상운타첩〉에도 수록되었다. 추사가 "그 동안 학림암에 있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 편지는 1838년경에 쓴 것이라 짐작된다. 이를 통해 초의가 금강산을 유람 한 후, 학림암에 머물며 백파와 선리를 참구하고 있었음이 자명해졌다. 이러한 상황을 간파한 추사는 "그대의 선은 부처에서 연원된 것이고, 또 대둔사에서 연원한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선이 없는데, 어찌 행장을 꾸리지 않느냐"하며 초의의 귀사(歸寺)를 재촉한다. 아무리 백파의 강설이 화려하고, 화엄이나 선문에도 밝아 소초(疏抄)에도 익숙한 인물이지만 선리의 깊이를 모르겠다는 것. 이어 백파와 초의의 관계가 함생(咸生)같은데 어찌 그 속을 모르느냐는 것이다. 함생은 죽림칠현의 완적과 완함에서 연유된 것, 삼촌과 조카 같은 백파와 초의, 이들의 불가(佛家)관계를 이리 표현한 것. 언구의 연의도 추사답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불교 살리기 첫걸음 삶의 현장속으로"

청보리회 김재영 법사

"부처님, 오늘 저희들은 새로 태어났습니다. 맑고 순결한 보리씨앗으로 말입니다. 이 보리 씨앗을 가꾸고 키워 이 땅에 전파하겠습니다. 황량한 이 삼천리강토 동포들의 가슴에 거룩한 보리씨앗을 전하는 불사에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1970년 7월 18일 제헌절 이튿날 서울 동덕여고 유정애 학생대표의 발원문 낭독과 함께 200명의 여고생들은 사홍서원을 합창했다.

향후 전교생 절반에 육박하는 700명이 가입한 동덕불교의 신화이자 청보리 전설로 불린 동덕여고 불교학생회인 청보리회의 탄생이었다.

1970년대 황량한 한국불교에서 청보리회는 일대 사건으로 다가왔다. 전국을 통틀어 불교학생회가 10여 곳에 불과하던 시절, 200여 중고생 불자의 탄생은 한국불교 미래를 밝히는 기폭제가 됐다.

청보리회 탄생 이면에는 당시 동덕여고 교사로 봉직하고 있었던 김재영 법사의 노력이 있었다. 김 법사는 불교는 믿으라해서 믿는 것도 아니려니와 젊은 아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더욱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방편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했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어요. 찬불가도 만들었고 봉사활동 모임, 역사탐방 클럽 등 동아리도 만들어서 아이들을 청보리회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선배들이 나서서 후배들을 끌어당기니 절로 규모가 커졌어요."

43년이 지나 김재영 법사는 "순결한 보리의 씨앗, 깨달음의 씨앗이란 의미로 지어진 청보리는 다른 청소년 포교의 붐을 일으켰다"고 당시을 회고했다.

동덕여고는 종립학교가 아니었다. 하지만 청보리회가 창립되며 바로 법회가 개설됐다. 토요일이 되면 아이들은 새벽같이 달려와 미명 속에 촛불을 밝히고 스님들을 기다렸다. 이는 1980년대 까지 활발히 진행됐다. 매달 한 번씩 마지막 토요일에 진행되는 초청법회에는 당시 불교계 선지식인 석주, 광덕, 정무 스님 등이 법사로 나섰으며 김한천, 김어수, 이종익, 선진규 등 포교사들도 가세했다. 또 목정배, 권기종, 정병조 교수 등 당시 유명 불교학자들도 청보리들을 지도하며 이끌었다.

김재영 법사는 "평론가인 조병무 선생이 나서 서정주, 박목월, 이원수, 김성동 선생 등을 모셨으며, MBC 강영숙 아나운서, 이기영 박사 등도 기꺼이 청보리회를 찾아와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셨다"고 말했다.

청보리회는 동덕불교연꽃합창단을 구성해 청소년 예술포교에도 일대 획을 긋는다. 작곡가 서창업, 반영규 선생 등이 이때 음성포교에 힘을 보탰다.

"1973년 반영규 선생 작업실서 셋이 처음 만난 후 본격적인 찬불가 운동을 전개하기로 의기투합했습니다. 나와 반영규 선생이 글을 쓰고 서창업 선생이 곡을 만들면 아이들이 함께 불렀지요."

이렇게 나온 노래가 '오라 친구여'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홀로 피는 연꽃' 등이다. 동덕연꽃합창단은 당시 TV 출연을 비롯해 어린이대공원, 육군사관학교 등에서도 합창공연을 진행했다. 여의도 최초의 제등행렬 당시에도 무대서 노래로 봉축한 이들도 바로 연꽃합창단이었다.

당시 청보리회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 중 절반가량은 무교이거나 기독교 학생들이었다. 김재영 법사는 "불교학생회 선배들이 열정을 갖고 지도했지요. 만일 신입생들이 입학하면 일일이 하나씩 찾아다니며 학생회 가입을 권유하곤 했습니다"라고 소개했다.

이런 활동은 대학생불교연합회를 통해 더욱 불을 지폈다. 동덕여고 졸업생들이 여러 대학에 진출하며 저절로 대불련 활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먼저 창립 당시 학생대표였던 유정애 씨가 동덕여대 불교학생회를 창립하고, 이어 어순아 씨가 성신불교학생회를 만들었다. 또 김복순 씨 등이 고려대 학생회를 활성화시킨데 이어 서울대, 한양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중앙대 등 여러 대학 불교학생회가 속속 생겨나면서 중흥기를 맞는다. 청보리회가 시작한 청보리 운동은 한국불교의 미래가 된 것이다.

자발적 동기 부여가 중요

7~80년대 뜨겁게 달아오른 불교 중흥의 불길이 90년대 들어서며 사그라진 이유가 무엇일까. 김재영 법사는 자발적 동기의 상실이 주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7~80년대에는 불교세가 기독교 세를 능가했습니다. 각 대학마다 제일 인기 있는 동아리가 불교 동아리였습니다. 청소년교화연합회, 대불청, 대불련 등의 단체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인 거죠. 당시에는 재가단체들도 많았습니다. 원각회, 달마회, 관음회 등도 수백명이 모이던 단체들입니다. 지금은 모두 없어지거나 활동이 미미합니다."

김재영 법사는 승속이 혼연일체가 된 것이 자발적 동기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석주 스님, 광덕 스님 등 당시 포교현장의 일선에 있던 스님들은 출재가의 높낮이가 없었습니다.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신명을 다하니 절로 흥할 수밖에요."

김재영 법사는 90년대 들어서며 조계종단이 분규사태를 겪으며 체계가 잡혀가는 이면에 위상 강화를 위해 출가승들의 권위주의가 강해졌다고 말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스님들 중심입니다. 재가자들은 기도만 하느라 바쁘고, 특히 법사들의 역할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불교는 본질적으로 자발적 동기에 의한 것입니다. 권위주의를 버려야 다른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있지요."

김 법사는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나는 상가의 지도자가 아니다.' 며 후계자 문제를 묻지 말라고 하신 대목을 예로 들었다. 김 법사는 "부처님께서는 일체 권위주의를 버리셨고, 승단 지도자로 추앙되는 것도 거부하셨다"며 "지도자가 아니라고 하신 다음 나온 말이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는 '자등명 법등명' "이라고 말했다.

김 법사는 이어 "이웃 종교의 유신적, 계급적인 것이 싫어 불교를 찾아 오지만 팽배한 권위주의를 보며 다시 불교를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스님들에 대한 존중도 자발적 동기에 의할 때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법사는 "청보리회의 활동도 어린 아이들이지만 목숨 걸고 나서서 후배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현장 지도자들의 자발적 동기를 살리는 것이 불교를 살리는 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법구경〉 문구 하나로 발심

그렇다면 김재영 법사가 불교를 시작한 자발적 동기는 무엇일까? 불교집안서 태어난 김재영 법사가 진정한 불자로 거듭난 데에는 책 한권의 힘이 컸다.

"어렸을 때는 친구 따라 마산포교당서 고암 스님 법문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불자라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불교를 널리 알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1967년부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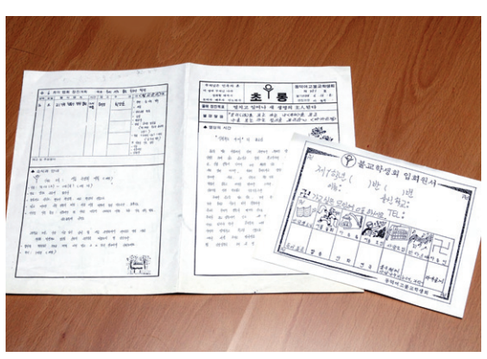
오랜 방황의 대학생기를 거쳐 동덕여고에서 교편을 잡게 된 김재영 법사는 우연히 학교 도서관에서 〈법구경〉을 접하게 된다.

"〈법구경〉의 첫 장을 펴니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 간다. 모든 것은 마음이 주인이다' 는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불교 가르침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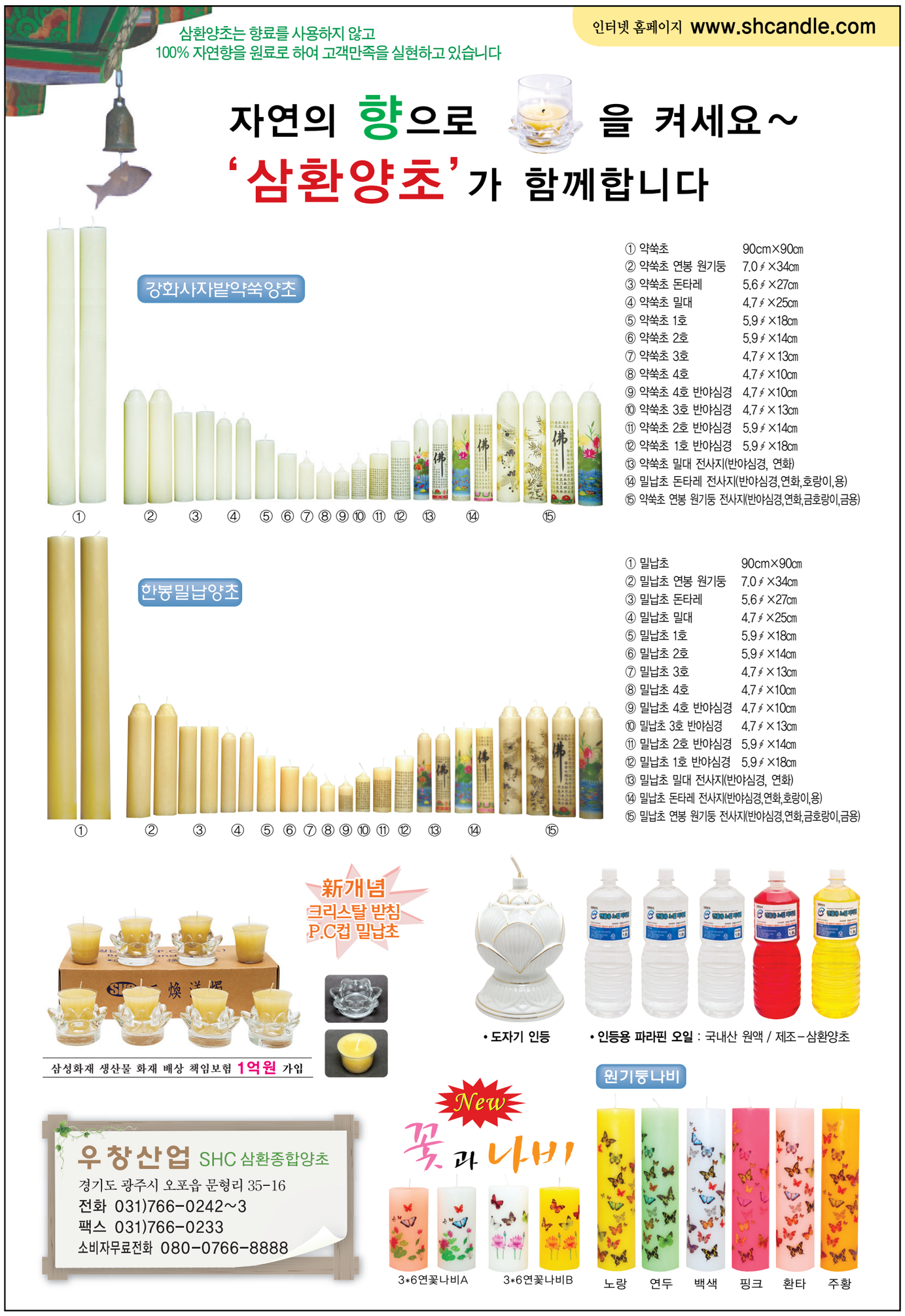
동덕여고 200명 청보리회 결성
황무지 같던 불교터전의 씨앗돼
1980년대까지 토요법회 활발
석주 · 광덕 스님 등 법사로 나서
퇴직후 불교대학 등 강의 · 집필
신행경험 100여개 불교카페에 올려
"우리 시대 유일한 해법은 불교"
불교중흥위해선 보시행 생활화 돼야



1980년대 동덕여고 축제에서 탈춤을 추는 불교학생회내 탈춤동아리학생들



당시 입회원서와 월보, 입회원서의 다양한 동아리가 눈길을 끈다.





김재영 법사는 … 김재영 법사는 서울대 사범대학 역사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졸업했다. 서울 동덕여고에서 33년간 봉직하며 1970년 이래 동덕 불교학생회와 청보리회를 조직해 현재까지 40여년 동안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연합회, 대학생불교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활동을 지도하는 한편 동방불교대학 교수로도 여러 강의에 나서고 있다. 2006년 대원상을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우리도 부처님같이〉,〈룸비니에서 구시나가라까지〉,〈초기불교개척사〉,〈붓다의 대중견성운동〉 등 다수가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1970년 청보리회를 조직한 그는 불교의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해 1973년 동국대 불교대학원에 입학한다. 당시 지도교수가 뇌허 김동화 박사였다.

"대학원 진학 동기는 너무 불교를 몰라서였습니다. 마음은 현장에 있었기에 학문이 미흡했습니다. 당시 교수님들이 많이 이해해주셨지요."

김재영 법사는 대학시절 배운 사학과 역사학이 불교를 신심을 떠나 종교를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석사를 마친 그는 1978년 현장에서의 경험을 담은 책을 썼다. 바로 〈룸비니에서 쿠시나가라까지〉다. 이 책에서 그는 부처님을 기존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설명했다. 현장에서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중심으로 포교에 대해 접근한 최초의 책이었다.

청보리회 활동을 계속 펴온 그는 현재 강연 내용을 불교 까페 100여 곳을 통해 불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청보리회 회원들은 붓다 메신저를 자처하며 이를 돕고 있다.

1999년 30여년의 교직생활을 마치고 명예퇴진한 김재영 법사. 불교대학 등에서 강의하며 불교가르침을 전파하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는 그는 인터뷰 내내 불교계 현실이 안타깝다며 열변을 토했다.

현장에서 뛰는 불교인 늘어야

"뜨거웠던 개혁의지, 이 땅의 불교,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꿈꾸던 시대정신, 현장에 직접 뛰어든 현장의식 등이 당시 불교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현재 불교를 돌아보며 이런 현장, 시대정신이 부족한 것에 안타까움을 느껴요."

김재영 법사는 "그때는 특히 스님들이 재가자들과 함께 였다"며 "석주 스님, 광덕 스님 등이 우리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전법에 나서시니 절로 흥이 났다"고 말했다.

김 법사는 현재 불교계가 교학 중심이라며 이는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불교가 현재 쇠퇴하는 요인 중 첫 번째가 교학주의입니다. 초기불교니 대승불교니 하지만 본래 불교는 이론적 학문적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현장을 다니시며 직접 삶으로 대중들을 이끄신 것입니다."

김재영 법사는 부처님이 연기법을 설한 것이 아니라 연기적 삶을 보이신 것이며 무아를 설한게 아니고 무아적 삶을 사시는 것 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상좌부 아비담마에 들어서 부처님 가르침이 교리화되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거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경전 · 교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것만 하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배웠으면 나와서 써먹어야 합니다."

김 법사는 현장에서 이웃종교 성직자들의 활동과 불교에서 스님들의 활동이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김 법사는 "교회의 경우 목사가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전화해서 상담을 해줍니다. 상이 나는 등 큰일이 터지지만 밤새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절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일부 임원급 신도를 제외하고 신도들의 집에 일이 있을 때 스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법사는 스님들이 산문 밖에 나가 대중들을 따듯하게 맞아들이는 것이 불교살리기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스님들이 문 밖에 나와서 대중들에게 먼저 손잡고 인사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에 가면 목사들부터 나와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 손잡아주고 또 챙깁니다. 이런 사소한 것 하나에서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어 김 법사는 선정주의에서도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법사는 "선방에가면 위빠사나, 간화선 등 마음을 본다고 앉아있다"며 "마음을 보면 그 것을 밖에서 회향해야 하는데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나친 출가우월주의로 인해 재가자들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말했다. 사찰 운영에서부터 때달음의 단계까지 모두 스님 위주라고 지적했다.

"우리 시대 유일한 해법은 불교가 될 것입니다. 교학도 좋고, 참선도 좋고, 출가주의도 좋습니다. 다만 잘못된 방식으로 하니 비판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경전 읽고, 참선하면 현장이 살아납니다."

재가자는 불자역할 다해야

김재영 법사는 재가자들이 진정으로 불교 중흥을 바란다면 한달에 만원씩이라도 보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영 법사는 '자비의 수레꾼' 단체를 조직해 현재 캄보디아 아이들의 학교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비의 수레꾼'은 2012년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완공했다.

김재영 법사는 "한달에 만원씩 내면 캄보디아 아이 한명을 학교에 보낼 수 있으며 아프리카 아이를 한달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법사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은 보시행 하나가 불교를 살린다"고 말했다.

김 법사는 또 "불교를 살릴려면 불자들이 1년에 1명씩 불자만들기를 전개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려면 신명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에 앉아서 오는 사람을 포교 하지 말고 정말로 불자가 아닌 사람을 찾아다니며 1년에 한명씩 불자로 만들면 불교가 삽니다. 선교사들은 7년에 1명 씩 선교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만큼 1명 불자로 만드는 것이 힘듭니다. 그들이 피땀 흘려 한국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살아난 것입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일기

교복 · 장학금 후원하며 고통 치유

자식 잃은 두 사람의 보시행

지난해 12월 24일 나는 신도 대표와 함께 우리 동네 초등학교 네 군데를 돌며 2013년에 중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에게 동 · 하복 교복교환권을 주었다. 60명의 아이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들이었다. 중학교 입학 학생들에게 교복을 준 것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교복을 지원하기 시작한 데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다.

2011년 1월 어느 날, 40대 중반의 보살님 한 분이 나를 찾아와 말했다.

"내년에는 중학교에 가는 아이들에게 교복을 좀 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미처 생각해보지 않았던 나는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라고 했다.

"우리 큰아들이 살아 있었으면 올해 고등학교에 갈 나이인데 여섯 살 때 갑작스런 사고로 잃었습니다."

늘 씩씩해 보이던 그였지만 크나큰 아픔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말이 이어졌다.

"사고 보상금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온 식구가 먹고 사는데, 늘 그 애 생각이 납니다. 그 아이에게는 뭘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으니 대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몇 명에게 교복을 해 주고 싶습니다. 제가 2백만 원을 내놓을 테니 스님이 그 일을 추진해 줄 수 없겠습니까?"

그의 눈에는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눈물이 고여 있었고 목이 메여오는지 금세 목소리까지 변하고 있었다. 터지는 눈물을 억지로 참느라고 그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자식 잃은 어머니의 소망을 어떻게 거절하겠는가.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하자고 응낙했다. 내 성격이 다소 즉흥적이어서 무작정 대답을 하긴 했지만 사실 마음 내키는 대로 무턱대고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그림 · 박구원

'공덕' '무주상보시' 상관없어 어려운 이웃 자비 손길이 중요

그해 가을, 해마다 적잖은 액수를 장학금으로 내놓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불자님을 만났다. 내년부터 중학교에 진학하는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에게 교복을 해주자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함께 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하면서 평소의 두 배 가까운 액수인 5백만 원을 내놓겠다고 대답했다.

사람을 시켜서 인근의 세 초등학교에 연락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가 몇 명인지 알아보았더니 34명이었다. 때마침 동네 부녀회에서 그 중 10명에게 동복을 해준다고 하였으므로 우리절에서는 24명의 동복과 34명의 하복을 준비했다. 비용은 총 706만원. 그렇게 시작된 교복지원 사업이 올해는 60명의 학생에게 동하복을 지원했을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교복을 처음 제안했던 불자가 말했다.

"아이를 잃고서 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항상 묵직한 응어리가 있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고통이 언제나 따라다녔습니다. 교복을 해주고 매월 장학금을 조금씩 내면서부터 조금씩 나아져 이젠 홧병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젠 살 것 같습니다."

'기꺼이 동참한 불자'도 말했다.

"자살한 아이로 인해 언제나 슬프고 우울했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장학금을 보시하고 다른 복지 시설에 후원금을 보내면서부터 우울증과 죄책감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시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진다고 많이 권합니다."

그들은 보시행을 하고 나서 아픔이 치유되고 행복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시가 육바라밀에 포함되었을 것이고 또 가장 먼저 언급되었을 것이다. 나는 신도들이 '공덕'을 바라고 하는 보시든, 아니면 아무런 조건 없는 '무주상 보시'든 그걸 문제 삼지 않는다. 내 관심은 어떡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느냐, 오로지 그것뿐이다.



한북 스님((재)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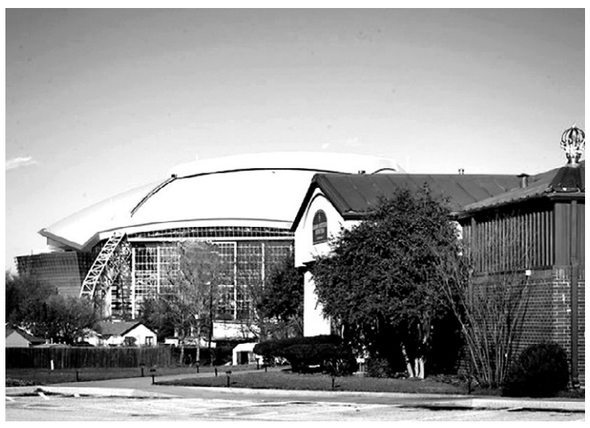
보급형 위패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 화 : 031)792-6288, 794-4055 / 팩 스 : 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알링턴 시민들 발길 잡은 불교 힐링





카담파(Kadampa) 명상센터 전경. 그 뒤로 알링턴의 랜드마크인 카우보이스 스타디움(Cowboys Stadium)이 보인다.(사진 왼쪽) 카담파(Kadampa) 명상센터 내부. 카담파 명상센터의 설립자 게쉐 켈상 가쵸(Geshe Kelsang Gyatso)의 영정과 함께 알링턴 시민들에게 명상을 가르치며 그들의 마음을 밝히고 있는 젠 켈상 잠파(Gen Kelsang Jampa • 영정 오른쪽) 스님과 켈상 초고(Kelsang Chogo • 영정 뒤쪽) 스님이 보인다.(사진 오른쪽)

美 텍사스주 알링턴에서 일고 있는 '명상 바람'

카담파 명상센터, 후옹다오 사원 … 도시민의 마음 치유한다

미국 텍사스주 북부에 있는 도시 알링턴(Arlington)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곳'으로 명상센터와 불교사원 2곳이 주목받고 있다.

스타 텔리그램(Star-Telegram)의 4일자 보도에 따르면, "삶의 상처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티벳불교계 카담파(Kadampa) 명상센터와 대만불교계 후옹다오(Huong Dao) 사원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모친을 떠나보낸 데비 필립스(Debbie Phillips · 46)는 카우보이스 스타디움(Cowboys Stadium) 인근에 있는 카담파 명상센터를 매주 토 · 일요일 방문해, 이곳에서 제공하는 명상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데비 필립스는 "바쁜 일상으로 주말에만 명상센터를 방문하고 있지만, 혼란스런 생각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며 "올 여름 휴가는 카담파 명상센터의 집중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알링턴의 카담파 명상센터는 매주 수요일 저녁과 매주 주말(토 · 일요일) 오전에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데비 필립스 씨가 참여하는 명상 프로그램에는 13명의 지원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게쉐 켈상 가쵸(Geshe Kelsang Gyatso · 명상센터 설립자) 스님이 이 설립한 카담파 명상센터에는 '도심 속 불교'라는 환경에 걸맞게 다양한 명상 ·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서점 · 카페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일상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과 종교인으로서 영혼의 길을 가는 방법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는 켈상 초고(Kelsang Chogo · 명상센터장) 스님은 "비단 카담파 명상센터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곳, 어디에서나 영혼의 길을 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항상 기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불교계 후옹 다오(Huong Dao) 사원 역시 알링턴에서 주목받는 사원이다.

스타 텔리그램은 "2011년 10월 개원하면서 3미터에 이르는 대리석 불상을 선보이며 지역 주민의 이목을 잡아왔던 이곳이 최근 명상의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시대 미국인들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 같다"는 후옹 다오 사원의 난(Nhan) 스님은 "우리는 그들에게 종교성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기에 앞서 그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나선 여정을 함께 하는 동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비불교도들이 개인적인 바람만을 사원에서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자체가 불교길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스타 텔리그램은 〈정신병리학 연구(Psychiatry Research)〉를 인용, "알링턴의 시민들이 명상에 주목하듯, 영국 의학계와 공학계에서도 명상를 연구 주제로 한 업적이 축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경촬영(Neuroimaging) 분야에서는 명상 상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뇌 영역을 다루고 있는데, 이미 기억 · 학습 · 감정 등과 연관된 뇌 영역과 명상의 상호 관계를 밝혔다는 것이다.

또한 신경과학(Neuroscience) 분야에서는 의학과 공학의 접점을 명상에서 찾는 연구를 전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마인드 피트니스 트레이닝(Mind Fitness Training)' 등과 같은 다양한 명상 관련 소프트웨어 등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스타 텔리그램은 영국 해병대 제프리 비러(Jeffery Bearor) 차장의 말을 인용, "'마인드 피트니스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현재 영국 해병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카담파 명상센터의 젠 켈상 잠파(Gen Kelsang Jampa) 스님은 "사원을 방문했다고 해서 모두 불자일 필요는 없다"며 "불교가 이국의 지역 사회에서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英 휴양도시 브라이턴(Brighton)의 정규수업에 나투신 부처님"

영국 브라이턴의 통합학교 라돈 칼리지(Rydon Community College)에서 불교문화 관련 교과목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역 매체인 카운티 타임즈(County Times)는 7일자 보도에서 "중등부 종교 관련 교과목 중에서 '불교문화' 수강을 신청한 학생들이 매학기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학기에서 불교문화를 수강 신청한 학생들은 지난 학기에 비해 8명 증가했다.
카운티 타임즈는 청소년들이 불교문화 관련 교과목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 "불교미술에 대한 소양을 쌓고, 태극권을 배우며, 윤회를 주제로 한 보드게임을 고안하고 시연하는 등 다채로운 교육 과정이 청소년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시진핑, 티베트 정책에 비관적"

롭상 "50년 역사볼때 낙관 어려워"



시진핑 총서기

티베트 망명정부가 시진핑 총서기 중심의 중국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티베트 정책에 실질적인 변화가 올 것 같지 않다고 회의를 표시했다.

인도 다람살라에 있는 티베트 망명 정부의 롭상 상가이 사장은 "새 정부가 티베트 정책에 개혁을 단행해 평화와 화합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지난 50년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기대가 실현될 거라고 낙관하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정치 협상에 진전이 없었지만, 시간은 티베트 편이라며 장기 투쟁에 들어갈 방침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홍콩 대학의 중국 헌법 전문가는 시진핑 총서기의 새 정부는 경제정책, 부패척결, 미국과의 협상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티베트 정책은 재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티베트 5개 비정부기구는 오는 10일 티베트 분리독립 요구 시위가 거셌던 지난 2008년을 기념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중국에 가짜 승려 활개… 시주금 갈취

오대산 내 사찰 2곳 폐쇄, 남성 6명 체포

승복입고 지하철서 술마시기도

임금체불 앙심품고 가짜승려 조직

중국 가짜승려 태국·홍콩에도 진출

중국 당국이 승려행세를 하며 관광객에게 보시금을 받은 남성을 체포하고 사찰 두 곳을 폐쇄했다.

신화 통신에 따르면 2월 18일(현지시간) 승려로 위장한 남성 6명이 대규모로 보시금을 갈취해 오대산(五臺山)에서 체포됐다.

중국 4대 불교명산중 하나인 오대산은 유네스코에 등재됐으며 이곳에는 50개의 사찰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두 사찰이 폐쇄됨으로써 48곳만 남게 됐다.

이번에 폐쇄 조치된 두 사찰은 오대산 행정국이 조사하고 있는 중이며, 보도에 따르면 두 사찰은 가짜 승려들을 고용해 참배객들을 속여 값비싼 향을 구입하게 하고 불교의식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대산 행정국 관리자는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오대산내 사찰과 상점들을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이 중국내에서 벌어지는 가짜승려의 활개는 일반인이 상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널리 퍼져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보시금을 갈취하는 것은 그리 큰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

2012년 4월에는 승려 두 명이 지하철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호텔에 여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이 인터넷에 공개되기도 했다.

레코드 차이나는 승려들이 북경 시내를 돌아다니며 명품과 돈으로 여성들의 환심을 사며 각각 여성 한명씩을 데리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러나 이들은 조사결과 승려가 아니라는 사실이 탄로 나면서 즉각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이들은 가짜 승려 행세를 한 이유에 대해 "단지 승려 코스프레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신분을 속인 죄로 추궁을 받았다. 당시 중국 불교계는 "불교 명예를 떨어뜨렸다"며 강한 분노감을 표출했다.

이 밖에 2010년 중국 북부의 지방공무원과 150명의 가짜승려 집단이 대치하는 상황이 국제 언론의 헤드라인으로 장식된 적도 있다.

영국 언론 가디언에 따르면 당시 중국 내몽고 자치구인 바오터우(包頭)에서 체포된 31명의 가짜 승려에 대해 나머지 승려들이 석방을 요구한 것. 이들은 내몽고 경찰서를 기습해 전화부스를 공격하고 버스로 탈출을 시도하는 등 차량 추격전을 벌이고, 중국 당국은 이러한 난동에 대처해 직원 500명을 경찰서로 보냈다.

가디언은 "이 가짜 스님 집단이 가난한 이주노동자 및 임금체불에 앙심을 품은 소작농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조직은 가짜 만병통치약을 만들어 판매하고 무술로 유명한 소림사 출신 스님 행세를 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보도했다.

가짜 승려의 행태는 태국을 비롯한 불교국가 뿐 아니라 아시아 곳곳에서 일어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2008년에는 중국에서 '승려 신분증'을 위조한 뒤 태국으로 들어가 고가로 염주나 부적을 팔거나 구걸 등 각종 사기 행각을 자행한 것. '가짜 승려'들은 태국 대도시의 번화가를 혼자 유유히 다니는 승려가 있는가 하면 노인이나 어린이를 끼워 무리를 지어 다니거나 장애인 승려로 가장해 노승은 휠체어에 앉아 있고 동승이 휠체어를 밀고 다니면서 행인들의 동정을 얻고 다녔다.

가짜 승려의 기승으로 2011년에는 말레이시아 불교단체 청정승가수호센터 (약칭 SSPC)가 말레이시아 말라카 지역의 불교 단체들이 금품을 모금하는 위장승려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시민에게 염주를 팔고있는 중국의 가짜 승려 출처=온바오닷컴

진골 척추교정법 교육 안내문

상담전화 016-560-7868

척추교정 및 인체의 균형(밸런스) 조절교육
외과전문의 및 한의사, 건강에 관심있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익혀야할 척추교정법!

MBN 천기누설 방송 (2012. 9. 20)에 소장이 직접교육시켰던 외과의사 및 한의사와 같이 출연하여, 척추변형과 오장육부 질병의 중요성에 대하여 방송에 출연한바 있음. (네이버 "진골척추" 검색 동영상으로 방송을 볼 수 있음)
소장은 2006년부터 한의사 수백여명과 다수의 외과의사들을 상대로 척추교정과 인체의 균형을 통합적으로 교육시킨 사례가 있는 교육의 전문가임. 진골척추교정법은 카이로프라틱이 아닙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가개가 온누리에 충만하시고 사중에 제반 불사가 원만 성취되시길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소승이 진골척추교정법을 창시하신 임상만 원장님과 인연이 된것은 얼마 안되지만 원장님에 탁월하신 진골척추교정법을 친견하고 참으로 놀라움을 금지 못하였습니다. 암환자, 고질적인 환자들이 고통 속에서 찾아와 척추교정을 받고 편안하고 즐겁게 웃고가는 것이 너무나 경이롭고 놀라웠습니다. 손으로 경추, 흉추, 요추, 천추을 보고 만지며 진단하여 교정하는 시간은 3~5분에 불과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과장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하여 소승도 허리, 목, 등, 전립선 등이 불편하여 교정을 받았습니다. 편하고 시원하였습니다. 정좌를 해도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감히 제반스님들께 추천합니다. 법체가 불편하신 법우님들과 불자님들께 권하오닌 진골척추 교정법과 인연지어 불사원만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
해동사 영도 동인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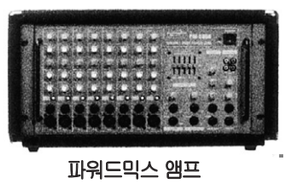
'재물을 잃는 것은 인생의 일부를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인생의 절반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듯이 세상만사 인생을 살다가 보면 피치못해 건강이 악화되어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지 못할때가 많은데요, 건강은 인간 최고의 복이요 양식이라고 불릴만큼 중요하기에 어떠한 질병이든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요.
소승도 10여년간 항시 등쪽과 오른쪽 허리가 뻐근하고 시큰 거려서 좋다는 운동법은 다해 봤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가 도반스님이 MBN의 천기누설과 방송을 한번 보라하기에 방송를 보다가 임상만 소장님의 진골척추교정법을 보면서 모든 질병과 만성병은 틀어진 척추와 골반에서 병이 온다는 임소장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직접 진골척추교정법 교육을 3회정도 받고 보니 허리와 등짝이 시원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몸소 체험한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무수한 질병을 와하시킬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30여년의 노력과 열정으로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고자 진골척추교정법을 완성시킨 임상만 소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내가족, 진적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들을 완화시킬수 있는 것은 진골척추교정법 밖에 없는는 확신을 하면서 인연이 닿는 모든 분들이 익히고 배워서 고통과 질병없는 아름다운 불국토를 만들어가시길 기원합니다.

계룡산에서 도림 합장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전국 법당의 앰프 신규설치 및 교체 전문,
사용중인 앰프, 스프커의 소리보완 클리닉!!

신제품!!
고급 엠프케이스 출시
• 가격 : 250,000원 (배송료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마이크
aV-620



• 무선 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마이크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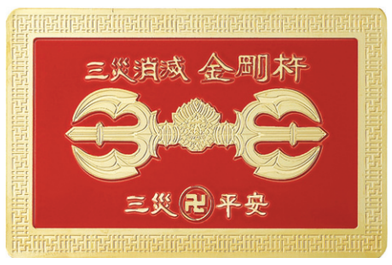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남성용 여성용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훔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훔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장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장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무브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장처리한 금장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가 격 :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2013년 양띠 토끼띠 돼지띠 드는삼재 조심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삼재소멸과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3년 드는 삼재 2014년 묵는 삼재 2015년 나가는 삼재 양띠, 토끼띠, 돼지띠 중생들은 2015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 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양띠, 토끼띠, 돼지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 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전 화 : (02)741- 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마음의 손으로 쓰는 Diary



마음 다이어리는 하루하루 내 마음의 흐름을 지켜보고 기록하며 가꾸어 가기 위한 빈 그릇입니다. 하루 중에 만난 사람들,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 속에서 들고 나는 마음들을 살펴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해 보세요.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비워낸 그 자리에 마음의 꽃을 피우면서 변화해 가는 '나'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 가격 : 1권 13,000원 (택배비 별도)
■ 문의 : 02)2004-8215

2013년 '마음다이어리'는 대행선사를 추모하며 스님의 유품과 말씀을 엮은 특별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매달 생활의 지침이 될 법어와 '임효화백'의 그림이 어우러져 다이어리의 가치와 품격을 더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의 일정과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내용 구성을 상 · 하반기로 나누었습니다.
하루의 생활을 되돌아보며 마음 그릇을 비우고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면서 마음 꽃을 피워봅시다.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부터! 자신을 완성시켜가는 여섯 가지 가치인 육바라밀과 자비를 실천하며
마음의 향기를 더해가세요-

딸에게 외치는 진솔한 백서

김숙현 작가의 연극 '앉은 사람 선 사람'



불자 극작가 김숙현〈사진〉씨의 '앉은 사람 선 사람'이 3월 20~24일까지 알과 핵 소극장 무대에 오른다. 한국 1세대 여성 극작가와 1.5세대 여성연출가와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제 1회 여성극작가전'의 작품 중 하나로 무대에 오르는 이번 작품의 연출은 박은희(남동문화예술회관 관장)씨가 맡았다.

'앉은 사람 선 사람'에는 치열한 예술가적 근성으로 당대 최고의 화가로 성공한 어머니 정여사와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육아보다는 자신의 일이 우선이었던 엄마의 그늘에서 폐쇄적으로 성장한 딸이 주인공이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출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여사와 딸의 성격형성에 절대적 영향력을 지녔던 정여사의 모친까지, 모녀 3대로 이어지는 정한(情恨)과 소통을 향한 몸부림이 줄거리를 이룬다.

김 숙현 작가는 "한 인간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면적은 얼마만큼일까라는 의문에서 연극은 시작된다. 모녀관계는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제일 가깝고 끈끈하며 운명공동체적 유대감을 지닌다. 그 속에 드리워진 간극과 균열을 파헤침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소외의식과 현대인의 내면 깊이 숨겨진 트라우마를 형상화했다"며 기획의도를 밝혔다.

한 평생을 자아실현에 몰두했던 정여사를 대신해 가사와 손녀양육을 도맡았던 친정어머니를 떠나보낸 정여사는 딸 희수가 살고 있는 뉴욕의 아파트를 방문한다. 모처럼 딸과의 정회도 풀고 예술동지로서의 유대감을 나누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엄마와 딸이 마주 앉은 풍경은 그림을 향한 그들의 작업스타일 만큼이나 단절되고 온도 차이가 나는 것이었다. 딸은 한걸음이라도 더 다가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어머니를 무참하게 따돌린다. 대중 앞에서는 당당한 예술가였으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누에고치처럼 자기 속에 파묻혀 소통을 거부하는 딸 앞에서 정여사는 여지없이 실패한 어미임이 드러나는데....

김 씨는 "이 작품은 모친으로부터 무조

현대인의 숨겨진 트라우마 형상화

3월 20일부터 알과핵 소극장서

건 받기만 했던 2세대 정여사가 3세대 딸에게 외발로 서서 외치는 진솔한 백서(白書)이자 혼신의 프로포즈라"고 전했다. (02)762-0810 정혜숙 기자



김숙현 작가의 연극 '앉은 사람 선 사사람'

흙으로 그려낸 붉은 파도의 '히말라야'

화가 이종송 'RED MOUNTAIN GREEN SEA'

"히말라야를 여행하면서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위대한 자연에서 받은 감동과 교감을 오케스트라 같은 동적인 느낌으로 표현했죠. 히말라야는 인간의 힘으로 범접할 수 없는 진리의 땅이죠. 그래서 그 경이로움은 인간의 존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남자의 여행〉으로 사찰 기행집을 낸 화가 이종송 씨(건국대 회화학과 교수)가 3월 19일까지 인사동 공아트스페이스서 광활한 히말라야를 담은 'RED MOUNTAIN GREEN SEA'전을 연다. 5년 여 동안 수차례 히말라야를 담기위해 여행을 떠났던 작가는 곳곳에서 느끼는 감동을 그대로 스케치해 사찰 흙벽화 기법의 작품으로 펼쳐냈다. 히말라야와 고대 무역로 차마고도를 오가며 인공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과 나눈 교감을 예술적 감수성으로 표현해낸 것이다.

"저는 앉아서 그리는 그림보다는 현장을 보고 그곳에서 느끼는 순간적 감정을 포착해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랑목사 탑림 등 산과 인간의 문화가 어우러진 히말라야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히말라야 역시 직접 여행을 해보고 여기서 받았던 감동을 제 방식대로 표현해냈죠"

이종송 작가 작품의 특징은 사찰벽화 기법이 응용됐다는 것이다. 작가는 그동안 '움직이는 산' 등의 연작을 통해 전통 흙벽화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주목을 받아왔다. 이는 무위사 등의 사찰 벽화 작업, 국립중앙박물관 실크로드 작품 재현 등 오랜 시간 불화 복원 작업을 해왔던 작가의 이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고구려벽화의 이미지 복원 연구'로 논문을 낼만큼 벽화복제미술 전문가이기도 한 그는 직접 황토와 석회를 가공한 소석회로 질감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그 위에 천연안료를 이용해 산의 풍경과 느낌을 담아내는 것이다.

"이번 작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인간의 존재감이었습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미비한 존재인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점에서 흙벽화 기법은 자연을 담아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었죠"

철저한 현장 사생으로 탄생한 그의 작품 속에는 히말라야와 차마고도의 식생이 고스란히 자리한다. 그리고 뜨고 지는 해를 따라 붉게 물드는 히말라야의 험준한 산세

5년 동안 수차례 히말라야 여행

거대한 자연에서 받은 감동

사찰벽화 기법으로 표현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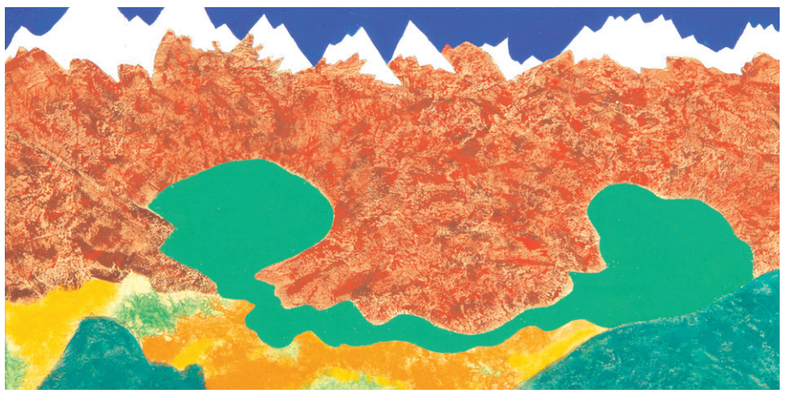
는 붉은 파도가 넘실거리는 산으로 표현된다. 또 굽이치듯 이어지는 절벽과 협곡 사이를 흐르는 옥빛의 물을 간직한 차마고도는 푸른 빛으로 넘실댄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그대로 자연을 노래하는 한편의 서사시가 되고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이다.

지난해 산문 · 그림 · 글이 접목된 사찰기행 여행집 〈남자의 여행〉을 내기도 했던 그는 절집과는 각별한 인연이 있는 작가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에서도 히말라야의 광활한 산에 구례 화엄사의 매화를 살포시 얹어 놓은 작품이 눈길을 끌었다.

"화엄사 매화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죠. 한철에 3~4번은 구례로 내려가서 꽃이 피고 지는 것을 관찰해요. 산 아래 있느냐 위에 있느냐에 따라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니 그 미묘한 아름다움을 포착하기 위해 봄만 되면 화엄사를 오가곤 하죠"

봄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3월의 봄날. 작가는 또 매화를 보기 위해 화엄사로 발길을 돌릴지 모른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의 찰나를 스케치해 또 다른 자연의 세계를 화폭에 담아낼 것이다.

이종송 화가는 서울대 미술대학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했다. 제 12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제 10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건국대 회화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02)737-5527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이종송 작가는 3월 19일까지 공아트스페이스에서 'RED MOUNTAIN GREEN SEA'전을 연다. 이 씨는 이번 전시에서 사찰벽화 기법으로 히말라야를 담아냈다.

사진으로 그려낸 수묵 산수화

박정훈 사진전 숨도갤러리서

"이번 작품은 수묵산수화의 현대성 보다는, 그것이 주는 의미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 일상의 번잡함을 잠시 잊고 바라보는 별세계 말이다. 하지만 이 세계는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먼 산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따름이다"

사진가 박정훈 씨가 3월 31일까지 불교진흥원 숨도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연다. 사진으로 수묵화를 그리고 싶었다는 작가는 우리 산능선의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담아냈다. 박 씨는 "산 정상에 올라가 맞은편 산을 당겨서 사진을 찍어죠. 그러면 산봉우리가 아래에 허공이 위로 드러나게 되죠. 여기에서 뭉실 뭉실한 우리 산의 아름다움과 어우러진 여백의 미가 나타게 되죠"라고 자신의 작품을 설명한다.



박정훈 작가의 '먼산'

서울 인근의 산에 올라 좌선도 하며 산을 그대로 느낀다는 박정훈 씨. 작가는 그의 작품이 사진이라고 해도 좋고 수묵화라고 해도 좋다고 말한다. "묵의 느낌이 나도록 작업을 했으니 무엇이라 말해도 좋습니다. 그저 관람객들에게 자연이라는 하나의 창을 내어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정혜숙 기자

빛으로 피어난 깨달음의 세계

부산시민회관서 3월 17일까지 동휘스님, '해피만다라전'

만다라 수행에 앞장서 온 동휘 스님의 '빛나는 부산, 해피만다라' 전시회가 부산시민회관 한슬갤러리에서 개최된다. 3월 17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깨달음의 빛이 탄생하는 곳,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한국불교의 메카, 불교 도시 부산에서 개최된다. 여기서는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를 빛으로 피어낸 만다라와 동휘 스님의 옴 불꽃 200여 점이 선보인다.

해피만다라문화원 원장 동휘 스님은 "깨달음의 세계를 빛으로 피어낸 것이 만다라다. '옴'자는 그 빛의 씨앗이다. 그리고 태극은 음과 양이 만나 생명을 생성하는 빛의 공장과도 같다. 이처럼 부처님의 깨달음의 빛인 '옴'과 태극 도상을 통해 우리나라가 전세계를 밝히는 빛의 중심임을 알리고자 이번 전시회를 준비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만다라를 통한 수행과 문화포교에 매진해온 동휘 스님은 "만다라는 눈으로 보는 깨달음의 세계다. 만다라를 그리거나 명상체험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는 방법이 바로 빛나는 수행, 해피만다라 수행법이다. 이번 부산 전시회에 인연 있는 부산불자들이 만다를 통해 마음의 눈이 뜨고 부산불교가 세계속의 빛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대학에서 서양미술을 전공한 동휘 스님은 수덕사 견성암 정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 티베트에서 추상 린포체를 만나 만다라를 처음 접했다. 이후 20여년 동안 세계 각국의 만다라를 수집, 소장하거나 직접 조성했다. 현재, 강원도 홍천 여래사에서 만다라 수행과 문화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기간 중 동휘스님의 옴자 퍼포먼스, 모래만다라 시연, 그리고 매일 오후 2시 법문도 진행된다. (033)434-7332 박경수 부산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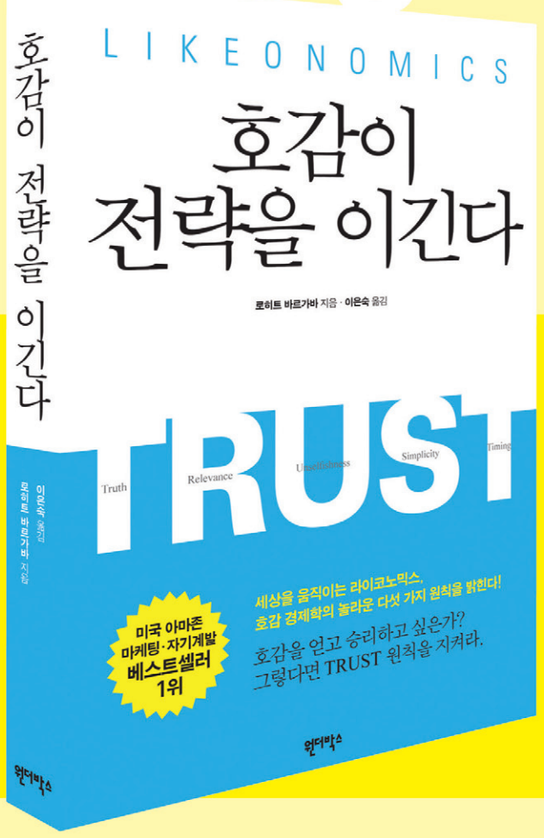


만다라 작업중인 동휘 스님.

"호감 경제학(likeonomics)은 2012년에 회의실을 뒤흔든 가장 주요한 네 가지 마케팅 용어 중 하나이다." - ≪마케팅 위크≫

LIKEONOMICS

호감을 얻고 승리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TRUST 원칙을 지켜라!



미국 아마존 마케팅·자기계발 베스트셀러 1위

세상을 움직이는 라이코노믹스,
호감 경제학의 놀라운 다섯 가지 원칙을 밝힌다!

더 이상 기업과 마케팅, 광고를 믿지 않은 신뢰성 위기의 시대에 호감을 얻는 자만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 탁월한 마케팅 전문가 로히트 바르가바의 이 책은 호감을 얻고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주요 원칙을 통해 비즈니스에서 남보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로히트 바르가바 지음 | 이은숙 옮김 | 328면 | 값 15,000원

지혜로운 생각으로 가득한 이 책을 통해 시장에서 좀 더 개방적이고, 다가가기 쉬우며, 신뢰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성공을 찾아가길 바란다. - 다니엘 핑크(『드라이브』, 『새로운 미래가 온다』의 저자)

일에서든 인생에서든 성공에 이르는 길은 크게 다르지 않다. 두 가지 모두 성공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라! - 디팩 초프라(『성공을 부르는 일곱 가지 영적 법칙』의 저자)

거칠고 지배적인 사람이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다. 호감 경제학의 시대에서는 인간관계가 최고다. - 조너선 베허(SAP 최고 마케팅 책임자)

신뢰와 의사 결정을 좌우하는 호감도의 영향력과 이 책을 뒷받침하는 개념이 정말 맘에 든다! - 오리 브래프먼(『스웨이』, 『클릭』의 저자)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운에 맡기지 말고 이 책과 저자의 온라인 워크북을 곁에 두어라. - 헬린 리(『오픈 리더십』, 『그라운드스웰』의 저자, 알티미터 그룹 설립자)

원더박스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원더박스는 불광출판사의 일반 교양 브랜드입니다.

우리의 강은 어디로 갔을까

내성천 지킴이 지율 스님 다큐 영화 제작


지율 스님의 다큐영화 '모레가 흐르는 강'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우리가 걸었던 아름다운 강이 어디 갔나요?' 하고. 그 허망한 질문이 내가 가진 희망의 전부였다"

내성천 지킴이 지율 스님의 4대강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모래가 흐르는 강'이 3월 28일 광화문 인디스페이스, 신사동 인디플러스 등에서 개봉한다. 영화 '모래가 흐르는 강'은 지율 스님이 2008년 4대강 착공식 뉴스를 보고 산에서 내려와 물길을 따라 걸으며 내성천의 변화를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다.

지율 스님은 "억만년 이어져 내려온 자연의 물길이 위험에 처해있고 그 재앙에

조계종 3월 14일 영화 시사회

3월 28일 극장 개봉

대한 경고가 하루도 빠짐없이 논의되고 있지만 자신이 태어난 국토가 겪는 아픔의 현장으로 향하는 발길은 너무나 드물다. 단풍놀이를 즐기는 100명 중 한 명이 불꽃놀이를 즐기는 1000명 중 한 명이라도 강으로 발걸음을 돌린다면 정부가 어떻게 무모하게 국토를 파헤치는 사업을 감히 생각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라며 영화를 만든 기획의도를 말한다.

영화는 강에서 그려지는 아름다움은 4대강 사업과 영주댐 공사로 파괴되어가는 모습과 대비를 이루며 '강은 우리에게 무엇일까'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또한 자연을 폭력적으로 대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되돌아보게 한다. 그리고 우리를 자연스럽게 생명과 자연, 환경에 관한 성찰의 길로 인도한다.

이에 조계종은 3월 14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시사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이웃종교인, 서울의 주요사찰 주지스님들과 신도대표, 환경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감독인 지율 스님 인사 후 75분간 영화를 관람한다.

영화를 후원하는 조계종 사회부는 "3월 28일 극장 개봉 후 반응이 좋으면 장기 상영이 결정된다. 그런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준다면 이번 영화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율 스님은 시사회와 함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갤러리 나무에서는 내성천의 모습을 담은 '내성천 왕버들 군락과 조각 사진전'을 3월 31일까지 연다. 스님은 내성천 강가에 자리잡은 야생 버드나무 군락과 골재 채취로 무너져가는 내성천의 모습 등 총 40컷을 선보인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성덕대왕신종 영어로 해설해줘요

경주박물관 토요뮤지엄 투어 운영


경주박물관의 토요뮤지엄 프로그램에 참가한 외국인들.

국립경주박물관은 3월 9일부터 외국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시품 영어 해설 프로그램인 '토요 뮤지엄 투어(Saturday Museum Tour)'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가 외국인 관람객과 함께 각 전시실을 순회하며 성덕대왕 신종 불상 등 전시품에 대한 영어 해설은 물론, 참여자가 질의응답을 하며 우리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국립경주박물관은 3월 9일~11월 30일까지 토요일 오후 1시 30분~ 2시 30분까지 60분간 국립경주박물관 정문 앞에서 진행된다. 비용은 무료이며 박물관 자원봉사자가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설을 맡는다.

2005년 가을부터 신라문화와 국립경주박물관의 중요 전시품을 널리 알리고자 시작된 '토요 뮤지엄 투어'는 매년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경주 박물관은 "지난해 '토요 뮤지엄 투어'에 참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신라 및 한국의 역사와 문화, 아름다운 문화재를 알게 되어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대체적이었다. 특히 금관, 성덕대왕신종, 불상 등이 인상 깊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054)740-7536

정혜숙 기자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삼세불(三世佛) → '아미타-석가-약사 三佛' ㊦

영원한 시간 속 과거 현재 미래는 '분별'


상주 영흥사 괘불탱(1684년) 중요부문. 석가-아미타-약사 삼불.

삼존불(三尊佛)이라는 용어는 석가삼존, 아미타 삼존 등이라 하여 좌우에 협시보살이 함께 있을 때 이르는 용어이고, 석가여래를 중앙에 봉안하고 좌우에 아미타여래와 약사여래 를 두어 세 분을 함께 봉안하였을 때 이르는 용어는 아직 없다. 그렇다고 삼불(三佛)이라 부르기가 어색하니, 〈아미타-석가-약사 三佛〉라 임시로 만들어 본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조각이나 불화에 자주 나타나는 세 부처님 형식을, 학계나 일반인들 사이에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불(三世佛)'이라 널리 쓰이고 있으며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불상들의 명칭으로 삼고 있다.

석가여래 현신에 시간성 부여 '독특'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삼세불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절이나 가면 대부분 주련(柱聯)에, '佛身普遍十方中' '三世如來一切同'이란 말을 새기거나, 짧게는 다음과 같이 '十方三世諸佛一切同'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불신이 무한한 공간에 가득 찬 가운데 시간적으로 영원한 여래들은 모두 같다는 말이다. 시방은 동서남북을 다시 사이마다 방향을 하나씩 더 두어 팔방(八方)으로 하고 상하(上下)를 합하여 우주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무한한 우주 공간과 영원한 시간을, 동서남북과 과거-현재-미래로 부르는 것은 분별심에서 나온 말이다. 즉 관념적이어서 불상으로 표현할 수 없다.

이 무량한 여래들은 결국 석가모니의 분신, 즉 현신이므로 삼신불 가운데 비록 법신이 가장 위상이 높아서 항상 중심에 존재하나 법신도 결국 석가모니여래가 설한 진리이므로, 가장 중요한 근본적 여래는 석가모니여래라 할 수 있다. 인간으로 태어나 여래가 된 유일한 존재이다. 응신이며 동시에 법신인 석가여래를 중심에 두고 보신들인 동서 정토의 여래인 약사와 아미타를 좌우에 둠으로써 '佛身普遍十方中 三世如來一切同'이란 불신관을 압축하여 나타낸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도상이 탄생한 것이다. 시방불(十方佛)이란 용어가 없는 것처럼, 삼세불(三世佛)이란 용어도 없다.

우리는 우선 삼신불(三身佛)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작금의 삼세불의 해석이 얼마나 그른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삼신불을 완벽히 파악하려면 그다지 쉽지 않다. 법신-응신-보신이라는 삼신불에서, 법신(法身)은 형상이 없으므로 눈으로 볼 수 없다. 비로자나는 삼천대천세계에 충만한 '생명의 빛'이다. '진리의 빛'이다. 그러나 비로자나의 화신이 삼라만상이어서, 삼라만상이 비로자나 아닌 것이 없다는 절대적 진리에 이른다. 나의 조형적 이론에 따르면 영기화생 아닌 것이 없다는 말과 같다.

시간과 공간 개념 바른 이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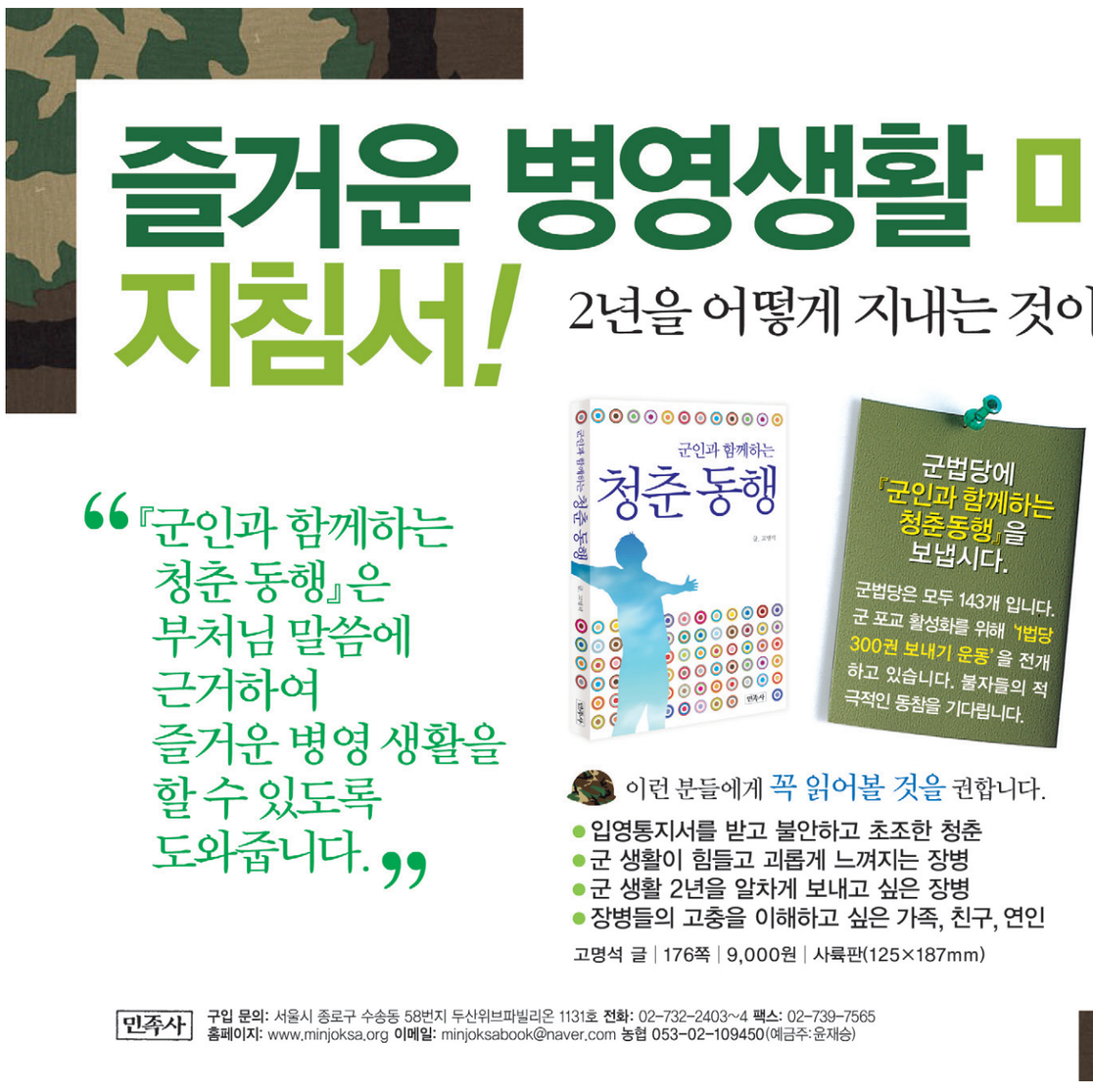
법신이 인간의 몸으로 화신한 응신(應身)의 대표적 존재가 석가모니이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무상정등각을 성취한 유일한 여래이다. 그는 열반에 들어 과거의 존재로 되어 버렸지만 그 여래가 설한 법이 바로 경전이고 법신이다. 그러므로 법신과 응신은 뗄 수 없는 하나이며 영원한 현재성을 띤다. 더구나 대승사상이 흥기하면서 석가여래는 영원한 현재불인 근본불이 된다. 보신(報身)이란 보살로 있었을 때 서원을 세워 실천한 결과로, 즉 그 과보로 여래가 된 분이 바로 보신불들이다. 즉 약사여래, 아미타여래 등이다. 현재 삼천대천세계마다 그 정토를 주제하는 여래가 있으니 그 수가 무량하다.

방향에 따라 동방 유리광세계에는 약사불이 계시고, 서방 극락정토에는 아미타여래가 계시고, 남쪽과 북쪽은 정해져 있지 않아 여러 설이 있지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므로 세계는 동과 서로 축약되어 동서(東西)가 세계를 상징을 한다. 지구의 세계가 동양과 서양으로 양분되듯이. 그래서 석가여래 양쪽에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가 함께 있어서 우주에 충만한 여래를 상징하는 것이다. 보신이란 원래 현재불이다. 현재 동방정토에 약사여래가 계시고, 서방정토에는 아미타여래가 계시다. 현재 사바세계에는 석가여래가 계신다. 약사여래는 과거불이 결코 아니다. 아미타여래는 미래불이 아니다. 미래불은 미륵불 한 분 밖에 계시지 않는다. 불경을 읽으신 분들은 모두 아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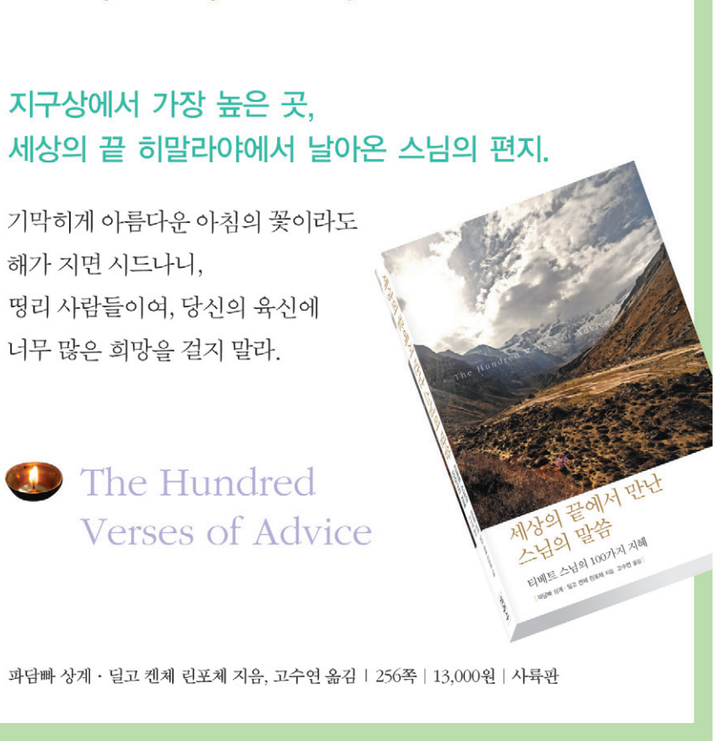
논문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삼세불이란 말을 쓰고 있어서 그 진원지를 알아보니 문명대(文明大)씨였다. '불교의 시간과 공간 개념을 파악하지 못한 채 아무 증거 없이 작의적으로 약사여래를 과거불로, 아미타여래를 미래불로 만들어 삼세불로 만드는 것은 너무도 큰 오류이다.' 종교계에서 연구하여 올바른 용어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로 남긴다.



강우방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늘 '미래' 인 어린이 마음에 부처님 지도를…



나도 부처님 될래요!
-위대한 진리의 영웅,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
홍사성 글 · 엄수지 그림
불교시대사 펴냄
1만원

아주 먼 옛날 선혜(수메다)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는 큰 서원을 세우고 몸과 마음을 바르게 닦았습니다. 어느 날, 디빵까라 부처님(정광여래 · 연등불)이 마을에 오셨습니다. 선혜는 부처님께 연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디빵까라 부처님이 진흙 위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얼른 옷을 깔았습니다. 진흙이 다 가려지지 않자 머리를 풀어 덮었습니다. 디빵까라 부처님이 선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구나! 선혜야. 너는 반드시 세상에 부처님이 되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리라." 그리고 부처님이 세상에 오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부처님의 생애는 그렇게 시작됐다.

이 책은 어린이들에게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기 위한 어린이법회용 교재다. 책은 부처님의 전생으로부터 시작되는 부처님 일대기를 12개월 52주 동안 한 주에 한 단원씩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첫 째 달은 전생과 탄생, 둘째 달은 어린 시절, 셋 째달은 출가, 넷 째 달은 고행, 다섯 째 달부터 마지막 달까지는 설법으로 전도 및 교화하시는 내용이다.

부처님(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디빵까라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까지 생의 중요한 대목들을 요약해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구성했다.

단원이 끝날 때마다 '내용 익히기'를 통해 각 단원의 핵심을 복습할 수 있게 했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일들을 제시해 책이 '책'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있는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내용 익히기'에 이어 '부처님 말씀 외우기'에서는 〈법구경〉에서 가려 뽑은 부처님 말씀을 하나 씩 소개하고 있다.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단원과 단원 사이에는 삽화를 붙였다. 마지막엔 어려운 낱말을 모아 풀이해 주고 있다.





쉽고 재미있는 '부처님 생애' 교재
감동의 일대기 52단원으로 정리
내용 익히기 · 부처님 말씀 외우기도

글은 오랫동안 불교신문 등 불교계 언론사에서 일하고, 현재는 〈불교평론〉이라는 잡지를 만들고 있는 홍사성 선생이 썼다. 어린이를 위한 책인 만큼 이야기마다 삽화를 붙였는데, 삽화는 일러스트레이터 엄수지 씨가 그렸다.

책은 우리 불교의 미래가 걸린 어린이 포교를 돕고 어린이 법회 활성화를 위해 출간 됐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추천의 글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막을 건너는데 꼭 필요한 지도와 나침반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수행하고 실천하면 누구든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려서부터 배워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에 지도를 그려 넣어야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어린들이 부처님의 일생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한 번에 한 단원 씩 꾸준히 공부하면 금방 부처님과 친해질 것입니다. 또 부처님은 어떤 분이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책으로 공부한 모든 어린들이 부처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며 출간의 의미를 해석했다.

꾸시나가라에 어둠이 찾아 왔습니다. 때마침 2월의 보름달이 둥그렇게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은 사라나무 아래에 누워 계신 부처님을 비추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 동안 혹시 내 행동에 잘못은 없었느냐?" 제자들은 조용했습니다. "내가 가르친 것 가운데 잊어버렸거나 모르는 것은 없느냐?" 이번에도 제자들은 조용했습니다. "물어볼 것이 있으면 말해라." 아난다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 누구를 스승으로 삼아 공부해야 합니까?" "내가 가르친 진리를 스승으로 삼아라.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의지해라. 모든 것은 덧없이 흘러간다. 부지런히 공부해야 한다." 꾸시나가라의 사라나무 아래에서 부처님은 조용히 열반에 드셨습니다. 위대한 스승 부처님은 가셨지만, 그 가르침은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우리들 마음속의 어둠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책은 부처님의 열반으로 끝난다. 어린이는 불교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미래다. '어린이'는 늘 '미래'인 것이다. 책은 우리의 미래가 걸린 어린이들이 가는 길에 등불이 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책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불교에 처음 입문한 초심자들을 비롯해 모든 불자들에게도 좋을 책이다. 핵심 위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발심의 기회와 점검의 기회를 준다. 부처님 열반 후 수없이 많은 경전들이 만들어져 전해온다. 〈나도 부처님 될래요!〉 역시 '경전'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27 ~ 3/5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지궁현지사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닦는 마음 밝은 마음(개정증보판)	김재웅	용화
4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5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6	지금 당장	도법	다산초당
7	허공을 타파하여 마음을 밝히다	선화상인	불광출판사
8	염불수행대전	주세규	비움과소통
9	지혜로운 삶 (신심명 강설)	우학	좋은인연
10	한국고대정토신앙연구	현송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힐링, 이제 만다라로

만다라 미술치료 워크북
-김영옥의 이야기가 있는 미술치료기법

김영옥 지음 | 비움과 소통 펴냄 | 1만4천원



보기만 해도 치유를 일으키고 스스로 감정이 정화되는 그림은 없을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반복적으로 보는 것만으로 보는 순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좋은 책들을 읽고 음미하거나 좋은 그림을 보러 미술관에 들릴 수 없는 현대인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직면한 학교폭력과 게임중독은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만다라 미술치료 워크북이다. 저자인 김영옥('마음자리 그림 숲힐링센터' 원장)은 다섯 차례의 만다라 개인전과 미술치료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한 〈김영옥의 이야기가 있는 미술치료기법〉을 출간한 바 있다.

인도의 고대 언어인 산스크리티어로 만다라는 '완전한 세계' 또는 '치유능력을 가진 원 모양'을 뜻한다. 불교에서는 만다라가 인간과 우주의 전체성을 상징한다고 본다. 만다라를 통해 불교적 우주관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불교의 보살들과 신들의 세계 그리고 그 구조를 신비로운 도형과 세상의 5가지 존재 요소인 땅, 물, 불, 바람, 하늘을 상징하는 5색 백, 청 황, 적 녹을 사용하여 기하학적인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수행자들은 만다라를 깨달음을 얻기 위한 명상의 수단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즉, 만다라는 깨달음의 경지가 시각화된 것이다.

만다라는 종교적 의식과 관련된 축성적인 부분 그 이상을 의미한다. 만다라는 그 전체적인 발산과 재흡수의 과정 속에서 우주를 표현 한 것이다. 만다라는 세상의 본질들을 기하학적으로 형상화 하는데, 특히 그 중심점의 심오함과 중요성은 아주 오래 전부터 받아들여져 왔다. 왜냐하면 그 신비한 힘의 중심이 인간의 중심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주의 복잡함과 진화의 패러다임이 표현 된 것이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서양인들에게 만다라를 소개했다. 융은 만다라의 기본적인 구조를 서양의 연금술적인 전통과 결합시켜 만다라를 재정립했다. 융은 만다라가 지니는 우주적, 영적 의미를 발견하여 만다라가 인간 내면에 주는 의미를 탐구했다. 융은 만다라를 단순히 이론적, 객관적으로 연구를 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 내면의 번뇌와 개인적 문제를 만다라 그리기를 통해 치유한 학자다.

워크북은 기존에 해오던 회화가 아닌, 드로잉(색보다는 선으로 묘사하는 그림)으로 더 넓고 가볍고 소통하고자 했다. 저자는 약 5년 간 명상을 통해 무의식으로 들어가 4천 장이 넘는 드로잉을 그려내고, 수작업을 통해 만다라 문양을 건져냈다. 무의식의 세계가 만다라 그림으로 펼쳐졌고, 이 드로잉에서 색채를 빼고 선을 따는 방식으로 의식화 한 것이 만다라 도안이다. 워크북에는 원형, 변형, 확장 만다라를 비롯해 새, 용, 식물, 꽃, 사람, 눈동자, 꿈 이야기, 상상의 세계 등 다양한 만다라 문양과 그 모체가 된 드로잉이 한 쌍으로 실려 있다. 완성도 높은 그림을 나열하여 마음이 끌리는 대로 느끼는 가운데 격한 감정을 이완시키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기만 해도 마음에 힘을 얻고 생명의 원동력이 길러지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나약했던 마음에서 벗어나 자아가 건강해지고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드로잉회화로부터 나온 문양은 독자를 집중, 몰입을 거쳐 명상의 길로 안내하고, 이 과정이 독자를 치유로 이끈다. 저자는 만다라를 감상하고 색칠하며 힐링을 느껴보라고 말한다. 매일 수행하듯이 그려진 만다라 드로잉은 독자들을 깊은 명상과 치유의 세계로 이끌 것이라고 말한다.

박재완 기자

카메라로 보는 세상, 나

카메라로 명상하기

임민수 지음 | 송미옥 사진 | 비움과 소통 펴냄 | 1만4천원



"사진 한 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멈춰 서서 생각합니다. '나는 조금 전, 왜 사진을 찍었는가?' 어떤 행위 중에 있는 나의 생각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라본 것에 대한 시각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사진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사진 찍기를 하는 나를 잠깐 멈추고, 찍은 사진을 통해 나의 행위를 살필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손에 든 채, 눈앞에 펼쳐진 것과 사진으로 찍힌 것의 차이를 확인하고,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그것이 가능합니다."

책은 사진가인 저자가 '사진'이란 작업을 통해 얻어진 사색과 성찰의 순간들을 깊이 있게 정리한 것으로, '카메라 명상법' 또는 '사진으로 하는 명상법'이다. 카메라를 성찰의 도구로 활용, 다른 사람의 눈으로 중계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의 세상과 나를 다시 보는 방법을 안내한다.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을 겪지 않을 수 없으며, 어떤 상태

카메라를 성찰의 도구로 활용
'사진찍기로 선문답하기' 등 소개

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거들떠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말한다. 간결한 글과 사진들이 사색을 시작하게 하고, 저자가 사진을 찍으면서 실천한 명상의 방법들이 '카메라로 명상하기'의 구체적인 안내를 해준다.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이 그 말을 듣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말-듣는 사람'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 말은, 말한 사람이 주인일까요, 들은 사람이 주인일까요? 〈중략〉두 사람이 사진 찍기를 통해 대화를 시도합니다. 한 대의 카메라만을 이용해서 사진 찍기를 하는 것입니다.〈후략〉"

카메라 명상은 소수의 훈련된 사진가나 전문 사진가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카메라를 손에 들고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카메라 명상의 장점이다. 저자는 "카메라 명상을 통해 사소해 보이는 일상에서 우주를 발견하고 내 속의 부처가 있음을,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몸의 경험을 통해 직접 깨달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무방비 상태로 사진 찍기'를 비롯해 '사진 찍기로 선문답하기', '노 파인더(파인더를 보지 않고 촬영하는 기법)로 사진 찍기', '사진 속 내 시선 들여다보기', 찍은 사진보고 글쓰기', '암실에서 현상한 자화상', '흑백사진 그림책', '리얼 월드에서 바라본 매트릭스', '미래에서 바라본 현대의 문화' 등 구체적인 카메라 명상법을 소개한다.

박재완 기자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선문염송 21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바른 신앙과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031-534-3373

'직지直指'는 깨달음에 대한 선禪의 교과서
덕산스님의 안목으로 푼 선문답의 세계
자유인의 길 직지심경
마음의 해탈을 얻은 선종 조사들(직지 상권)
자유인의 길 직지심경
덕산 역해 | 신국판 | 흑백 | 320쪽 | 14,000원
염불선으로 풀이한 선문답의 세계(직지 하권)
영원한 행복의 길 직지심경
덕산 역해 | 신국판 | 흑백 | 496쪽 | 19,500원
직지불교대학 초대학장에 취임한 덕산스님
본래마음 깨닫게 하는 '직지' 정신 선양 나서
《직지심경(直指心經)》은 고려시대 백운경한(白雲景閑) 선사가 펴낸 공안(公案: 화두) 위주의 선문답집이다. 과거 7불(佛)의 오도송, 석가모니불로부터 법을 받은 가섭존자로부터 28조 달마 스님까지의 게송이 들어있고, 중국 200분 선사들의 법어와 선문답, 일화가 들어있다. 3월 4일 직지불교대학에 취임한 덕산 스님(청원 혜은사 주지)이 염불선의 깨달음 체험을 바탕으로 〈직지〉 상권과 하권을 알기 쉽게 풀이했다.
청주 직지불교대학 070-7675-1080
출판 및 법공양(특별할인) 문의 02-2632-8739 | 비움과소통 buddhapia5@daum.net

초절전형 슈퍼에너텍 전기 보일러
전국 사찰 300여곳 시공
지열히트펌프 냉 난방 기름값의 90% 절감
월난방비 40평 약 15만원(겨울철 기준)
난방모드
겨울철 외기에 의해 차가워진 실내공기를 땅속의 따뜻한 지열을 이용하여 난방
냉방모드
여름철 외기에 의해 더워진 실내공기를 땅속의 차가운 지열을 이용하여 냉방
태양광 발전사업 최고의 안정성 · 수익성
노후에 "연금이 따로 있나? 태양광이 연금이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개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여 안정적 소득 창출과 향후 노후대책은 물론 지속적으로 수입을 12년 동안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100Kw 발전 기준시 년소득 약 5,000만원 (불자우대)
내일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慧峰 합장
직통 011-335-6389, 대표전화 1688-5687

박사학위논문 단행본으로

근현대 한국 비구니 문중 흐름사



한국의 비구니 문중
하춘생 지음
해조음 펴냄
2만3000원



신라때 모례의 누이 사씨가 첫 비구니
현재 한국비구니 형성 문중은 10여개
비구니 승가 위상정립 방안 8가지 제시

한 분야서 20년 이상 연구에 매진한 사람은 분명 장인정신이 투철한 이다. 이번에 동국대서 박사학위를 받고 최근 논문초록을 모아 책을 펴낸 하춘생 박사(사진 · 우성불교학콘텐츠연구소장 · 동국대 불교대학 외래교수)도 그런 인물중 하나다. 불교계에서는 드물게도 '비구니 스님'에 대한 연구에 집중해왔다.

그동안 쓴 논문들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한국 근 · 현대 비구니의 문중형성과 그 의의〉 〈근 · 현대 비구니사의 전개와 문중확립〉 〈비구니 본공의 선풍진작과 법맥상승〉 〈한국 근 · 현대 비구니의 강맥전승과 그 의의〉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이번 책인 〈한국의 비구니문중〉도 그런 연장선상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저자의 지인들은 "전생에 비구니 스님이 아니었을까"라고 얘기한다고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비구니승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져야 하는 당위성은 교단내 인격 평등성을 구현해 불교의 발전적 미래를 담보해야 한다는 소명"때문이라고 서문에서 밝힌다.

즉 현재 한국불교의 현실인 비구 중심의 교단운영체계로는 부처님 근본 가르침인 화합승가의 구성이 어렵다고 봤다.

그래서 저자는 우선 비구니 문중을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문중의 실체를 드러내고 문중별 법계 현황을 밝혀내면 족벌의식 운운하는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비구니 승가의 위상정립과 불교발전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서다.

저자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의 사료 연구를 통해 신라에 불교를 전한 아도화상을 은거시켰던 모례의 누이 사씨(史氏)를 한국불교의 첫 비구니로 꼽는다.

이후 고려시대에는 국가의 출가승인제도에 의거해 대체로 왕실 또는 지배층의 비구니원이었던 정업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저자는 고려말 정업원의 주지 묘봉 · 묘덕 · 묘간 · 묘신 등 수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출가한 사실도 밝혀낸다.

하지만 조선시대 숭유억불의 시대적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급기야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비구니 스님 배출의 산실이었던 왕실비구니원이 자취를 감춘다. 그러나 조선후기 이후부터 비구니 스님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근현대로 접어들며 비구니 고승들의 출현을 예고한다.

이 책이 전문학술서로서 빛을 발하는 대목은 바로 한국불교사상 최초로 근 · 현대 비구니 세계의 전개방식과 현황 및 문중형성은 물론 계보까지 상세히 밝혀 낸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오늘날 한국 비구니승가를 형성하는 문중은 청해 계민 법기 삼현 수정 봉래 육화 실상 보운 일엽 보문종 등 10개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들 문중은 각각 초조 내지 개창조를 세워 문중계보를 정리하고 세계를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고 말한다.

이어 저자는 한국 비구니 승가는 근현대기를 지나며 독립적 위상을 확보한 가운데 스스로 지율, 지선, 지혜자로서의 위의를 확보하고 함께 출가본연의 전통 승풍을 크게 진작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저자는 비구니의 문중형성이 던져주는 한계와 과제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그리고 합리적 대안도 제시한다. 우선 각 문도회가 추존한 당해문중의 초조 내지 개창조를 비롯해 세계를 형성하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사실적 행장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은상좌연의 세계 방식을 지율, 지선, 지혜의 삼학체계로 세분화해 그 사상성을 구명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이와함께 비구니 스님의 현황파악과 전국비구니회를 연계한 위상정립시스템 구축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결론 차원으로 비구니 승가의 위상정립 방안 8가지를 제시한다. △교단내 성차별에 대한 의식구조 개선 △수계절차 일원화 △비구니의 교단 참정권 확대 △'팔경계법' 위시한 성차별적 계율 폐기 △비구니 스님의 사회적 기능확대 △비구니총림 설립 및 비구니본사 확보 △전국비구니회의 조직력 강화 △비구니 연구시스템 상설가동 등이 바로 그것이다.

광우 스님(前 전국비구니협회 회장)은 추천사를 통해 "이 책은 그동안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한국 비구니 문중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비구니 승가의 자존과 위상정립방안까지 제시한 책"이라며 "비구니 문중의 사자상승 법맥구도를 밝혀 줌으로써 그동안 곡해되고 소외된 비구니 승가의 위상을 현실속에 드러내주는 가장 실질적인 책"이라고 평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바른 자세로 앉아 있을 때의 마음 상태 그 자체가 깨달음"

선심초심

스즈키 순류 지음 | 정창영 옮김
김영사 펴냄 | 1만3천원



19세기 후반 무렵 일본 학자였던 스즈키 다이세쓰(鈴木大拙)는 처음으로 서구에 동양 불교의 선사상을 소개했다. 이후 1950년대, 역시 일본 승려인 스즈키 순류는 미국으로 건너가 불교의 선사상이 꽃피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스즈키 다이세쓰가 인류 문명이 위기에 처한 원인이 서양의 합리주의에 있다고 보고 서구에 동양적인 직관, 곧 선사상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면, 스즈키 순류는 미국 최초의 선 수행 센터를 열어 선을 지도하며 서구 세계에 선 수행 방법을 체계적으로 알리는 데 힘썼다.

그의 이런 행보는 히피문화의 발현, 시민권 운동, 신좌파운동 등으로 혼란스럽던 1960년대 미국 사회에 문화적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스티브 잡스 또한 젊은 시절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책으로 〈선심초심〉을 꼽기도 했다.

〈선심초심〉은 스즈키 순류 선사가 살아생전 남긴 유일한 책이다. 그는 많은 강연을 하였지만, 책은 남기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그가 우리에게 남기고 떠난 유일한 말씀이다. 마치 살아 계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선 수행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상하게 알려주어 출간 이후 40년 동안 전 세계인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25개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내용은 쉽고 단순하다. 단순하지만 가르침은 심오하다. 한국 임제종의 간화선과 달리 일본 조동종의 선은 일상 속에서 그저 마음을 비우고 앉는 것 그 자체에 주목한다. 굳이 앉지 않더라도 일상 속에도 선의 깨달음이 있다고 말한다. 그의 철저한 일상성은 많은 미국의 수행자들을 당혹스럽게 하였지만, 한편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깨달음은 어떤 기분 좋은 상태나 어떤 특별한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 있을 때의 마음 상태, 그 자체가 깨달음입니다. 좌선에 들었을 때 그대들의 마음 상태에 만족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그대들의 마음이 아직 방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정확한 자세로 바르게 앉아 있다면 이미 바른 마음 상태가 된 것이니까요. 이것이 불법의 결론입니다."

〈선심초심〉은 앉는 자세에서 시작한다. 좌선을 할 때 어떻게 바르게 앉을 것인지 호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식의 흐름을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때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지, 좌선을 마친 뒤에 왜 절을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수행 방법들을 소상하게 소개한다.

또 육바라밀 등 불교의 기본 교리도 선 수행과 결합하여 쉽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선 수행을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들도 무리 없이 수행의 세계에 입문할 수 있게 돕는 가장 적합한 가이드다. 달마대사, 도겐 선사, 마조 스님 등 고승들의 예화나 불교 경전의 내용을 적절히 사용하여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간명하고 단순한 가르침을 이해하기도 쉽다.

선은 좌선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좌선의 마음가짐을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오는 것이야말로 진짜 수행이다. 스즈키 순류는 그 점을 특히 강조한다.

"고통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며 기쁨이 슬픔이 될 수 있고, 선이 악이 될 수도 있는 진리를 좌선을 통해 고요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한다. 현실속 참을 수 없는 고통조차도 이런 진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나면 인생을 무너뜨릴 만큼의 거대한 파고가 되지는 못한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하고 열린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집중한다면 그것이 바로 좌선이다. 어떤 특별한 방식도 없다. 그저 온 마음으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지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집착할 필요도 없다.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고 그저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진리 또는 불성을 가진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수행이다. "불성은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다. 우리 안의 불성을 믿고 그저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수행이다.

일상 속 수행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이 책을 다 읽고 마지막 장을 덮을 때쯤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을 뿐만 아니라 참된 지혜의 불빛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김주일 기자**

'현재'를 벗어나지 않는 〈신심명〉 강의 해설

지혜로운 삶 1,2

우학스님 펴냄 | 각권 1만1000원





중국 선종(禪宗)의 제3조(祖)인 승찬(僧璨) 스님이 쓴 〈신심명(信心銘)〉은 자체가 워낙 뛰어 나지만 1권, 146구(句) 584자로 아주 짧은 글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팔만대장경과 1,700 공안의 요지가 모두 함축돼 있다고 할 만큼 내용과 수준이 높아 지난 1400여 년 동안 널리 대중에게 읽혀지고 있다.

이 〈신심명〉은 뛰어난 내용 못지 않게 '승찬'이라는 개인이 가진 이력을 통해 한 편의 드라마를 연출한다.

승찬 스님은 출가 전 우리가 흔히 문둥병이라고 부르는 한센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그는 대도인(大道人)을 만나면 병이 나을까 하는 생각에 선종의 2조인 혜가 스님을 찾아 간다. 어렵게 혜가 스님을 만난 승찬 스님은 이렇게 부탁했다고 한다. "저는 나병을 앓고 있습니다. 과거에 죄가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어떻게 참회하면 병이 낫겠습니까? 스님께서 참회시켜주십시오."

그러자 혜가 스님은 말한다.

"그대가 죄가 많아서 그런 병을 앓고 있다고 하니, 그 죄를 나에게 보인다면 그 죄를 내가 참회시켜주겠다."

이 답은 혜가 스님이 그의 스승인 달마대사를 찾아갔을 때 주고받던 것과 유사했다.

〈신심명〉의 핵심은 중도다. 이는 미움과 사랑, 거스름과 따름, 옳고 그름과 같은 중생의 분별심과 편견을 여의게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불교 경전이 그러하듯 이 〈신심명〉 또한 보통의 현대인들이 단박에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신심, 믿는 마음'이라 하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인지, 믿는 마음을 어떻게 어디에 새긴다는 말인지, 또는 이 믿는 마음에 대해 세삼 명심할 바가 무엇인지 제목부터 어렵다.

이런점에서 이번에 출간된 우학 스님의 〈지혜로운 삶 1 · 2〉는 〈신심명〉을 강의하듯이 쉽게 풀었다.

"〈신심명〉의 신심은 자기의 참마음 자리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의 부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진실의 자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둘이 아닌 마음, 중도의 자리에 앉은 마음, 모든 대립을 초월한 자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다 포섭하는 마음이고 모든 우주 진리를 깨친 마음이고, 절대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사실 〈신심명〉의 핵심인 중도와 신심이 어떤 관계인지 금방 이해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저자인 우학 스님은 이렇게 중도와 믿는 마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즉 모든 대립을 초월한 자리, 모든 것을 포섭하는 중도의 자리에서라야 자신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바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절 공양간의 반찬이 자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짜네, 싱겁네 하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절에 갈 수 없다고 말을 해요. 물론 공양간 음식이 맛있으면 좋겠지만 하루에 다녀가는 사람만도 수백, 수천 일 때가 많은데 그 많은 입맛을 맞추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반찬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절에 다니는 이유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아니잖습니까? 법당이 지저분해서 절에 안 다니고, 공양간 밥이 맛없어서 안 다니면 누가 손해겠습니까? 나만 손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고 배려하면 덕을 보는 것이 바로 내 자신입니다."

이와 같이 우학 스님의 〈신심명〉 강설은 쉽다. '지금' '여기'를 벗어나 있는 법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실참으로 이어진다. 관념의 생각을 넘어 행동하는 불자, 실참을 통해 스스로 성취하는 불자를 강조한다. 더욱이 안으로의 깨달음을 통해 탈락신심, 즉 전 우주적으로의 회향까지 언급한다. 바로 이 책이 딱딱한 경전을 풀이한 책임에도 술술 읽혀지는 이유다. **김주일 기자**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1강좌 :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 질병을 좌우하는 몸속에 숨은 영가를 찾아내어 조상령인지 객영혼인지를 확인하는 비법전수 수련법 최면이 아님 환자의 몸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방법 - 전문가 강좌

인간체온의 비밀 - 38.5도의 내장온도, 냉병 특히 영가질환 냉병이므로 내장의 진동주파수 상승, 체온상승으로 영가밖으로 나오는 과정을 통해 영혼에게 빛을 보게 만드는 과정
1. 영적인 수련을 통해 환자의 몸에서 영가확인 2. 일반병, 정신병, 영가장애질환의 구분
3. 영가의 수준파악. 저급영가 : 한과 집착, 중급영가 : 진리를 찾아 방황과 혼동
고급영가 : 깨달음에 대한 갈망
4. 난치병과 불치병 뒤에 숨은 영가확인
매주 - 월 , 수 , 금 / 수련 - 오후 2시 / 보시금 1회- 10만
※개인적인 전수는 수련 후에 상담 -자신이 체험하는 과정

2강좌 : 강좌. 알기쉬고 이해하기 쉬운 인간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법
3기 힐링분석상담사교육생모집 (누구나 저렴한 교육비)
힐링분석 상담사란?-일반, 전문가 강좌

민간가격증으로 인체에 흐르는 기 흐름을 감지하여 그 사람의 현재의 문제점 감정, 의지, 정신의 사용유형을 읽어, 영적인 치유와 건강, 심리 궁합, 직업, 적성, 인성을 개발 상담해주는 전문가로 활동한다.
미국의 다우징 기법을 통한 40가지 에너지도형 분석법
1. 일반인반 4회 책자 2. 전문가반 6회 책자
매주 화 , 목, 토요일 오후 2시 공개강좌및 강의

3강좌 : 강좌 - 효소찜질요법 (수련원에 설치완비)
기(氣)감이 없고 마음이 경직된 분을 위한 수련이 필요 없는 효소열을 이용하여 경직된 근육과 모세혈관을 열어 각종 암, 아토피, 우울증, 불면증, 상기병, 고통사고후유증, 중풍, 마비, 관절염, 냉병. 산후조리, 효소찜질의 원리를 이용한 수련비는 1회 3만원 난치병,암, 중풍후유증, 각종 냉증질환, 몸에서 안 빠져나가는 영가 확인후 찜질을 통한 몸을 이완하여 영가가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과정을 거쳐 천도하는 방법이 있다.

인체전기 파동의학 043)296-5258 / 010-9242-5259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642-21 바우빌딩 5층 (청석고와 청운중사이)

영혼은 몸을 통해 이야기하기에 ,진실을 체험하게 해주는 건 우리의 몸이다.

민족불교 성지 선학원을 되짚다
⑤ 한국불교 정체성 확인한 임제종운동

임제종 운동 좌절…선학원 창립 씨앗


현재 범어사의 전경. 1912년 만해 한용운 스님을 비롯해 임제종 운동에 참여한 스님들은 2차 총회를 열고 범어사에 임제종 임시 종무원을 둘 것을 결의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일본 총독부의 탄압이 시작됐고, 결국 문을 닫게 됐다.


我佛世尊의 大道
投稿
임제종종무원발기 취지서, 1910년 10월 6일 조동종맹약에 반대하는 임제종의 스님들이 맹약철폐를 요구하면서 발표한 취지서다.

조동종과 굴욕적 '맹약' 한 원종 파괴 위해 임제종 운동 전개

사찰령 반포와 일본의 방해로 1912년 범어사에서 막 내려

'조선선교양종' 왜색 불교 상징

1910년대는 한일합방과 함께 조선의 일본지배가 본격화된 시점이다. 불교계 역시 1910년 10월 6일 조동종맹약, 1910년 11월 6일 맹약에 반대한 임제종 운동의 전개, 1911년 6월 3일 사찰령 반포 등 격랑이 일었고, 파도는 인간 군상들의 본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각자 한국불교를 중흥시켜야 한다는 명분상의 목적은 같았지만, 걷는 길은 달랐다.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자신의 신념이 정법(正法)이었고, 개혁(改革)과 전통수호라는 이름이 목적지를 향한 각자가 선택한 지름길이었다.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한 근대불교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양분되어 있다. 우선 항일과 친일의 시각으로 보는 관점이다. 다음은 이 극단적인 인식이 너무 단선적이고 이분법(二分法)적 해석이라고 전제하고 불교사의 여러 장면이 보여준 다양성을 고려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자의 결론은 이해의 폭을 넓히자는 것이다.

근대불교사 인식의 기초는 '사실(事實)여부'다. 친일과 항일은 인식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역사적 사실이다. 요즈음 교계 일부에서는 "민족불교를 운운할 시점은 이미 지나갔다"고들 한다. 민족불교를 강조하는 것은 국수주의적이고 편협한 구시대의 전유물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불교는 한국불교 고유의 정체성과 독자성이다. 지금도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거론할 때 불교를 빼놓을 수 없다. 그러므로 민족불교의 강조는 한국문화의 특수성인 것이다. 시간을 초월해서 인식되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근현대불교사가 지닌 다양성은 그 이후의 인식의 문제다. 이 다양성은 향후 어떤 색채로 변할지 모를 일이다. 우리는 아직 친일과 항일에 대한 정연한 규정이나 해석조차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은가. 이미 친일인명사전에 등재여부를 놓고 한동안 굿판을 벌린 것을 보지 않았는가.

근대불교사에서 항일과 친일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낸 사건이 조동종 맹약에 반대하여 강한 거부반응을 일으킨 임제종운동(臨濟宗運動)이었다.

맹약은 단순히 한일 간의 특정종파가 친선을 도모하고 우의를 돈독히 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원종(圓宗)이 근대불교 최초의 교단이었고, 불교발전을 위해 한국 불교의 본산으로 각황사(覺皇寺)를 창건하고, 명진학교를 불교사범학교로 승격 개편하는 등 불교쇄신과 발전을 위해 진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기 위해 일본 조동종의 고문을 위촉하고, 조동종의 한국 포교에 편리를 도모할 것을 체결하였다. 더 가관인 것은 "조동종무원이 필요하여 조선에 포교사를 파견할 때는 조동종무원이 지정하는 사찰을 숙소로 정하여 포교 및 교육에 종사케 할 것"을 명문화 한 것이다.

합방된 직후고, 그 이전부터 일본의 야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시점에서 이 맹약은 동등한 것이 아니었다. 설령 맹약 체결이 "쌍방의 뜻이 맞지 않으면 폐지, 변경 혹은 개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본질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부질없는 헛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맹약은 전시효과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을까.

여하튼 당시 불교계의 대표적 종단인 원종을 조동종에 병합시킨 것에 대한 분노는 적은 것이 아니었다.

반대의 물결이 일어났는데, 실상은 다 같은 선종(禪宗)이지만, 조동(曹洞)의 계열은 다른 파이고, 임제(臨濟)는 자기 집안이라고 하는데서 일어난 반감에서 빚어진 것이고, 종지의 역사가 분명하지 않아 당파 사이에 암투가 연이어 일어난 것이다.

동시대 인물 이능화(李能和)가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教通史)〉에서 서술한 임제종 운동의 배경이다. 한국불교의 종지·종통이 엄연히 임제종(臨濟宗)에 연원(淵源)을 두고 있건만 일본 조동종에 송두리째 개종시키고, 한국 불교를 일본에 헐값으로 팔려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지나간 과거에 지나지 않지만, 한 때는 찬란한 문화민족으로서 문화와 문명을 야만인에게 전해주어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었던 향수를 지닌 나라아닌가. 더욱이 부처의 골수를 제대로 훔쳐 오랜 기간 동안 큰 도적들이 부처의 뺨을 후려칠 정도의 대장부 기상을 유감없이 드러냈던 생불(生佛)과 조사(祖師)의 나라가 아니었던가. 하기야 당시 종명(宗名)을 일본 종단의 이름을 빌려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한 것을 보면 일본 세력을 빌리고 힘을 믿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고유의 종지나 종통쯤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용운이 1931년 임제종에 대해 술회한 부분에 의하면 "조선불교의 부흥을 도모할 때 원종(圓宗)의 맹약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단을 별도로 세워야 원종을 자멸케 함이 첩경이라는 견지에서 조선 고유의 임제종을 창립하였다"고 하였다. 박한영 역시 "조선불교의 연원이 임제종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조동종과 연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진진응(陳震應)·박한영(朴漢英)·한용운(韓龍雲) 등이 주축이 되어 1910년 10월 5일, 광주 증심사(證心寺)에서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사람이 적어 열리지 못했고, 그 이듬해인 1911년 1월 15일 순천 송광사(松廣寺)에서 총회를 열고 송광사에 임제종 임시종무원을 설치하기로 결의하였다. 당시 김경운(金擎雲)을 관장(管長)에 임명했지만, 연로한 탓에 한용운이 권한을 대리하였다.

1912년 하동 쌍계사에서 제2총회를 개최할 때는 임제종의 종지를 널리 드날릴 것을 결의하고, 한용운·김학산·장기림·김종래·임만성을 선출하여 범어사가 임제종에 들어오도록 권유하였다. 범어사에서는 처음에는 가입권유를 따르려하지 않았지만, 임제종 임시종무원을 범어사로 옮길 것을 약속한 다음에야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임제종은 동래·초량·대구·경성 등 4개 지역에 포교당을 설치하고, 임제종을 그 칭호로 삼았다. 이른바 남당(南黨, 임제종)과 북당(北黨, 원종)의 갈등과 충돌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1911년 6월 3일 사찰령(제령 제7호) 7월 8일 사찰령 시행규칙(총독부령 제84호)을 연이어 반포하여 양측의 싸움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전락해버렸다. 사찰령이 반포되면서 30본사 또한 이미 법으로 정해졌고, 30명의 주지가 차례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사법(寺法)을 제정하는 일에 봉착한 것이다. 조선총독부가 원종을 인가해주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한국불교의 대표 종단을 인정해주면 그들이 직접 관할하려는 정책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사찰령 반포 이후 종지의 칭호를 한가지로 통일하는 일이 주지총회에서 하나의 큰 문제가 되었다. 이것은 조선총독부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불교가 지닌 정체성의 싹을 원천적으로 잘라버려야 했기 때문이다. 남당은 오성월(吳惺月)을 중심으로 임제종의 종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반면, 북당에서는 종지선정을 선점하기 위해 총독부의 의도를 간파하고자 하였다.

총독부가 내린 결론은 조선시대 〈경국대전(經國大典)〉체제에 기초한 선교양종(禪教兩宗)이었다. 이른바 '조선승니의 법계품승(稟承)예일반(例一斑)' 속에는 '승니의 성립', '승니의 입신', '승니시험의 제도', '법계승진의 규제', '법계의 명칭' 등을 규정한 것이다. 총독부의 이 조치로 원종과 임제종은 간판을 내려야 했다.

명목상으로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만, 한국불교가 지닌 생명력을 근본적으로 끊어버린 것이었다. 결국 이회광을 중심으로 한 북당은 원종도 포기하고 임제종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선교양종(禪教兩宗)을 사법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그들에게 살아남는 일이 종지에 우선하는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1912년 6월 ' 조선선교양종 각 본산주지회의원 '이라는 간판은 사찰령을 반영하고 종지가 사라져버린 왜색불교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임제종에서는 범어사에 임제종 종무원의 간판을 걸고 활동이 지속되었다. 1912년 4월까지만 해도 서울 대사동(大寺洞)에 '조선임제종 중앙포교당'을 개설하였다. 훗날 선학원의 설립이념을 제시한, 당시 임제종의 관장대리인 한용운이 한국불교(임제종)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리고 싶은 포부가 반영된 곳이기도 하다. 한용운은 이 일로 경성 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압송되었다.

조선 사찰의 종지 칭호는 수백 년 전 종문(宗門)의 제도를 개혁할 때 선교양종으로 정하고 그 이래로 다른 움직임이나 증감이 없었습니다. 근래에 귀하의 관내 사찰에서 제출한 공문서류에 '조선임제종(朝鮮臨濟宗)'이라 기재하여 사찰의 명호(名號)에 드러난 곳이 왕왕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각자 마음대로 종지 칭호를 세운다면 이로 인하여 일반 승려의 귀향상(歸向上)에 의혹을 낳거나 이로 인하여 종지가 같고 다르다고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1912년 6월 26일 조선총독부 내무부장관이 경상남도 지사에게 내린 통첩문(관통첩 229호)의 일부분이다. 조선불교계는 더 이상 임제종을 내걸어서는 않된다는 통첩이기도 하다. 관권을 동원하여 임제종의 활동을 제지한 것이다. 결국 임제종 종무원 간판은 범어사에서 내려졌다. 그러나 임제종운동의 명맥은 사라지지 않았다. 1921년 선학원의 설립 당시 임제종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다시 등장한다.



오경후(한국불교선리연구원 선임연구원)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 재 분량)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 오전 7시 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한방문헌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상담문의 전화번호 : 031)773-7838 참나선원 대진스님

※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제 조 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 온라인통장(농협) : 227027-51-090791 · 예 금 주 : 남궁성균

명리(사주)학 학인 모집

당 문수불교문화원에서는 2013년 명리학인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스님 및 재가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반(6개월)
음양론, 오행론, 사주의 구성, 합충법, 원진, 파, 해, 절기론, 대운법, 암장법, 공망, 당사주실무
나. 중급반(6개월)
육친법, 남과여의 육친적용, 포태법, 12신살론, 왕, 상, 휴, 수, 사, 조후론, 흉살, 길신
다. 고급만(실전교육)
격국론, 용신법, 통변법이론과 실무, 풍수지리이론, 작명이론

※ 강의 특징: 원리위주, 이해위주, 한글위주, 통변위주 ※

2. 개강일시
가. 개 강 일 : 2013년 3월 13일(수요일)
나. 수업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6~8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속에 관계없이 명리학에 관심있는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학기당 30만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원에서 교부)
6. 강 주 : 현조(문수정사 주지) 구미지역 사회 교육협의회 명리학 강의(7학기 강의)
구미 노인대학 특강, 김천 도서관 특강
7. 접수기간 : 2013년 3월 1일 ~ 13일까지(선착순 20명 이내)
8. 강의장소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923-16번지(지하철 1호선 반월당 2번 출구 앞)

연락처 010-2509-5535

문수정사 문수불교문화원

설법·화술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교육내용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종 합 반 : 00명
■ 소수정예 특별반 : 0명
■ 개인지도 (직접 상담 후 결정)

연수안내
■ 자 격 : 승려, 법사(포교사), 불교포교와 설법 화술에 관심있으신 분
■ 기 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 강 의 : 종합반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소수정예 특별반, 개인지도 - 상담 후 결정
■ 장 소 : 본 연수원 강의실
■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진도식 교육이 아니고 훈련식 교육임)

지도교수
[우불 김 철 회 박사]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40년 노하우를 지닌 우불 김철회 박사 직접 지도

• 회장 김철회 박사
• 원장 처 명(선광)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자격증 취득(심리상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한 국 설 법 연 수 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3가역 1번 출구
연수원 : 02)747-1567 / 010-7248-1567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생을 묻지 말고 행위를 물으시오.
불은 온갖 섶에서 일어나는 것, 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이라도
믿음이 깊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행동을 삼가면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오.

– 숫타니파타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쑥뜸방, 돌뜸방 기술지원
50년전통 011-829-7582

찬찬히 잘 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 (마인드원)
032) 434-5990
010-8730-569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1-544-9777
051)721-6444

지리산 청학동 (자비수양원)

황토방과 건강치료설비를 갖춘 수양원에서 식이요법 및 유기농 식단 등으로 병을 치유하시고 건강을 되찾고 싶으신 분들께선 많은 연락바랍니다
* 또한 암자에서 참선수행 하실분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든 찾아주십시요
011-759-0183
010-8484-6124

서 류 대 행

전통사찰 등록
문화재 등록
법인 종교법인 등록
법인 아닌 법인 등록
010-9476-9001
성산개발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립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모든 영가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목선고통, 불안초조, 주의력 결핍, 약효가 없는분, 병명이 바뀌는 분,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 병원 치료가 어려운 분.
43년 이상 된 염불 수행자
010-5912-2377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영통철학 1개월 완성

○ 개인지도
○ 교육 후 바로 상담 책임지도
○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010-2586-7938

상 담 안 내

여러분의 영적세계는 편안하십니까?
신통력으로 운명 예견 고민해결
전화상담 가능
대구은행 : 087-13-035968
010-2125-4684
(사주팔자)

범음범패 학인모집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선암 (부산 진시장 앞)
010-6569-1010

양 도 공 고

(법원 등기된 종무법인임)
법인불교단체 양도
법인종단 양도
불교법인 양도
011-412-8040 법광

女 행자 구함

신병으로
고생하시는 보살님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010-5317-773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나이 65세 미만)
02)938-7957
010-3738-0338

산청 전통사찰 대원사에서 공양주 구합니다

055)972-8068

스님이 없는 빈 절이나 가난한 절을 구합니다

무보시로 도와드리고
발전을 약속합니다
(65세 비구승)
010-7534-4848

신통력과 사십일

• 이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에게 일러드립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9호 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오공양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행사 출전 실무
3) 다게 • 운심게 작법반
사찰행사 전문 (점안대법회, 산신, 수륙대재, 천도(49)재)
부전스님 사찰 연결드림 총무스님 010-5511-7000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0-5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천도재 49재의식 배우며 기도하실 행자스님 모십니다

(대전, 60세 이상도 가능)
010-4220-0566

비구 부전스님 (50세 미만) 모십니다

(마산)
010-3428-6665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야간반)

1) 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 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 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주 지 모 집

자 격 : 법당 10년 이상 경험있는 비구, 비구니로 본 사찰 중창불사에 전념하실 수 있는 사람.
대 우 : 종신 주지 및 사제 상승 보장 (단, 노스님 모시는 조건)
재 산 : 법당 70평, 요사 100평, 회관 100평, 종무소 30평, 대지 1천평, 농지 1500평, 임야다수
위치 : 경기도 퇴촌 010-9167-744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팔공산)
02)2234-2198
010-8721-21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팔공산)
010-3189-8745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감포, 영천, 미국, 중국, 호주, 이스라엘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3월 14일(목) 저녁반, 3월 15일(금) 오전반, 3월 19일(화) 오전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희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영가찾는 법 교육생 모집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 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백암역리원 동작구청(우리은행) 옆
02)597-1101 / 011-9150-2284

제11기 지도자양성 부업봉사자

무엇이든 물어보셔요
가정, 회사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치매, 암예방, 가족갈등, 대학입시, 취업기도, 비만, 스트레스, 새학기 입학기도.
010-2353-2010, 010-6703-9904
010-3033-8889, 010-5523-9181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대전,서울,부산,대구

불교의학 법회

(사대천왕 항마법)
기간 : 3개월 (이론과 실기)
대상 : 사부대중

속성 전통불교의식 강좌

– 기본 3개월 완성 (도량석, 종성, 새벽예불, 사시불공, 저녁예불)
– 3개월 완성 (제사의식, 천도의식, 사십구재 의식)

02)957-9882 / 010-7387-2833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삼성고불강원

수행도우미

미국 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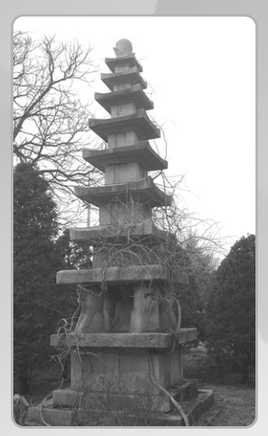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스트레칭필, 칼라챠크라, 용천보탑, 배요온대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석가탑 인연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 제작년수 : 약 60년 (가로 2미터, 높이 8미터)



■ 제작년수 : 약 60년 (가로 1미터, 높이 4미터)

– 연 락 처 –
016-249-0546

제2기 영남 불교의식 (범음·범패) 학인모집

본 금수사 불교의식교육원에서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 정
초급과정 : 도량석, 쇳송, 천수경, 상단불공, 각단예불, 불공의식
중급과정 : 사물 (광쇠, 법고, 태징, 목탁) 요잡, 시다림
고급과정 : 49재, 천도재, 점안식, 예수재

작법무 (중급과정 부터)
1. 천수바라
2. 오공양 작법, 요잡바라
3. 화의재바라

개강일시
2013년 3월 7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2시 ~ 오후6시까지)
■ 주소 : 부산 동구 초량6동 843 금수사
■ 전화 : 051)467-3316 종무소.
010-8526-3356

행자 모집합니다
대한불교원효종 대본산 금수사 영남범음범패

성지관음회에서 직접 스님들께만 알려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신도확보 및 불사에
큰 도움이 될 수있는 새롭고 유익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스님들만 필요하신 방법이며,
스님들만 사찰에서 시행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도들에게 바로 적용하시면 큰 반응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시대에 맞는 새롭고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전화 주십시요.
안내책자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 768-8414~6
FAX 031) 768-8413

불 자 정 보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술은 독약이고 독수이며 독기가 된다. 모든 잘못의 시초이며 모든 악의 근본이다. 술은 현명함을 몰아내고 성스러움을 깨뜨리며, 도덕을 흐리고 망령된 행위로 화를 부르는 근본이 된다
- 대애도비구니경 -

사 찰 안 내

삼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서울
- 법당 : 40
- 요사 : 30
- 대지 : 100평
- 산신각,건평 150
- 가액 : 15억

- 위치 : 경산
- 법당 : 30
- 요사 : 60
- 대지 : 350
- 종각,가액 2억

- 위치 : 경기
- 법당 : 40평
- 요사 : 100
- 대지 : 650
- 가액 : 13억
- 가액 : 80억

※서울 경기 근교 포교당 전세암자 급히 구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 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상담환영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법당 :
- 요사 : 70평
- 부지 : 1300평
- 가액 : 10억

- 위치 : 경남
- 법당 : 4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1200평
- 가액 : 11억

포교원안내
- 위치 :경기
- 법당및요사:60평 (단독주택개조)
- 임대료:1300/70
- 시설비 : 8000만 (조정가)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 전망 좋은 절
- 총 대지: 약 2.700
- 법당 약 5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텃밭 300평
- 가액: 6억 8천만원

토 굴 안 내
- 총부지 : 970평
- 법당 및 요사채, 산신각, 용왕각, 독성각
- 계곡 물 철철, 산세 최고
- 양도가액: 1억 5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종 교 관 련 시 설 터

- 요양시설, 수련원, 선방, 포교원 등
- 서울 은평구 진관동 (북한산 자락)
- 평수 400평(대로에서 200m)
- 건물 : 약 40평 있음
- 특징 : 산 밑에 위치한 산세수려한 조용한 곳
- 가액 : 15억
- 신축도 가능합니다

011-372-7744

사 찰 안 내

- 광주광역시 인근 20분거리
- 대지 299평 총평수 500평, 전건축물 목조
- 대웅전 29평 요사채 20평, 방4, 욕실1, 공양간 10평, 방1개, 해우소3평반3칸
- 지하수 130m 물수량 100톤 일급수 cc카메라 9대시설
- 사찰경내지 계곡물흐름, 조경완벽
-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IC5분거리
- 가액:답사후 결정 (꼭 하실 분만 전화요망) 장난전화사절

010-9338-011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은평구 응암 3동 대림시장 맞은편
- 버스 정류장 앞, 4층건물 3층, 25평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 칠성, 독성탱
- 에어컨 2대 포함 집기 일체, 즉시 법회 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8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4000만원

010-3209-0408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수성 지하철 입구
- 2층 약 30평(완벽한 시설)
- 위치, 환경좋음 (포교,상담,법회)
- 몸만 오시면 됨, 불사관계 양도
- 특히 비구니스님 최적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상권최고지)
- 시설 1500만원(답사후 조건 따라 절충)

010-9690-8275

도심과 산속의 만남 포교원

- 위치: 대구 (역 도보 5분거리, 시장 5분)
- 현재 법회중이며 3층 건물(50평) 옥상(50)
- 법당(20평) 방2, 친견실1, 주방(집기일체)
- 부처님(金)삼존불, 신중, 칠성각, 영가단, 각단후불도, 부처님 지신사리
- 모두(7천) 부족하더라도 오세요
- 불사관계로 양도함
- 토지 및 토굴,사찰 교환도 가능

010-6892-3999

사 찰 안 내

- 태백산 산신도량
- 대지 179㎡
- 조립식 건물 별도 산신각 1동
- 금액 9300만원

011-9794-5815

사 찰 안 내

- 충북 단양군 대강면 남천리 31번지
- 건평23평 대지100평외 과수원밭 1,500평(6년생사과나무 250주있음)
- 아주예쁘게지어놓은 황토집이며 법당
- 효험있는 천연노천불(약사여래불)있음
- 물좋고,공기좋고 전망좋은 단양온천진입로
- 가액:3억(마음에있는분 가격조절)

010-5380-8265

토굴 암자(급)안내

- 용인시 양지IC 부근 접근성이 용이함
- 임시법당 있고 전망 좋음
- 토지 대 911m 건평 79
- 조적조벽돌기와지붕
- 급양도가액 : 3억 3천만원

010-3426-9393
010-7347-1010

포교원 및 토굴 안내

- 치악산 맑은 물자락 산자락
- 명상 기도 공부할 수 있는 별장식 도량
- 위치: 강원도 원주
- 대지 120평, 건평 90평
- 3층건물
- 가액 3억 5천만원

011-9917-703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울산 남구 신정동 시장 앞
- 평수 45평
- 시설완비
-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010-3595-9856
불문스님

밀양 암자 안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주위
- 자연경관 수려함 (폭포, 계곡 등산로)
- 면적: 8000평(종교용지 25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전화 후 상담

010-4619-2600

사 찰 안 내

- 위치:충남 논산시 연무IC 부근
- 대지 125평
- 건물: 법당, 공양간, 산신각, 요사채 (합 4동)
- 가액: 1억 2천만원

011-9004-1492
041)741-1497

초미니 포교원 안내

- 위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 월드컵 경기장(팔달구청)정문 건너편
- 약 400M 주택 밀집가. 약10평
- 1층 : 철학 및 상담 사무실1
- 미니법당방1, 주방1, 화장실 따로
- 보증금 400만원 / 월 25만원
- 시설비 300만원

010-2499-0779

암 자 안 내

- 위치: 영천시 금호읍에서10분거리
- 연못 옆 암자
- 법당, 거실, 방3, 주방, 화장실
- 106평
- 가액: 8,500 ~ 9,000만원

010-3071-8199
011-812-136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사천읍
- 부지 : 약 4000평 (잔듸밭 300여평, 텃밭 500여평)
- 법당 : 심존불,후불금장탱화,신중탱화
- 요사 : 방3개, 화장실2개 기름, 화목보일러겸용
- 창고 : 10여평, 주차장완비
- 법당뒤 편백숲으로 산림욕장으로 최적
- 전세3000천만원 달세, 시설비없음,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10-7510-9090

사 찰 안 내

- 위치: 포항시 해수욕장 방생지
- 대지 약 700평
- 총건물 120평(목재건물)
- 1층 요사채 60평, 2층 법당 60평
-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3500만원 (가격절충)

054)261-1104

포교원(급)안내

- 위치: 강북구 수유동
- 큰 대로변 상가 3층
- 평수 30평, 등 200개, 인등 200개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60만원
- 시설비 1000만원
- 답사 후 절충가능
- 시설일체 완벽

010-2126-252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의 중심지인 수성구에 有
- 지하철 5분거리(도보)
- 평수 : 상가건물 4층(43평)
- 시설 : 일체 완벽(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 4000만원(월 30만)
- 시설비 : 답사 후 조정

010-2110-255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중동
- 법당: 45평
- 대지: 90평

051)746-5432

사찰(급)안내

- 위치: 용인시 묘현면 에버랜드 근처
- 대지 100평, 건물 45평, 화장실2, 방3
- 법당, 지장, 관세음보살, 아미타불,아미타불 16나한, 주차장완비
- 몸만 오시면 됨, 즉시법회 가능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4000만원 (절충가능)

010-4732-4849

사찰,다용도 운영

- 위치: 경남 거제시 둔덕면 산방리
- 건평 :177평 • 건물 : 30평
- 산방산 자락 (한옥집, 다용도로 사용가)
- 전망 좋은 정자도 있음
- 가액 : 4억 5천만원

010-4199-2343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달서구 진천동 월배 E-마트 옆
- 한옥단독주택 40평
- 사찰시설로 완비
- 가액: 1억6천만원
- 전세로 가능

010-2769-3397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시 청학 2동
- 평수 : 57평
- 완벽한 시설로써 스님, 법사, 보살님 적합함
- 1층 : 요사채(도시가스 시설) 2층 : 법당과 스님방

010-3732-5237
051-412-0400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 대지 188평. 법당 23평
- 요사 35평, 지하 암반수
- 전철 2014년 개통예정(인터넷참고)
- 가액: 2억 3천만원 (대출 3천만원 포함)

010-3194-3738

도심 속의 작은 암자

- 위치: 부산 시내
- 교통 편리 주차 가능
- 1층(와가) 약 30평, 방2칸, 주방, 창고 등
- 법당, 삼존불, 신중, 산신, 용왕당 有
- 시설 완벽, 현 법회중
- 국유지 사용료 내고 있음
- 가액: 6천 8백만원(조절불가)

011-575-970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시 남구 대로변
- 2층 75평
- 전세 500만원 월 60만원
- 공양간, 찜질방
- 3층 75평
- 전세 1,000만원 월 60만원
- 법당, 산신, 관음전
- 몸만 들어오시면 됨, 시설비 절충

010-4071-3718

사 찰 터 안 내

- 위치: 경남 합천
- 미륵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아늑하고 풍광이 수려한 보궁터
- 평수 1600평
- 가액: 1억 2천만원

010-8828-118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 광역시 동구 방촌동
- 동대구 IC 10분거리
- 건평 26평 (1층-공양간, 방1, 화장실 2층 - 법당, 방1)
- 가액: 1억 1천만원(절충가능)
- 특징: 법당 아미타불 3존불
- 아파트 단지 및 방촌 시장 인근
- 옥상 활용 가능, 작은 텃밭 있음

011-502-7880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 달서구 송현동
- 평수 30평, 3층. 대도로변
- 보증금 1천만원 / 월 55만원
- 시설: 아미타불, 지장불, 관음불, 후불탱화, 산신탱화, 인등
-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10-6205-6633

암자(급)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 대지 410평
- 인법당
- 가액: 1억 4천만원

043)543-7928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팔도시장내
- 법당: 35평, 소불 100불
- 시설완비, 즉시 법회가능
- 에어컨시설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35만원
- 시설비:1천2백만원

010-8664-4223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전통사찰
- 종교용지 : 1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양도 : 14억
- 위치 : 서울전세(한옥)
- 부지 : 40평(역세권)
- 인법당 : 35평
- 보증금 : 1억8천
- 시설비 : 3천(주차가)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종교부지 1700평(대웅사) 병산리, 산 168-2번지 4,130평 (총 5,830평)
- 건물, 대웅전1동, 요사채(1, 2층) 1동, 기도방 1동, 승방1동
- 입주조건 : 양도 또는 임대 (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 주인직접 : 현장답사 후 협의 (조건 및 금액 결정)

010-4225-0012
02)403-333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북구 구포 2동 (하이마트 건너편)
- 독채 : 건평(28평), 임법당(18평), 방4개, 창고1
- 아미타불(동불석자), 후불탱화, 신중탱화
- 칠성탱화, 영가단탱화, 마당에 산신각, 용왕당
- 법당집기
- 지하철, 시내버스1분거리(현재법회중)
- 포교의 최적지
- 시설비 1천5백만원
- 보증금 1천 5백만원에 월 35만원

010-3783-3606

도심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운창동 (대전역에서 도보로 10분)
- 지하1층 60평, 큰법당 방2칸, 공양간 시설완벽
- 보증금 100만원 월 28만원
- 시설비 7백만원
- 상업지역, 아파트3천세대 최고요지
- 현 포교원 운영중,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9387-3679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 상가대로변 1층
- 법당 大, 방2칸, 공양간, 목욕탕1, 창고1
- 전세 1천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1300만원, 절충가능
- 주차장 있음

010-3578-063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부곡온천 및 화왕산, 영산IC에서 8분거리
- 평수 :532평, 법당 30평(목조단청) 산신각,칠성각,인터넷 가람참조
- 요사채(60평, 화장실2개)석탑, 주차장, 창고, 텃밭 150m 암반수
- 특징: 산 밑에 위치, 도로인접, 심야전기보일러, CCTV설치, 집기일절
- 가액: 4억 2천 5백만원(답사 후 조정) 시세이하양도(평당 70평)

010-8664-825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북구 구포 2동 (하이마트 건너편)
- 독채 : 건평(28평), 임법당(18평), 방4개, 창고1
- 아미타불(동불석자), 후불탱화, 신중탱화
- 칠성탱화, 영가단탱화, 마당에 산신각, 용왕당
- 법당집기
- 지하철, 시내버스1분거리(현재법회중)
- 포교의 최적지
- 시설비 1천5백만원
- 보증금 1천 5백만원에 월 35만원

010-3783-3606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북 예천군 상리소재
- 옆에 물 좋은 개울이 있고
- 연못에는 연꽃이 있는 청정지역 총 1,000평 (대지포함)
- 매실나무, 호두나무, 대추나무 있음
- 가격: 3억 (꼭 필요한분에게 가격조절가능)

011-861-6252

작은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시흥
- 건물: 3층 건물의 3층
- 크기 8M ×5M
- 시설비 850만원

010-8487-8211

마음은 어떻게 오작동하는가

카루나 케이턴 (심리치료사 · 미국)

〈3〉 오래 계속될 행복을 찾아서

건강한 사랑은 집착 없이 상대를 품는 것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불교에서는 모든 불편한 정서와 문제가 사물의 진정한 존재방식을 이해하지 못해 비롯된다고 이야기한다. 스승인 게셰 겔렉(Geshe Gelek)은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는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정작 있는 것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소통할 때, 우리가 정말로 경험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기 바깥'에 존재하는 것과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은 어떻게 나뉘는 걸까?

불교에서는 '무지'를 '실제 존재하는 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여기며 '지혜로움'은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이 지혜로움이야말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구제책이다. 바라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 생각해보라. 얼마나 자유로운지! 이것은 공상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이전에도 많은 사람이 해냈던 것처럼 느린 속도로나마 마음의 성질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사실 사물과 사건, 감정과 생각은 보이는 것만큼 구체적으로 '실존'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세상과 자신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핵심이다. 결국, 사물과 사건, 감정과 생각이 단지 자신의 머릿속에서 세워지고 거기에 의존해 유지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 지배력도 훨씬 줄어든다. 우리가 현실을 구성할 뿐 아니라 그 현실을 바꾸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교통 체증

불교 심리학에서는 또 하나의 잘못된 인식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사람이나 사물, 사건 심지어 사고와 감정까지 모두 제각기 독립적이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우리의 지각 작용이 현실에 이름표를 달고 색칠해 각각 객관적이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착각할 뿐이다. 모두가 그렇다. 누구나 부분만을 보며, 언제나 보지 못하는 더 큰 맥락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쉽게 잊곤 한다. 우리는 세상을 슬라이드 쇼처럼 하나하나 단편적인 이미지로 보면서, 마치 자신이 영화감독인 양 행동한다. 경험이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하고 결정할 수 있는 듯 행동한다.

예를 들어 길이 막힐 때 얼마나 평정심을 유지하는지 자문해보자. 교통 체증에 짜증이 나 난폭 운전을 한 적은 없는가? 운전하면서 짜증 낸 적이 없다면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하겠다. 그만큼 운전 중에 평정심을 지키는 일은 어렵다. 고작 5분 늦을 가능성만으로 말 그대로 정신이 나가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그래서 더욱, 도로는 평정심을 지키면서 예측할 수 없는 일을 참는 훈련,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할 완벽한 무대다.

현재의 순간을 인식하는 데는 수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그 와중에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 다른 이들과 정말 접촉하는 일은 얼마나 자주 일어날까. 물론 현실에 진실로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 다른 사람과 연결돼 있음을 느끼고, 삶의 아름다움, 인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머릿속 관념과 불편한 정서를 내려놓고 삶을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누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경험은 너무 드물다. 90년을 산다고 할 때 삶을 온전히 바로 이 순간을 진정으로 아름다움 속에 보내는 시간은 고작 며칠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 그럴 수 있는 자유도, 능력도 갖추고 있지만 발휘하지 못할 뿐이다. 때로 우리에게 그런 자유와 능력이 있는지조차 모르기도 한다. 마치 자유와 아름다움이 눈앞에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셈이다. 그리고 셔츠 뒤쪽에 꽂힌 열쇠를 보지 못하고 감방을 벗어날 다른 도구를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셈이다.

쾌락 vs 행복

쾌락과 행복이 동의어라는 뿌리 깊은 오해가 있지만, 그 둘은 다르다. 쾌락과 정신적 안녕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쾌락의 느낌이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다. 욕망이 대혼란을 일으키는 또 다른 방식인 셈이다. 쾌락에서 오는 정신적 상태는 조화로움이나 평화로움과는 정반대다. 사람들은 보통 '아드레날린 분출'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통해 쾌락을 좇는다. 쇼핑하기, 나이트클럽에서 춤추고 술 마시기, 체육관에서 운동하기, 섹스하기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육체적 쾌락의 분출은 빠르게 잦아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먹이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진실을 말하자면, 쾌락은 대부분 더 많은 욕망을 낳을 뿐이다. 더 많이 즐길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되며, 더 많이 원할수록 더 많이 소비하고, 원하는 걸 얻겠다고 애쓰며 안달한다. 쾌락이 늘수록 오히려 만족은 줄어든다. 그래서 불교 심리학에서는 욕망을 마실수록 점점 더 목이 마르는 소금물에 비유하곤 한다. 어느 선을 넘으면 돈을 더 번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됐다. 돈은 생활에서 수고를 덜어주긴 하지만 정서적 조화로움을 가져다주지는 못한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은 1년 후에 살펴보면, 이전보다 오히려 행복하지 않다는 게 그 증거다.

좋은 삶의 추구

불교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욕망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말하곤 한다. '문제'는 욕망을 파괴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원하는 대상에 매달리거나 집착하는 마음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삶'의 모습에 얼마나 '집착' 하는지에 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일 분노가 인다면, 욕망에 그릇되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불편한 정서가 생겨날 때, 이를 '경고의 깃발'로 인식할 수가 있는가이다. 감정의 종류를 알아차리고 맞서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욕망, 그에 따라오는 확신과 추정을 다른 걸로 바꾸어놓을 수 있다.



존재하는 대로 보지 못하는 것 '무지'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지혜'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 '파괴적 욕망'
욕망은 마실수록 목마른 소금물

집착과 기대를 내려놓아야 '괴로움'이 빠르게 사라진다. 하나의 즐거움에 집착하면 쉽게 통제를 잃고 만다. 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슈퍼맨 같은 몇몇 사람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중 한번 달리기 시작한 뒤로 말 그대로 지금까지 멈추지 못하는 남자가 특히 눈길을 끌었다. 그는 달릴 때 느끼는 기분이, 특히 몸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때 솟구치는 엔도르핀의 느낌이 정말 좋다고 했다. 아침에 30㎞ 넘는 거리를 달리고 저녁에 15㎞를 달리는 일이 다반사라고 했다. 이 남자는 최근 50일 동안 미국 50개 주에서 마라톤을 50번 완주했다며, 그 경험을 니르바나에 비유했다. 나는 이 남자에 대해 엄청난 슬픔을 느꼈다. 이 사람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엔도르핀이 끊임없이 솟게 하려고 쉼 없이 달리고,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였다. 그는 아드레날린 중독자였다. 이런 사람은 운동의 쾌락에 집착하게 됐고, 그럴수록 쾌락과 쾌락사이 '시동을 끈 시간'을 견디지 못했다. 사람들은 이렇듯, 욕망의 충족이 곧 행복이라는 착각을 받아들이고 만다.

아니! 안 돼! 천 번이라도 말하지만, 안 돼!

"이게 좋아, 저건 싫어."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서 되풀이되는 말이다. 다시 말해 혐오 역시 욕망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다. 뒤집힌 욕망, 즉 똑같은 충동이되 정반대의 모습을 지니는 것이다. 우리는 온종일 원하는 마음과 회피하는 마음 사이를 오간다.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포기'가 올바른 방법이 아닌 이유다. 물질적 쾌락을 '회피'하는 것은 역으로 그것을 '원한다'는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또는 뭔가 다른 걸 원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미래에 고통을 일으킬 것을 만들어내는 걸 꾸준히 억제해야만 미래의 고통을 피할 수 있다. 원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을 때 현재의 고통을 덜 수 있다. 원하는 것에 집착하고 원치 않는 것을 피하는데 집착 하는 것에서 고통이 온다.

불편한 정서와 맺어온 습관적 관계를 끊음으로써, 괴로움에 종지부를 찍고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 만족감은 괴로움을 피하려고 뭐든 다 해서가 아니라, 괴로움과 정면으로 맞서 괴로움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놓아야 얻어진다. 결국, 고통을 '회피'하는 것은 고통에서 '도망치려고' 쾌락을 좇는 것보다 나을 게 없다.

보통 의뢰인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고통을 겪고 원치 않는 감정에 시달린다. 배우자, 자녀, 동료 또는 친구들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대를 가하거나 상처를 주는 관계를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다. 누군가 일부러 우리를 해치려 한다면, 그 행동의 책임은 전적으로 상대에게 있다. 나를 해치려는 사람을 피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불편한 정서를 피하는 것과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우리 자신의 몫이다. 자신이 행복을 위해 마음을 다스리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달리 말하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고, 반감과 집착이 운전석에 앉을 때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만 행복이 온다.

사랑과 사랑에 빠지다

영화, 책, 각종 미디어가 앞다투어 '사랑에 빠지는 일'을 행복의 기적이라며 찬양한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랑에 대한 욕망이야말로 큐피드의 화살 통에서 가장 파괴적인 화살이다. 우리의 행복이 다른 누군가에게 달렸다는 생각이 그 화살에 묻어 있는 독약이다.

'건강한 사랑'은 기대와 집착 없이 상대를 따뜻하게 품는 것이다. 이런 사랑은 상대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며'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가슴으로 빚어낸 사랑을 자유롭게 기꺼이 선물로 주는 것이다. 따뜻하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가 가장 좋은 것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식당의 제일 좋은 자리, 나의 가장 좋은 모습, 최고의 직장,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기를 말이다. 사랑은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사랑이란 내적 행복과 충만감의 표현이다. 하지만 문제는 사랑이 지니는 함정이다. 우리는 상대를 옆에 두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면, 대개 그 느낌에 매달려 행복하려면 상대가 '필요'하다고 믿게 된다. 그리고 이 느낌을 잃고 싶지 않아한다. 진정하고 건강한 사랑을 원하지만 혼란에 빠져 잘못된 판단을 하고는 고집스럽게 이를 좇는다. '이기적이지 않은' 진정한 사랑은 매달리고 소유하려 하는 순간을 변화시킨다.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그녀는 나를 이용할 뿐인가?" "그렇게 애썼는데,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거야?" "나만 바보가 되는 건지도 몰라." 같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빠르게 사라진다. 순수한 사랑과 집착은 함께 있을 수 없다. 하나의 방이 밝으면서 동시에 어두울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북돋움'에서 펴낸 〈마음은 어떻게 오작동하는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마음훈련3

여유로운 시간에: 나는 어디서 왔나?

시간을 들여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이다. 준비가 되면 먼저 이 순간, 바로 지금의 자신을 생각하는 것으로 훈련을 시작한다.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이라는 식으로 대답해보자.

이제 오늘 아침, 아침 식사를 하기 전으로 돌아가본다. 그 시간에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나. 지쳐 있던 '나'는 누구였나? 그때의 '나'를 만든 '지원 체계', 그 '나'라는 사람을 바라보자. 이제 어린 시절로 돌아가보자. 유년기의 한때를 떠올려보자. 진심으로 느끼고, 마음을 다해 바라보자. 당신이 온 곳, 바로 부모님과 탄생의 시점으로 돌아가보자. 탄생을 경험하는 '나'를 느껴보자. 이 경험 속에 몇 분간 머무른 후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오자. 이 훈련을 통해 '나'는 수많은 요소로부터 창조된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

931호 | 불자정보

TEL 02) 2004-8215(直)
FAX 02) 737-0696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리니다.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양산시 하북면 부근
- 3층 건물 중 2층 40평
- 전세 시설비 포함
- 2,000만원에 월 35만원

010-6434-3389

암자안내
- 위치: 울산 야음동
- 건평 130평
- 한옥3채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10-2345-5558

사찰안내
- 위치: 영덕군 영해면
- 평수 73평
-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 가액: 9천만원

010-2510-0955

사찰안내
산세 수려하고 전망 좋은
서울 수도권 전통사찰입니다
신도 포교도량을 찾는
사부대중은 연락하십시오
부지 200평외 웅장하고 아름다운 사찰
가액: 9억

010-5466-3321

토굴(급)안내
- 위치: 충북 옥천군 안남면 지수 3길 39
- 가액: 1950만원

010-5407-8034

경북(봉화)사찰부지안내
- 양도 가액: 상담 후 결정
- 물야면 수식리 응봉산 아래
- 두필지 1,098평
- 지방도로접, 전기, 전화인입
- 부지내 약수터 있음
- 부지내 건물1동,컨테이너1동
- 부지뒷산 자연산송이 산지
- 마을과 조금 떨어져 있음
- 봉화군청에서 20분 ,봉화역에서 15분 소요

010-9663-5578

사찰안내
- 위치 : 여수 돌산 둔전리 여수시내에서 20분거리
- 땅 : 총 250평, 요사채 1동
- 대웅전 1채, 산신각 2층 1동
- 양도가액 : 2억(절충가능)

꼭 하실분만 전화 요망

011-9765-5302

광양토굴
- 위치: 전라남도 광양읍
- 평수 대지 100평
- 법당(삼존불, 탱화, 산신)방 4개
- 시설비 2000만원(집기일체)
- 보증금 500만원 월 10만원
-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396-7737

제1회 한국불교 홍익범패단 학인 모집 (서울범패)

소승은 한국불교 범음범패 및 불교무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10여년을 연구하고 공부해 온 염불승으로서 한국불교 홍익범패단 창단을 꿈꾸고 있습니다. 뜻있는 분들께서는 직접 오셔서 일차로 청강하시고 뜻을 함께 하실분은 연락바랍니다.

강의내용

1. **기초 :**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도량석, 종송, 조석예불, 사시불공, 요령, 목탁, 태징,북 등 사물 다루는 법.
2. **중급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청, 상용영반, 관음시식, 고혼소, 봉청(짖소리), 39위, 복청게, 고혼청, 헌좌게, 진령게, 칠언사구성, 가영, 향화청, 고아일심귀명정례, 긴소리, 짧은소리
   범패 – 요잡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도량게, 다게, 법고춤, 호적
3. **상급 :** 시다림, 다비, 일반장례, 산신제, 용왕제, 방생, 생전예수재, 수륙재, 종사이운, 괘불이운, 종사영반 화청, 공덕게

■ **접수기간 : 수시모집**
■ **회 비 : 월10만원, 6개월 50만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2장**
■ **장 소 : 김해사암연합회 불교문화원 3층 법당**
■ **주 소 : 김해시 흥동 7-5번지**
■ **전 화 : 055)322-0088 / 055)332-1675**
■ **강 주 : 민지효 010-4466-3575**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모자 사이를 갈라 놓는게 자비 입니까”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11)

라후라가 출가하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목련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가비라국으로 가서 나의 부모와 친척들에게 문안을 여쭈어라. 그리고 라후라의 어미에게 나의 아들 라후라가 사미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여라. 어미 자식 사이의 은혜니 사랑이니 하는 것은 잠깐 지나가고 마는 것이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면 서로가 알아보지도 못하는 허망한 것이다. 라후라가 도를 얻으면 당연히 돌아와 어머니를 제도할 것이니, 영원히 생사의 윤회를 끊게 한다면 지금의 나와 같이 될 것이다.”

목련이 가비라국에 이르자 라후라의 어머니, 야수다라는 부처님께서 보낸 심부름꾼이 왔다는 소식과 그 이유에 대해 듣고서 라후라를 데리고 높은 누각으로 피했다. 목련이 누각으로 날아 올라가자 야수다라는 어쩔 수 없이 예를 갖추고 물었다.

“세존께서는 안녕하십니까? 존자가 가비라국을 찾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련은 말했다.

“태자 라후라의 나이 벌써 아홉 살이 되었습니다. 출가하여 성인의 도를 닦고 배우게 하셔야 합니다.”

목련 존자가 부처님의 뜻을 전하자, 야수다라가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태자였을 적에 저를 아내로 맞아들이셨습니다. 내가 태자를 받들어 섬기기를 천신 섬기듯 하였는데, 5욕(欲)의 즐거움을 버리시고 궁을 나가셨습니다. 그때 약속하시기를 ‘도를 얻으면 맹세코 돌아오겠다.’ 하셨습니다. 도를 얻고 나라에 돌아오셨을 적에도 돌아오시기는 하셨으나 모든 가족들을 길에서 만난 남처럼 대하셨습니다. 나를 외로움 속에서 구차하게 살게 하시더니, 이제는 나의 아들까지 빼앗아 권속으로 삼으려 하십니다. 어떻게 이토록 혹독하게 하십니까? 태자께서 도를 이루고서는 스스로가 자비로운 이라 말씀하시더니, 모자 사이를 갈라놓는 게 자비란 말씀이십니까? 라후라를 출가시킬 수 없습니다. 돌아가셔서 세존께 제가 말한 대로 전해 올리십시오.”

목련은 우선 정반왕에게 이상의 일을 자세히 전했다. 정반왕은 이 말을 듣고 세존의 이모이자 유모인 대애도(왕비)에게 말했다.

“나의 아들 싯달타가 라후라를 데려다 성인의 법을 배우게 하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어미 되는 야수다라가 어리석게 애착하여 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설득하여 그로 하여금 마음을 깨치도록 해보십시오.”

대애도 부인이 두 번 세 번 되풀이 하여 야수다라를 설득하였으나 야수다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대애도에게 말했다.

“제가 예전 친정에 있을 적에 여덟 나라의 왕들이 다투어 와서 구혼하였습니다. 저의 부모는 모두 허락하지 않으시다가 태자가 마음에 들어 저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태자가 세상에 머무르지 않으려 했다면 무엇 때문에 간절히 애쓰면서 저에게 구혼을 하였을까요? 무릇 사람이란 아내를 가지면 바로 은애하고 좋아하며 자손을 이어가는 것이 세간의 바른 예입니다. 그 예를 버리고 태자도 떠났으면서 다시 라후라까지 출가시켜 영원히 나라의 후사를 끊으려 하니 이게 무슨 의로움입니까?”

왕비 대애도는 이 말을 듣고 묵묵히 말이 없었는데, 부처님께서 분신을 보내어 공중에서 야수다라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옛날의 서원을 기억하는가? 내가 보살이었을 적에 5백의 은전으로 그대에게서 다섯 송이의 꽃을 사서 정광불에게 올리려 했던 적이 있었다. 그대는 두 송이의 꽃을 맡기면서 말했다.

‘다음 생에 태어날 때마다 언제나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말했다.



삽화 · 강병호

‘나는 보살이라 온갖 것을 다 보시해야 합니다.’

나의 말을 듣고 그대는 다음과 같이 맹세했다.

‘다음 생에 태어날 때마다 나라거나 성이거나 아내거나 아들이거나, 심지어 제 몸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대를 따르며 보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무엇 때문에 라후라에 미련을 두는가?”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야수다라는 잊었던 그 일들을 마치 어제 일처럼 확연하게 떠올랐다. 아들에 대한 애착이 차츰 식어지므로 목련을 불러서 지난 일을 사죄했다. 그리고 라후라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부촉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별했다. 라후라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세존을 기필코 뉘우치게 하겠으니, 어머님은 근심하지 마소서. 곧 돌아와서 받들겠습니다.”

라후라가 출가하기 위해 부처님께 간다고 하자 여러 호족의 아들 50명이 라후라를 따라 함께 출가했다.

부처님은 사리불이 화상이 되고 목련이 아사리가 되어 그들에게 10계를 주도록 명하셨다. 부처님께서는 50명의 사미들을 위하여 선제라(고대 인도의 사성(四姓) 가운데 가장 낮은 천민 계급) 등의 전생의 죄와 과보를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들은 라후라가 크게 근심하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는 크신 지혜와 덕망이 있기에 최상의 공양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어린아이들이 어리석고 덕도 없으면서 남의 훌륭한 보시를 받다가는 후세에 선제라와 같은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하건대 부처님께서는 저희를 가엾이 여기셔서 저희들이 업을 짓지 않게 하시고 그 허물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다. 두 사람이 굶주리고 있다가 갑자기 주인이 마련한 맛있는 음식을 한껏 먹고 나서 배탈이 났다. 마침 한 사람은 지혜가 있어 약을 먹어 화를 면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지혜가 없었기에 산 것을 죽여 제사를 지내며 살아나기만을 빌다가, 결국 병이 낫지 않아 죽고, 후에 지옥에서 다시 나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이다. 라후라야 너는 지금 배탈이 날 것이 두려워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이며, 배탈이 났다면 약을 먹는 것이 지혜다. 큰 지혜와 덕망을 갖추도록 수행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 단정지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다. 너희는 착한 인연이 있어서 나를 만나게 된 것이다. 약을 먹고 고통에서 건져질 것이다.”

라후라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마음이 열렸다.(〈미증유경 상권〉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⑪



늘 닮고 싶은 스승

고암 스님과의 인연

스물세 살 때로 기억된다. 부산 불교 청년수련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해인사에 갔다. 성철 스님이 퇴설당에 계셨고 지월 스님께서 주지로 계실 때였다. 고암 스님이 조계종 종정으로 계실 때였다. 지금의 송광사 방장이신 보성 스님과 일타 스님, 법정 스님, 지관 스님 모두 젊었던 시절이었다. 수련회에 참가한 우리는 수련회라는 생각보다는 특별한 나들이라는 생각에 모두 들떠있었다. 수련생으로서 지켜야 할 사찰예절을 잊고 취침 시간이 되어서도 잠이 오질 않았다. 함께 한 수련생들과 좀 더 놀고 싶어서 스님들에게 떼를 썼던 기억이 난다.

지금 송광사 방장이신 보성 스님이 수련회 책임을 맡았던 것 같다. 스님은 밤늦게까지 수련생들에게 잣을 까주셨다. 어쩌다 스님이 잣 한 알이라도 바닥에 떨어뜨리면 서로 먼저 주워 먹겠다고 난리를 피우며 깔깔거렸다. 밤이 깊은 줄도 몰랐다.

새벽예불 때, 스님들의 거룩한 모습에 우린 모두 감화되기도 했다. 성철 스님 법문으로 시작하여 돌아가며 법문을 청해 듣고 오계를 받았다. 우린 고암 종정 스님을 찾아가 계를 주시고 법명을 주실 것을 청했다. 스님께서는 다른 큰 스님들이 계시니 본인은 사양한다고 하셨다. 우리는 물러나지 않고 스님이 해주신다고 할 때까지 절을 하자고 약속했고, 우리가 절을 하려 하자 절 받기를 무척 싫어하시는 스님께서 우리의 청을 받아주셨다. 그리하여 스님은 법석에서 계를 주시고 일타 스님, 보성 스님, 지관 스님, 법정 스님이 증명해 주셨다. 그때 받은 법명이 대원성이며, 함께 수련회에 참가했던 남편도 그 때 성원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당시 해인사엔 큰스님들이 많이 계셨다. 그렇게 큰스님들을 한 자리에서 뵐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크나큰 행운이었다.

제대로 보답 못해 두고두고 후회

여덟 살 손자도 스승

그 후 내가 지금의 남편과 결혼할 때에도 고암 스님이 결혼식 날을 잡아주셨고, 첫 아들의 이름 영준도 스님께서 지어주셨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넷이 됐을 때 스님께 안부를 여쭈었더니 스님께서는 아이들 네 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며 안부를 챙기셨다. 스님의 자상하고 인자하심은 이미 알려진 일이긴 하지만 우리에겐 더없이 자비하신 할아버지 같았다.

스님이 설악산 신흥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부산에 오셨다가 가시는 길에 전화를 하셨다. 스님을 뵙기로 하고 서둘러 나갔는데, 아이들 셋을 데리고 나선 길이다보니 시간이 좀 걸렸다. 스님 기차시간 때문에 못 뵐 수도 있겠다 싶어 걱정에 걱정을 하면서 걸음을 서둘렀고, 그냥 가셨어도 할 수 없다 생각했다. 역사에 들어섰을 땐 이미 스님이 말씀하신 기차시간이 지났을 때였다. 혹시나 싶어 역사를 둘러보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멀리 스님이 보였다.

“스님! 안 가셨어요? 기차 시간 지난 것 아니에요?”

“지났지.”

“그런데 왜 안 가셨어요?”

“기차는 조금 전에 떠났고, 표는 다음차로 바꿨으니 괜찮습니다.”

이런 민망하고 죄송한 일이 또 있을까. 나는 죄송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스님은 오히려 미안해하는 마음 덜어주시려고 계속해서 괜찮다는 말씀만 하셨다.

“괜찮다. 기차야 다음 기차 타면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 와서 어찌 그냥 갈 수 있나? 아이들 얼굴도 눈에 밟히고 해서 그랬다. 미안해 하지마라.”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만큼 죄송하고 스님의 따뜻했던 마음이 생각난다. 나중에 두고두고 내가 후회스럽고 죄송스러운 것은 그 따뜻한 마음에 보답을 제대로 못해드린 것이다.

막내가 태어났을 때다. 나는 기장 미역과 조금의 공양미를 부쳐드렸더니 스님께서 미역국 끓여 대중공양 잘했다고 소식을 전해왔다. 나중에 생각하니 스님 계신 신흥사는 더 좋은 미역이 있는 것임을 깨달았다.

연꽃모임을 만들었을 때도 스님은 아주 잘했다며 칭찬해 주셨고, 주머니를 털어 우리회원들에게 공양도 내셨다. 스승이란 그런 것이었다. 늘 좇아갈 수 없는, 늘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 스승이란 생각을 했다. 지금은 스님의 영정을 부처님 방에 모시고 늘 그리워하며 살고 있다. 늘 닮으려 살고 있다.

여덟 살 외손자

지난 추석 명절 때 여덟 살 외손자의 말이 생각난다.

“할머니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하고 묻는다. 나는 무엇일까 한참을 생각했다. 답이 금방 떠오르지 않았다.

“할머니, 그건 땅이잖아요. 땅은 산도 나무도 그리고 이렇게 많은 집과 무거운 건물들, 온갖 것들을 다 이고 있잖아요. 그러니 땅이 제일 힘이 센 거예요.”

여덟 살 손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칠순의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일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마치 법문을 듣는 기분이었다. 내가 몰랐던 이야기니 법문이었다.

법문이라는 것이 거창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법문과 스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마음이 따라가고, 마음이 듣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스승이고 법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이 모두 스승이란 생각을 하게 됐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稀潭石 희담석 www.jawonet.com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전자파 걱정 없는 희담석 온열매트로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희담석 에너지가 고객님의 건강을 증진시켜 드립니다.

희담석(稀潭石)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력이며, 제오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 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온열매트는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수맥파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희담석 온열매트
● 1인용 : 58만원 ● 2인용 : 85만원
제품 사양
• 내용물 : 희담석 볼 (희담석 60% + 제오라이트 40%)
• 열 선 : 실리콘 테프론 무자계 열선
(전자기장으로부터 안전한 열선으로 고가의 침대에서만 사용하는 열선)
● 크기
1인용 : 100㎝ × 200㎝
2인용 : 150㎝ × 200㎝

정신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상쾌해지는
희담석 방석
사용방법
좌선용, 학생 및 사무용 의자, 소파, 차량 등에 사용하십시오.
희담석 방석은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해야 하는 운전자, 학생, 사무원, 스님 등 수련하시는 분들께 매우 유익합니다.

고급신형
● 50,000원 (색상 : 황토색) (사이즈 450mm×450mm)
※ 오래 앉아 있어도 땀이 차지 않습니다

명상과 함께 하는 -
희담석 염주목걸이
건강과 활력을 주는
희담석의 무한한
에너지 방사능력을 체험해 보세요.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수행하시는 스님 및 불자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
· 목의 뻐근함을 느끼시는 분
· 피로가 누적된 분
·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수험생
·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샐러리맨
정 가 66,000원
↓
할인가 56,000원
합장주 35,000원 → 할인가 30,400원
염주목걸이+합장주 SET → 84,000원

숙면으로 이끄는 -
희담석 베개용 패드
사용방법
베개 위에 올려놓거나 베개 커버를 벗겨서 패드를 올려 놓은 후 다시 커버를 씌우고 사용합니다.
(뒷면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 아침에 일어나서도 개운하지 않는 분
· 두뇌 활동이 많은 학생
· 스트레스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 등

● 25,000원 (황토색)

www.jawonet.com에서 카드 구입시 2, 3, 5개월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제품문의 011-9230-2335
자원넷 JAWONET CO.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4호 금구빌딩 B103호 TEL (02)3476-2335 FAX (02)3476-2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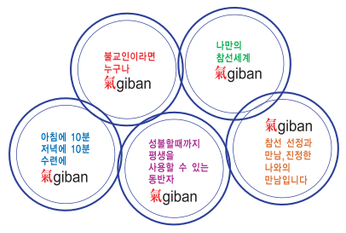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 스님

일체제불과 더불어 일체 생명 전체에 감사할 줄 알라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에 앉게 돼서 기쁩니다. 한편으로는 여기에 자주 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좀 안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주 만나 뵈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학술적으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나왔다면 모든 것은 자기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자기로부터 세상이 벌어졌고 자기로부터 상대성 원리가 생긴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조사들은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라." 했습니다. 우리는 정신계 50%와 물질계 50%가 상응하면서 작용을 해야만이 100% 인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계 50%에 의해 관습이 생기고 그 습성에 끄달려서 '꼭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하는 고집이 생기고, 거기에 그만 자기가 자기를 창살 없는 감옥에다 넣고 한 발도 떼어 놓지 못하게 묶어 놓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지요. 그 마음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주의 삼천대천세계의 근본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의 근본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살림살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모두가 인연에 따라서 가설이 돼 있습니다. 가설이 돼 있어서 그걸 가지고 공생 · 공용 · 공체 · 공식화 하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바로 인간의 마음에 가설이 돼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생각하고 마음먹고 행하고 말하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주간 법계에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모두 두루 알고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주간 법계라는 얘길 했습니다. 자신이 어질러 놓은 거, 자신이 저지른 거, 자신이 잘하고 간 것들이 전부 과거로부터 현실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럼 과거가 따로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죠. 과거라는 것이 어저께도 과거요, 아까도 과거요, 일 초 전도 과거입니다. 그런데 과거라면 우리가 나기 이전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기 이전에 살던 그 자체가 스스로 입력이 돼서 우주간 법계에서 모두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숙명통, 즉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듯이 그렇게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건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하죠. 천차만별로 자꾸 나오니까 말입니다. 자기가 한 것대로 산 것대로 행동한 것대로 말한 것대로, 모든 것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내가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입력이 돼서 나오는데다 입력을 다시 해라.' 이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땅에 엎드러지면 땅을 짚고 일어나지요? 딴 데 짚고 일어날 수가 없죠.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듯이 '나한테서 나오는 것은 나한테서 해결을 해야 한다.' 하는 건 정신계에서 벌어진 것은 정신계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무심의 도리가 바로 그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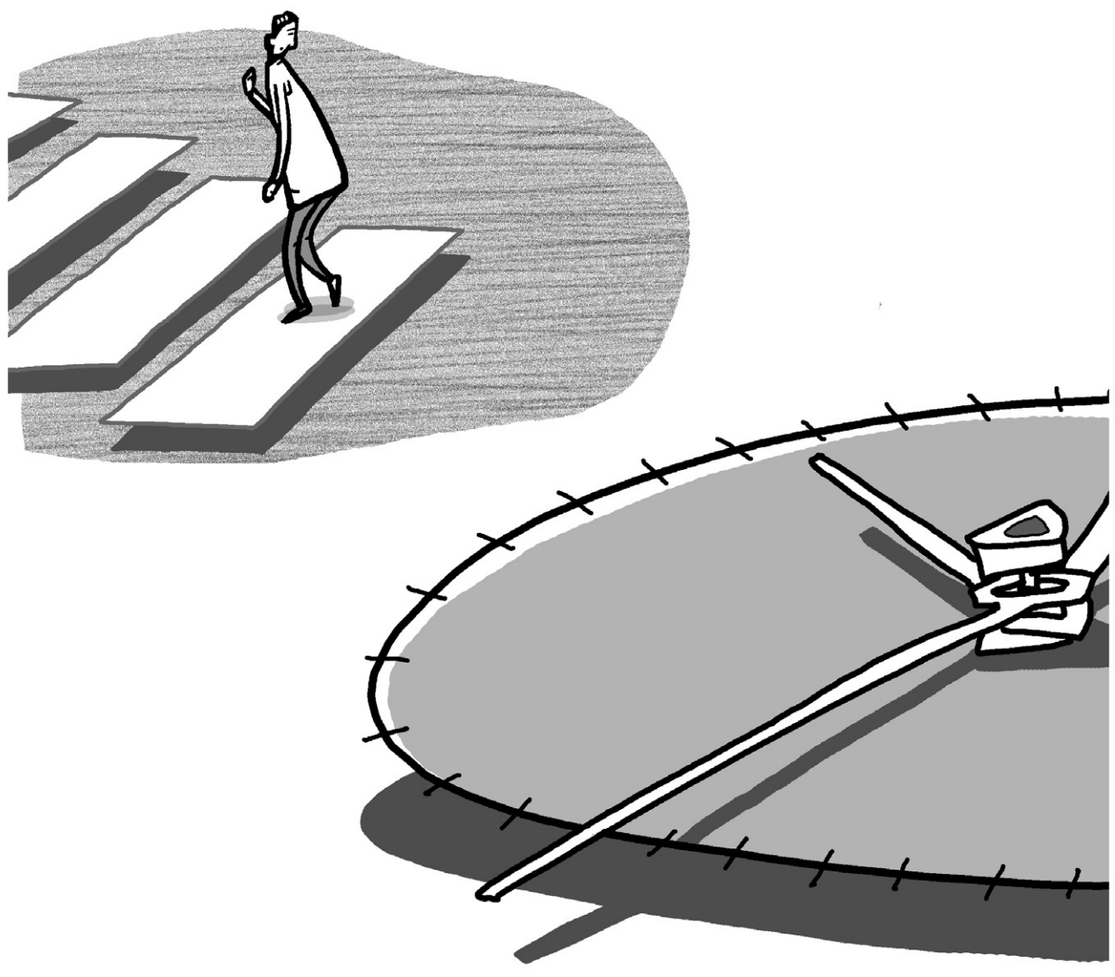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현실로 나오는 모든 것을 거기 맡겨 놔라. 천차만별의 생활을, 들이고 내는 거를 거기다가 맡겨 놔라. 내 한마음 주인공에다 맡겨 놔라.' 이러는 겁니다.

'한마음 주인공이라는 건 뭐 말라빠져 죽은 건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부모에게 몸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있어요. 그것에다 과거에 자기가 산 것대로 입력된 그 업식이 잔뜩 인연이 돼서 거기에 포함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실에 몸 하나를 받아 가지고 인간으로 출현되죠. 출현이 되면 거기에 모습과 생명, 의식들이 수십억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거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고, 어떤 거 말했을 때 내가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수십억의 생명들이 있고 의식들이 있고 모습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라고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마음!

그런데 그 의식들은 자기가 산 것대로, 한 것대로만 생각을 하고 나오지 변동이 없어요. 이 속의 중생들은 잘되고 잘못되는 거를 도무지 몰라요. 인간의 마음이 다스려야만 되는 겁니다. 인간은 99%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내가 행동을 잘하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고, 또 누가 되게 하는 일이라면 다스려서 거기 놔라 이겁니다. 다스려서 맡겨 놔라. 그렇게 다스리는 그 마음이 한생각을 낼 때에 '도둑질을 한다.' 하고 생각을 하면 도둑질하는 대로 몰아 줍니다, 이 마음들이 말입니다. 또 내가 '좋은, 선의적인 일을 해야지.' 한다면 그냥 그대로 또 따라 줍니다. 그러니까 악법 선법이 다 한마음 속에 있다 이겁니다. 마음속에 있는데 여러분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바로 지옥도 있고 천당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현실도 너무 많이 찰나에 화해서 돌아가니까 공했다. 그래서 무(無)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세히 한 번 더 말씀을 해 드린다면, 가정에서도 여러분 이름이 많죠? 아버지라는 이름도 있고 아들이라는 이름도 있고 사위라는 이름도 있고 남편이라는 이름도 있고, 이름이 좀 많습니까? 생각들 해 보세요. 형이다 아우다 뭐 별 이름이 다 있죠. 그런데 남편이 됐을 때 나라고 할까요, 자식이 됐을 때 나라고 할까요, 또 아빠가 됐을 때 나라고 할까요? 나라고 할 수 없는 게 부처예요. '내가 했다' '나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도리가 바로 이 세상 진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만사가 다 그렇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기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 놓았습니다. 동방에는 아촉이라고 지어 놓고, 서방에는 아미타라고 지어 놓고, 이 세상 사바세계에는 관세음이라고 지어 놓고, 지천국에는 지장이라고 지어 놨던 겁니다. 이름입니다. 여러분을 아빠다, 아들이다, 남편이다 하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용신이라고도 했고 지신이라고도 했고 또 신중이라고도 했고 사왕천이라고도 했고 약사라고도 했고 뭐, 좀처럼 해서는 그 이름을 다 부르지도 못합니다. 한마음에서 모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자체는 부처님이지마는 왼쪽에는 문수 바른쪽에는 보현, 이렇게 삼불을 해 놓은 것은 바로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있으면 법이 있고 또 움죽거림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문수는 한생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참나를 보려면 진실되게 믿고 진실되게 구해야

☞ 29면에서 계속

각을 내는, 바로 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생각을 내면 움죽거립니다. 움죽거리는 걸 보현이라고 그랬습니다, 화신. 그러니 그 셋이 모습은 따로따로 있을지언정 어찌 마음이야 둘, 셋이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모두들 참선, 좌선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이걸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생활을 떠나서는 참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 법도 없습니다. 이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앉으나 서나 생활이 그냥 참선이기 때문에 행선 와선 입선 좌선을 한데 합쳐서 참선이라고 그런 겁니다. 앉아도 여러분이 앉은 것이고 선 것도 여러분이 선 것이고, 눕는 것도 여러분이 눕는 것이고, 똥 누는 것도 여러분이 똥 누고 먹는 것도 여러분이 먹고, 자는 것도 여러분이 자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라면 부처는 없죠. 아니, 부처만 없는 게 아니라 세상도 없고 가정도 없고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소에 들어가도 내가 거기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겁니다.

또 이런 게 있죠. 참선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론과 학설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염불 잘하고 또 교리를 잘 알아서 말을 체계 있게 잘하는 것만이 참선이 아닙니다. 내가 살면서 실험하고 체험하면서 자꾸 느끼면서 가는 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마음을 찾고 발견해서 발전시키고 창조력을 기르고 생활이 과학인 줄 알고 그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참선입니다. 이 세상에 어린애를 임신해서 낳는 것도 바로 과학입니다. 모를 심어서 쌀을 만드는 것도 과학입니다. 그 쌀로 밥을 지어 놓는 것도 과학입니다. 어느 것 하나 과학 아닌 게 없습니다. '어느 것은 과학이고 어느 것은 과학이 아니다.' 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물리가 터지려면 이런 것도 좀 알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일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왜 스님네들이 허허벌판에 가만히 앉아 있기도 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풀섶에 그냥 앉아 있기도 하고, 물이 흘러 내려가는 데 앉아 있기도 하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러는 데 앉아 있기도 하고, 높은 산골짜기에 앉아 있기도 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감사한 줄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쇳송을 했지만 '오종대은(五種大恩)을 알라. 오종대은을, 대은을 알라. 일체제불과 더불어 일체 생명 전체에 감사할 줄 알라.' 이 소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도 내지 않고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도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지수화풍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알고 이 세상 풀 한 포기도, 곤충 하나도 감사히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된다 이겁니다.

그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쫓고 쫓기면서 먹히고 먹으면서 이 세상을 거듭거듭 걸어 나와서 진화돼서 제일 나중에 인간이 됐다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모만 내 부모요 어느 자식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거듭거듭 거치면서 짐승의 부모도 됐다가 짐승의 자식도 됐다가, 곤충의 부모도 됐다가 곤충의 자식도 됐다가, 또 딴 부모의 자식이 됐다가 딴 자식의 부모가 되고, 거듭거듭 구름이 한데 모였다가 흩어지고 또 딴 구름하고 또 모이고 또 흩어지고 또 모이고 이렇게 하는 것과 우리 인생살이가 다 같습니다. 그러니 남의 부모는 남의 부모고 내 부모만 내 부모라고 할 수 없는 그 도리가 바로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종대은을 아는 사람은, 모두가 둘이 아닌 줄을 아는 사람은 보살의 행을 할 수가 있다, 모든 데에 착을 두지 않고 사랑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게 있죠. 부모가 자식을 조건 없이 사랑하지 조건을 붙이고 사랑합니까? 자식을 생각할 때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게 바로 부처님의 자비란 말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사랑,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흔히들 말하는 사랑은 이기적이기도 하고 조건이 있고 이익이 있어야 주고, 모두 이렇게 삽니다. 이게 어떻게 보시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무주상 보시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무심 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건 없이 이익을 줄 수 있는 자비심을 내라 이겁니다. 한 가정에서도 자식이 아무리 잘못된다 할지라도, 또 남편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부인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인공!' 하고 주인공을 부르고서 거기다가 맡겨 놓고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러운 행동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해 주면 그쪽에도 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없더라도 조건 없는 자비를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행동, 말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전구는 달라도 전력은 다 똑같으니까 바로 공을 치면 공이 튀어오르듯, 내 마음의 스위치를 올리면 그쪽에도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가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부모다 자식이다 이렇게 가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심도리의 그 줄은 가는 사이도 없고 오는 사이도 없이 그쪽에도 불이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밝아지면, 자식이라는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쪽에도 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가정을 융합시키고 화합하게 하고 다복하게 하고 사십시오. 돈이 달아나가게 하지 말고 나를 쫓아오게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배낭을 짊어진 채 한 철 사는 건데
뭐가 그렇게 응어리가 지고
뭐가 그렇게 억하심정이 있고
그 가슴에 멍이 들고 그럽니까.
그런 걸 다 푸시고
한마음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맡겨 놓으세요.

돈이고 저런 흙이고 돌이고 생명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돌아가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법상을 두드리시며) 이것도 지금 돌아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두를 가지고 그게 끊어질까 봐 붙들고 얽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옳다고 하면서 타의에서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가 진실되지 못합니다. 진실되게 믿으면서 진실되게 구한다면 진실된 나를, 참나를 구하는 소식을 그때서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봐서 다 아시겠지만 피나는 노력이 아니라면 어떠한 경험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술도 그렇고 모든 게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이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활에서 행하는 게 그대로 참선이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믿습니까? 허공을 믿습니까, 이름을 믿습니까, 형상을 믿습니까, 스님들의 고깃덩어리를 믿습니까? 말해 보세요. 모든 거를 잘 살펴봐서 세 가지가 다 충분해야만 따르라고 했습니다. 믿는 건 자기를 믿는 겁니다. 자기, 즉 수십억 마리를 사람 마음으로 다스려서 한마음으로 묶어 세운다면 그게 바로 주장자입니다. 그리고 중심입니다. 중심이면서도 찰나찰나에 돌아가니까 공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런 풀잎 하나도 감사하고 저 흘러 내려가는 물도 감사한 겁니다. 물이 여러분한테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이구, 나같이만 살면 아무 일 없을 텐데….' 하하하…. '나는 어떤 게 막혀도 그냥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니까 아무 지장이 없는데, 막히면 그냥 뚫고 나가려고 애쓰니까 막히는 거지.' 하고 흉을 봅니다. 흙은 흙대로 자기처럼 살라고 합니다. 아무리 파 재끼고 아무리 마구잡이로 해도 이렇다 저렇다, 왜 파느냐, 아프다 어떻다는 말 한 마디 없어요. 뭐, 뒤집건 메꾸건 짓밟건 말입니다.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개나 고양이나 풀 이파리나 꽃이나 나무나 물이나, 어떠한 거든지 둘 아니게 통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귀신이라고 그러죠? 귀신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혼백이라고 해도 좋고 영령들이라고 해도 좋아요. 모지락스럽게 귀신이라고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귀신이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나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둘로 보지 않는다면 서로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말이 통해요. 개가 서로 반갑다고 그러는 게 우리에게는 싸우는 거같이 보이겠죠? 그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가 들에 나가면 서로 장난하고 그러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소리인데도 다른 사람이 볼 땐 싸우는 걸로 봅니다.

모두를 나같이 알고, 즉 여러분같이 알고 감사히 생각하라. 그 은혜를 생각하라. 국왕의 은혜도 알아야 하고 국민의 은혜도 알아야 하고, 부모의 은혜도 알아야 하고 형제의 은혜도 알아야 하고, 사장(師長)의 은혜도 알아야 하고 모든 은혜를 알아야 하는데, 더불어 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 수는 없죠. 혼자 산다면 옷도 입지 말아야 하고 먹을 것도 먹지 말아야 하고 뭐, 땅도 딛지 말아야 하고 이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유를 창조해 나가는 인연의 필연적인 법칙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만 말할까요? 여러분이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이라는 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살다가 의문 나는 것을 말씀하시라 이겁니다. 부처님 법이라는 게 높은 것도 아니고 아주 얕은 것도 아니고, 우리 평상시에 사는 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모두 도를 통했습니까? 하하하…. 질문하실 분들 없어요?

우리는 마음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떠나서는 말입니다. 모두가, 천문학도 지리학도 의학도 과학도 마음 떠나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식들이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구하려면 진실해야 하고 너 아닌 너와 네가 항상 자문자답하면서, 잘못된 거면 다스리면서 나가야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항상 그냥 자나깨나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본래. 본래 끊어지는 게 어딨습니까? 자도 자는 게 아니요 깨도 깨는 게 아니요 그대로 움죽거리는 겁니다. 아니, 자다가는 움죽거리지 않습니까? 몸뚱이는 재워 놓고 자기가 나가서 온통 돌아다니고 이 야단들을 하는데 어떻게 움죽거리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배낭을 짊어진 채 한 철 사는 건데 뭐가 그렇게 응어리가 지고 뭐가 그렇게 억하심정이 있고 애틋하고 그 가슴에 멍이 들고 그럽니까. 그런 걸 다 푸시고 모든 거를 거기다 맡겨 놓으십시오.

여기 와서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오신통이라는 자체가 이런 겁니다. 과거로부터 어떻게 왔나를 아는 것이 숙명통입니다. 또 심안으로 보는 것이 천안통입니다. 또 가고 옴이 없이 듣고 무전통신 하는 것이 바로 천이통입니다. 또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것을 신족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타심통입니다. 아무리 이 다섯 가지를 다 안다 하더라도 그건 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알고 보고 듣고 아무리 가고 오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물컵을 들어 보이시며) 이 물컵을 남한테 줘서 먹일 수 있고 내가 먹을 수도 있어야만이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 먹지 못하는 거, 무슨 소용 있습니까? 듣고 보고 먹지 못하는 거, 무슨 소용 있습니까?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1992년 3월 22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불자 세상보기

日 극우 밴드 위안부 '모욕'

'위안부' 피해자 복지시설인 나눔의 집 할머니들이 일본 록밴드 '앵란무류'를 고소했다.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협박 등이다. 그들은 노래를 통해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욕설을 퍼부었다. 이 같은 망동에 대한 불교계 목소리를 들었다.

"日 맹목적 우익 교육 중단해야"



법광 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일본군 위안부(일본에 의한 성노예)와 관련된 일본의 어리석음을 보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니 새삼스럽지도 않다. 인권의 선진국이라고 자칭하면서도 정작 인권을 유린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한 나라에 대한 기사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번의 록밴드의 구업은 일본 국가 차원에서 주도해 온 왜곡이 이제 민간에까지 두루 인식이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여 그 심각성이 더하다는 생각이다. 본 사태는 일부 철없는 록밴드의 행위라기보다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왜곡 교육을 해 온 과정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라고 보인다.

그동안 위안부 할머니와 아픔을 함께해 온 불교적 입장에서는 이러한 반 인권적인 언행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더욱 중하게 경계해야 할 것이다.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반성 없고 맹목적인 우익 교육이 지속되는 한 양국간의 발전과 공존의 길은 요원해 보인다.

불교계도 이제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일본의 역사 교육이 정견에 입각해 진행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자신의 내부를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과감히 인정하는 것이 진일보의 기본임을 일본의 정치인, 지성인,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인정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한다.

올바른 역사교육이 해결책



안신권 소장
나눔의 집

현재 일본의 국수주의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고 2007년 도중하차 한 아베 총리는 재집권 후 70%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 아베는 태평양 전쟁을 '아시아의 부흥을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은 '경제활동을 위해 자원한 사람들'로 보는 극우 성향이 짙은 인물이다. 이번 앵란무류사건도 집권세력에 편승해 이목을 받고 싶은 극우세력들이 저지른 만행이라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극우세력들의 행위에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평소 올바른 교육을 통해 근본문제를 인식하고 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

아직도 일부 한국인들은 나눔의 집 할머니들의 수요집회 현장을 보면서 "보상을 받지 못해서 시위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보상을 떠나서 주권을 빼앗긴 나라에서 나와 내 이웃이 당할 수 도 있었던 '전쟁범죄' 임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강경하게 대처하고 국민은 역사교육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을 세워야 한다.

나눔의 집 할머니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대를 많이 걸고 있다. 진보 · 보수 등 이념을 떠나서 같은 여성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더 공감하고 해결해 줄 것이라 믿고 있다. 할머니들의 평균연령이 88세다. 어쩌면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정부가 될 수 있다.

日 극우는 역사의식 부재 산물



이남재 사무총장
합천 평화의집

일본 극우세력의 망언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다. 이번에는 극우 락그룹 '앵난무류'가 입에도 담기 힘든 욕설이 담긴 노래를 직접 위안부 쉼터 나눔의 집에 보내왔다. 90노구의 할머니들은 그들을 고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들의 망언과 망동은 근본적으로 역사의식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실제 1982년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는 동아시아를 뒤흔들었던 사건이었으며 외교문제로 비화됐다.

한국은 여기에 자극 받아 성금을 모금해 독립기념관을 건립했다. 일본인의 '역사의식의 희박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이다.

한국사회 역시 반성해야 한다. 일본 극우 망동을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되며, 강력한 규탄 입장을 대내외에 공포하여야 한다. 또한 위안부 할머니뿐만 아니라 원폭 피해자 2,3세 등 세월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 미국의 뉴저지주 버겐카운티는 3월 8일 버겐카운티 법원 앞에서 일제강점기에 희생된 한국인 위안부를 추모하는 위안부 기림비 제막식을 개최했다. 미국 지방정부가 직접 우리 대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림비를 세운 것이다. 우리의 자리를 한 번 돌아봐야 한다.

社說

'어린이 불서' 좌시할 건가

학습만화를 필두로 한 어린이 출판은 연중 활황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콘텐츠 산업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학습만화의 2010년 매출액은 2341억 원을 기록했다.

활발한 일반 어린이 출판 시장과 달리 불교계 어린이 불서 시장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불서 총판 운주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9종이었던 어린이 불서 부수가 2011년 14종, 2012년 8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불교 미래의 씨앗인 어린이를 위한 문서 포교는 가뭄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성인 불서 출판시장과 같은 이치로 풀이된다. 불서의 수요가 없으니 공급이 없어지고, 이는 출판 질과 창작 의욕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다.

다만 전문 작가의 삽화 등 어른용 책보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 손익분기점도 높은 편인 어린이 책이라 그 여파가 바로 보여지는 것이다.

어린이 불서를 발간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약 3천부 가량이 구매돼야 하지만, 현실은 1천 권을 소비하기도 버겁다는 게 출판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어찌보면 명증하다. 미약한 어린이 · 청소년 포교 환경을 활성화 시키고, 이를 통해 어린이 불서가 꾸준히 소비될 수 있도록 일선 사찰에서 권선하는 방안이다.

종립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어린이 불서를 의무적으로 비치케 하고 종단 차원에서 아동 불서를 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출판사들 역시 시대에 맞는 어린이 출판 콘텐츠 개발과 신진 작가 발굴 등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 미래 불자들을 위한 불서 개발과 시장 형성에 불교적 대책이 필요하다.

종무행정학교 의무 상설화 하자

초급 종무원들에게 전문 종무 행정과 종단사 등 기본 소양을 교육하는 종무행정학교가 첫 문을 열어 주목을 끌고 있다. 조계종이 3월 6일부터 9일까지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연 종무행정학교 제1기 기본소양과정이 그것이다.

이번 학교의 목적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찰 운영을 위해 불교적 소양과 종무 역량을 함께 갖춘 종무원을 양성하는 데 있다. 이번에는 예비와 2년 미만의 신입 종무원들 대상이었다. 호응도도 높았다. 총 54명의 예비 · 신입 종무원들이 참가했다.

불교계 일선 현장서 일하는 종무원은 불교의 위기를 가장 먼저 느끼고 포착하는 첨병이자 실질적으로 한국불교와 종단을 유지해주는 기둥이다. 그런 점에서 상설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종무원 교육 프로그램이 생긴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사찰 종무원은 불교일만 하는 특수 직업이 아니다. 불교와 사찰도 사회의 일부이자 구성원인 것처럼 종무원도 사회의 한 구성원이다. 그래서 보편적 사고를 가지고 종무에 임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이번 4일 교육 동안에는 △종단 조직의 이해 △열정적 조직 만들기 △종단 역사의 이해 △사찰 운영사례 발표 △종무원의 자세 △사찰 운영과 기획 실무 △사찰문화의 이해 △불교교리 강좌 등이 진행됐다.

향후 조계종 총무원은 종무행정학교 기본소양을 이수한 예비 종무원들에 대해 임용에 있어 가산점을 부과하고, 일선 사찰과의 연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통일된 교재와 강사 섭외 등 세부적 부분도 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종무행정학교를 지켜본 교계의 여기저기서 상설화 필요성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다. 종무행정학교 상설화는 종무원 고용체계 확립과 종무원 배출, 배치와 순환이라는 구조를 확립하는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상설화와 함께 누구나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도 병행됐으면 한다.

발언대 – 부석사 불상 日반환 반대

"불상 환지본처에 국민 마음 모으자"



2월 26일 조계사 한 켠에는 작은 천막이 설치됐다.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는 일본정부에 대해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환지본처와 약탈문화재 66000점의 반환, 다케시마의 날 철회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불자인 김창근 씨가 단식정진에 들어가며 내건 것이다.

3월 6일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후송되기 까지의 수기를 지면을 통해 전한다.

2월 26일 저는 조계사에서 무기한 단식정진에 들어갑니다. '무엇을 위한 단식인가' 머릿속으로 계획은 세워보나 마음은 무거워 집니다.

일본정부는 야금야금 독도를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은 지역행사에서 정부차원의 행사로 격상되기도 했습니다. 머릿 속에는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가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의 교활한 웃음이 떠오르며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저는 1월 4일 일본특사단의 방한 당시 김포공항 입국실에서 '일본은 사죄부터 하고 방한하라'고 외치며 할복을 시도했습니다. 복부동맥이 끊어져 보름간 누워있을 때보다 지금 단식정진 때의 마음이 더 무거운 까닭은 무엇일까요.

한 현직 국회의원은 저에게 찾아와 외교문제를 고려할 때 대책이 없어 미안하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만이 답답할 나름입니다.

3월 1일 단식정진의 넷째날이자 삼일절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보수 진보가 따로 없습니다. 10대 소녀였던 유관순 열사가 3 · 1운동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듯이 온국민이 다함께 국력을 키우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단식 중에 흐를 눈물도 없을 텐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강대국들로 둘러 싸인 나라입니다. 정치인 · 경제인 · 문화예술인 할 것 없이 모두 힘을 모아야 이러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남북 6자회담이 마련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한자리에 일본이 있습니다. 왜 일본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까. 남과 북 분단의 근본원인 국가인 일본이 무슨 염치로 남북 회담에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까. 일본은 자신이 지은 업을 스스로 갚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일본에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반환문제가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반환을 두고 돌려줘야 한다 아니다 말이 많습니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당초에 서산 부석사에 있던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환지본처가 맞습니다.

3월 3일 조계사 주지 스님은 몸이 건강해야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며 찾아와 격려해 주십니다. 천막 위 지붕의 나뭇가지 그림자에는 싹이 움트는 씨눈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희망의 계절인 봄을 앞두고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는 위안부 할머니 쉼터에 일본 우익 가수들이 위안부를 비하하는 CD를 소포로 부쳤다고 합니다. 천인공로할 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이만 글을 마칩니다.

〈조계사 단식정진 불자 김창근 씨〉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화제의 신간
새로운 천년의 터

천년의 풍수역사를 정리한다.



이 책은 현재 모호한 풍수지리 정의에 일대 혁명적인 검증과 실증으로 풍수의 본질적 실체를 유사 이래 처음으로 적나라하게 파헤친 살아있는 글이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중대사를 열거 한다.
우리의 풍수역사는 천백년전 통일신라말기 도선국사를 시조로 하여 이어지고 있다.
이때가 즉 풍수 1세대이다. 도선국사는 그가 생전에 지은 저서들을 제자에게 물려주지 않고 지리산 청학동에 숨겨놓고 후대에 그곳을 찾아내는 사람한테 그 법통을 잇게 하는 절묘하고 신묘한 방법을 택했다. **그리하여 500년 후 이조초기 무학대사가 청학동을 찾아들어가 그 법통을 끊어지지 않게 이어 놓았다. 풍수 2세대인 것이다. 그 후로 청학동의 실체를 알아냈다.**

모성학 지음 / 신국판 / 532쪽 / 정가 23,000원

송월스님의 완결판 드디어 출간!
新 사주학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 송원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전국 서점, 인터넷 판매중!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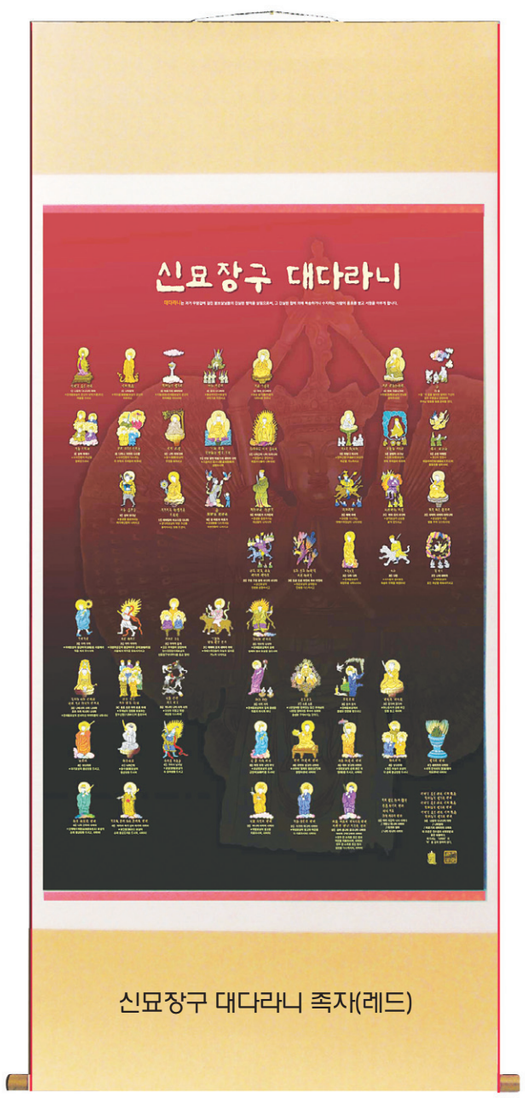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사주풀이의 법수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75,000원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4×6배판/高山 엄창용 지음/양장본/45,000원
子平眞詮精解 우명 서상덕 역 · 저/신국판/4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 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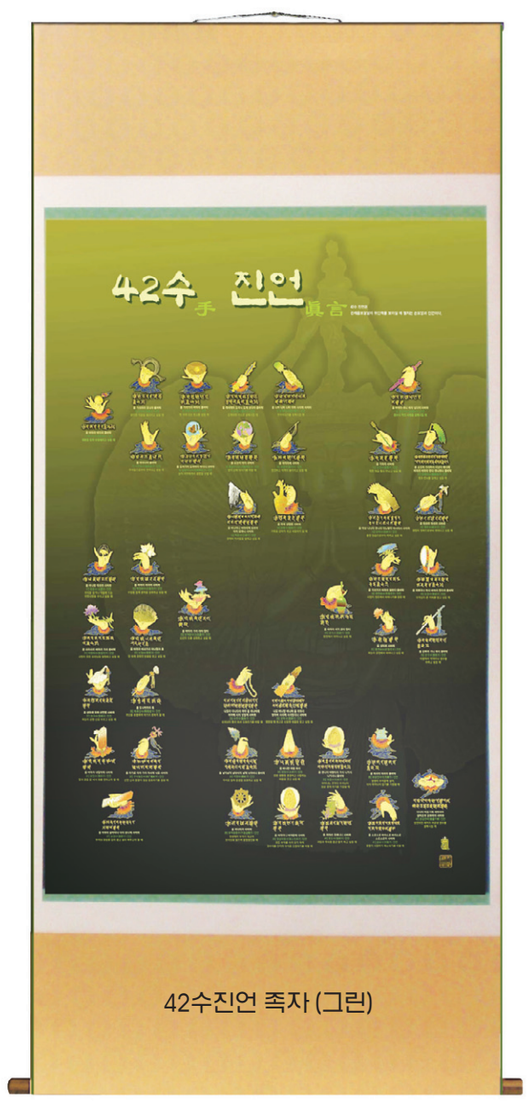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불교용품
불교서적
불교달력

연등 할인가



바림등
빨강,연분홍,진분홍,주황,보라,흰색

청사초롱

공단·바림 칼라등

비닐만월등
파랑, 진분홍, 노랑, 분홍, 초록

연화만월등
파랑, 노랑, 분홍, 초록, 흰색

한지칼라등지 완성
8cm 30,000원
10.5cm 40,000원
※1묶음당 50개를 만들수 있음.

▲8㎝ ▲10.5㎝

- 바림등(6㎝) @2,700원 (50개이상)
- 바림등(8㎝) @3,200원 (50개이상)
- 바림등(10.5㎝) @5,500원 (24개이상)
- 바림등(13㎝) @11,000원 (12개이상)
- 바림등(20㎝) @35,000원 (4개이상)
- 공단등(6㎝) @2,700원 (50개이상)
- 공단등(8㎝) @3,200원 (50개이상)
- 공단등(10.5㎝) @5,500원 (24개이상)
- 공단등(13㎝) @11,000원 (12개이상)
- 공단등(20㎝) @35,000원 (4개이상)
- 공단·바림 일반등(30㎝) @80,000원
- 공단·바림 칼라등(30㎝) @90,000원

- 비닐만월등(100개) 150,000원 (1Box)
- 비닐만월등(국산) 170,000원 (1Box)
- 영가만월등(100개) 150,000원 (1Box)
- 연화만월등(100개) 200,000원 (1Box)
- 장만월등(국산) 200,000원 (1Box)
- 청사초롱등(100개) 250,000원 (1Box)
- 오색청사초롱(100개) 240,000원 (1Box)
- 종이주름등(200개) 160,000원 (1Box)
- 등철사(100개) 6㎝/8㎝/10.5㎝/12㎝ 70,000원/75,000원/80,000원/85,000원

★국산★ 방수전선 (한줄50구)
23㎝ / 25㎝ / 30㎝ 5줄이상 @ 65,000원
50㎝ / 1m / 2m 기타주문생산



봉축카드[21종]
@300원(1,000장 이상)
구성 : 봉투, 내지 인쇄포함
내지 : 18.5×25.6cm



LED전구
110,000원[국산]
1BOX : 50개
색상 : 촛불색/주광색



막대제등램프(분홍/연두)
100개이상 @4,500원
정가 6,000원



연잎(일반)/바림/신칼라(천)
5,000원/ 7,000원/ 30,000원
연분/진분/노랑/주황
빨강/녹색/흰색



PVC등표
12,000원
(100개)
크기: 8.5×21cm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515-8888-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